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지도 방안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린 미

(蘭微, Lin Wei)

國語教育研究

第 525 輯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지도 방안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린 미

(蘭微, Lin Wei)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전후 문맥을 파악하는 읽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 읽기의 과정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된다. 하나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글의 의미를 파악해 가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글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 요소들의 의미와 기능에 기초해서 글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전자를 하향식 이해 과정이라 하고 후자를 상향식 이해 과정이라 한다.

상향적 접근법은 글의 의미 구조를 충실히 구성해 가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고, 어느 읽기 이해에서나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적절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글을 성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읽기 방법으로서 다수의 학생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향식 읽기 지도법의 한 시도로서, 텍스트의 언어 자료에서 이해의 단서가 되는 언어적 요소를 찾아 글의 이해 즉 글의 의미 구조 구성 과정에 활용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접속부사는 일반적으로 단어나 구 또는 문장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앞 문장의 의미를 뒷 문장에 이어 주면서 그것을 꾸미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 요소로 볼 수 있다. 접속부사는 학습자가 텍스트 의미 추측, 구조 파악 등을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읽기 교육을 할 때 접속부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강조해서 의미를 파악시키면 텍스트에 대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향적 읽기 방법의 한 요소로 접속부사의 활용을 설정하고, 그 개념을 규정한다. 그리고 접속부사가 읽기의 이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함을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인다. 이로써 읽기 이해에서 접속부사 활용의

유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범주를 초점화하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I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부분으로 읽기와 읽기 모형, 접속부사의 개념과 의미적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접속부사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현행 한국어교육에서 접속부사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접속부사 이해 양상을 양적으로 확인하고 접속부사의 인식 오류에 대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 읽기 교육 실태와 접속부사에 관한 교사·학습자 간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알아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접속부사의 기능과 읽기 이해의 상관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IV 장에서는 읽기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은 무엇이며, 이것이 학생의 읽기에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의 실재를 보인다. 제시된 계획안에 맞춰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방안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의 상관성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어 읽기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의 설계에 기초 자료가 되었다는 데서 가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접속부사 활용 전략을 훈련하는 읽기 수업을 구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접속부사, 읽기 전략, 상향식 접근법, 텍스트, 언어 요소

학 번 : 2015-22393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4
3. 연구 대상 및 방법	8
II.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 상관성의 이론적 배경	12
1. 읽기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12
1.1. 읽기의 개념	12
1.2. 읽기 과정 모형	14
1.3. 읽기 전략	19
2.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22
2.1. 접속부사의 개념 및 기능	22
2.1.1. 한국어 접속부사의 개념과 기능	22
2.1.2. 중국어 접속사(連詞)의 개념과 기능	32
2.2. 텍스트언어학에서 본 접속부사의 성격	36
3. 접속부사와 읽기 능력 신장	39
3.1. 읽기에서 접속부사의 필요성	39
3.2. 접속부사가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42
3.2.1. 읽기 속도에 미치는 영향	42
3.2.2. 읽기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44
4. 교재 분석 및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의 선정	46
4.1. 한국어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 선정	46
4.2. 한국어 접속부사의 사용빈도	49
4.3.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접속부사의 실태 분석	51
4.4. 선정된 접속부사와 읽기 교육	56
4.4.1. 나열관계 접속부사 ‘그리고’	57
4.4.2. 인과관계 접속부사 ‘그래서’와 ‘그러니까’	58
4.4.3. 대립관계 접속부사 ‘그런데’와 ‘그렇지만’	61

4.4.4. 조건관계 접속부사 ‘그러면’	65
------------------------------	----

III. 한국어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의 상관성 조사 67

1. 조사 방법	68
1.1. 조사 참여자 정보	68
1.2. 자료 구성 및 분석 방법	72
2. 조사 결과 및 분석	78
2.1. 중국인 학습자의 읽기 교육 현황과 접속부사 교수·학습 현황	78
2.2. 중국인 학습자의 접속부사에 대한 이해 양상	88
2.2.1. 나열관계 접속부사의 이해 오류와 원인 분석	88
2.2.2. 인과관계 접속부사의 이해 오류와 원인 분석	93
2.2.3. 대립관계 접속부사의 이해 오류와 원인 분석	95
2.2.4. 조건관계 접속부사의 이해 오류와 원인 분석	98
3. 접속부사의 기능과 읽기 이해의 관계 검증	100
3.1. 나열관계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	103
3.2. 인과관계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	105
3.3. 대립관계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	107
3.4. 조건관계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	108

IV. 중국인 학습자의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109
1.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	110
1.1. 나열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110
1.2. 인과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112
1.3. 대립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114
1.4. 조건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115
2.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의 사례	116

2.1.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 모형	116
2.2. 접속부사 활용한 읽기 수업 모형의 효과 검증	125
2.2.1. 실험 내용 및 참여자 선정	125
2.2.2. 테스트 절차 및 지도 절차	126
2.2.3. 사전·사후 테스트 평가 분석	127
 V. 결론	 136
 참고문헌	 139
부록	145
Abstract	166

표 목 차

[표 1-1] 앤더슨(Anderson, 1999)의 읽기 전략 유형	21
[표 1-2] 접속부사의 분류	26
[표 1-3] 선정된 접속부사의 분류	28
[표 1-4] 중국어 접속사의 의미관계 분류	33
[표 2-1] 선정된 한국어 접속부사 대응하는 중국어 접속부사의 분류	33
[표 2-2] 접속부사가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문항	45
[표 2-3] 세종 말뭉치 접속부사 빈도순위	50
[표 2-4] 표준한국어(2~3)	51
[표 2-5] 서강한국어(2~3)	53
[표 3-1] 서울대 한국어(2~3)	55
[표 3-2] 접속부사 ‘그리고’의 의미특징	57
[표 3-3] 접속부사 ‘그래서’의 의미특징	58
[표 3-4] 접속부사 ‘그러니까’의 의미특징	60
[표 3-5] 접속부사 ‘그렇지만’의 의미특징	62
[표 3-6] 접속부사 ‘그런데’의 의미특징	63
[표 3-7] 접속부사 ‘그러면’의 의미특징	65
[표 4-1] 조사 참여자 구성	69
[표 4-2] 학습자 소속 기관 정보	70
[표 4-3] 교사 성별 분포	71
[표 4-4] 조사 절차 및 자료 구성	73
[표 4-5] 한국어 교사 및 학습자 설문지	73
[표 5-1] 접속부사의 학습 현황	82
[표 5-2] 한국어 읽기 교수 방식	85
[표 5-3] 접속부사의 기능	89
[표 5-4] 접속부사 유무에 따라 이해력 점수 t-검정 결과	88
[표 6-1] 접속부사 지도 모형	111
[표 6-2]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수업의 단계별 내용	114
[표 6-3]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방법의 효과	122

그 립 목 차

[그림 1-1] 코디(Coady, 1979)의 심리언어학적 모형	16
[그림 1-2] 접속부사의 개념	23
[그림 1-3] 접속부사 유무에 관한 문항 정답률	46
[그림 2-1] 한국어능력시험Ⅱ 읽기 부분 접속부사 출현 빈도수	47
[그림 2-2] 접속부사 활용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읽기 수업 단계	68
[그림 2-3] 학습자의 읽기 속도	80
[그림 2-4] 학습자가 읽기 학습에서 선호하는 방법	80
[그림 2-5] 읽기 이해를 돕는 중요 요인	81
[그림 2-6] 접속부사에의 주의 정도	83
[그림 2-7] 접속부사의 활용 효과	83
[그림 3-1] 읽기 학습 향상의 중요 요인	85
[그림 4-1] 응답률	9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읽기는 독자가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재해석하는 의미의 재구성 작업으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다. 읽기는 의사소통 능력 가운데 정보의 획득과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과 관련되고 다른 학습을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이다. 굿맨(Goodman, 1973)은 읽기에서의 독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독자를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했다. 즉 이미 독자가 읽은 것을 바탕으로 예측, 확인,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읽기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료에 제시된 단서들을 모두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단서만을 가려 읽는다고 했다. 따라서 능동적인 독자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신의 선행 지식¹⁾을 활용하여 독자 주도 과정의 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능동적인 독자의 목표는 효율적인 읽기에 초점을 두고 중요한 단서를 통해 의미를 추론하거나 담화 구조를 머릿속에 표상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읽기의 중요한 단서로써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한 담화 표지어를 활용한 읽기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쿠퍼(Cooper, 1984)는 독해에 있어 어휘적 지식보다 문맥 이용 능력 및 결속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독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담화 표지어는 문장들 간의 논리적 연결 장치로서 독자의 사고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끌도록 하며 다른 문장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연속성을 가지

1) 여기의 선행 지식은 내용 선행 지식과 형식 선행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 선행 지식은 수사학적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르의 유형에 따라 글이 구성되는 형식을 포함한다.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나열, 문제와 해결 등 여러 가지 수사적 구조가 있다. 내용 선행 지식은 텍스트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적 지식 그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등을 포함한다. (정수아, 2011:6)

며 글을 일관성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접속부사를 담화표지 하나로 보고 담화 구조 속에서 그 기능을 파악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한국어의 접속부사는 일반적으로 단어나 구 또는 문장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앞문장의 의미를 뒷문장에 이어 주면서 그것을 꾸미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담화 표지어로 볼 수 있다.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한 담화 표지어는 형태론에서는 부사라는 품사로, 통사론에서는 독립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문법에서는 품사와 문장성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이 여전히 정립되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서종훈, 2008). 현재 접속부사의 품사는 부사로, 그에 따른 문장성분은 부사어로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접속부사의 형태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문장의 구성 형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신지연(1998)은 접속부사는 학습자가 텍스트 의미 추측, 구조 파악 등을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읽기 교육을 할 때 접속부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강조해서 의미를 파악시키면 텍스트에 대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연정(2009)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는 모국어 화자에 비해 어휘 및 문법적 지식, 사회적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읽기 텍스트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읽기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접속부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속은 가능하지만 접속부사를 명시적으로 표현 했을 때 생산자의 의도는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텍스트 수용자는 보다 쉽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접속부사의 사용은 우연이 아니라 텍스트 생산자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읽기 교육에서 접속부사의 지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텍스트 내용의 이해와 관련된다.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 명제들 간의 연관 관계는 어떠한지 또 의

2) 주요한 연구는 신현숙(1989), 안주호(1992), 양명희(1995), 신지연(1998) 등을 들 수 있다. (한송화, 2013:142)

미 구조는 어떠한지,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때 접속부사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황미향, 2008). 특히, 거시 구조에서는 의미 덩이들 간의 관계가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속부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이해는 텍스트의 의미 파악을 위해 매우 필요한 능력이다. 다른 측면에서 접속부사의 지도는 사고와 관련된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외국어 교육에서는 교육 목표를 잡거나 교육의 내용을 설정할 때 사고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접속부사란 겉으로 보면 그저 텍스트 요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필자가 그러한 접속부사를 쓰기까지의 사고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먼저 필자는 각각의 사태들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그들 사태 간의 관계를 찾아내어야 하며, 또 그러한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접속부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접속부사에 대한 학습은 곧 필자의 사고의 흐름을 읽어내는 학습이며, 이러한 학습은 나아가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사태들 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접속부사에 대한 학습은 충분할 만큼 강조되지 않고 있다.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접속부사에 대한 학습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들이 절차적 지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접속부사가 무엇이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을 활용하여 읽기를 더 잘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속부사의 텍스트에서의 기능을 연구해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을 실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접속부사를 통해 텍스트의 전후문맥을 파악하는 읽기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접속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 의미 파악, 추측 및 기억을 간단하게 하여 효율적인 읽기를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를 위한 지도 방안 마련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첫째, 학습자들의 읽기 전략 사용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효과적인 읽기 능력 향상과 아울러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이 한국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를 밝힘으로써 객관성 있는 유용한 교육적 자료와 한국어 읽기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을 읽기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넷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수·학습 실재를 실행해 보고 사후 테스트를 통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담화표지와 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

외국어 읽기 교육에서는 오래전부터 읽기 과정과 전략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초기 읽기 전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공적인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가 사용하는 읽기 전략을 비교 연구하였고, 성공적인 읽기의 전략 사용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담화 표지어 연구로 권미정(1999), 박수자(2002), 유효진(2002), 구지민(2004), 김수정(2004), 이효인(2005), 김성은(2005), 김미경(2007), 이연정(2009)이 있다.

권미정(1999)은 독해 전략을 통한 효율적인 읽기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텍스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의 초인지를 개발하고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다

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수자(2002)는 한국어교육에서의 설명적 텍스트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형식스키마 활성화 전략을 사용한 설명적 텍스트의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 읽기 교재를 분석하였는데 설명적 텍스트의 제시 비율 및 수사 구조의 적절성 여부, 형식스키마 활성화 학습 전략의 제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분석을 토대로 텍스트 구조 파악하기, 구조 표지어 찾기 등 형식스키마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한 설명적 텍스트의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유효진(2002)은 한국어 학습자 작문의 텍스트 의미 구조 표지 연구에서 텍스트 구조 표지와 정의의 유형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텍스트 의미 구조 표지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적절한 텍스트 표지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제안하였다.

구지민(2004)은 강의 담화표지의 학습이 강의 청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강의 담화표지의 학습 유무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담화표지 교육이 강의 청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밝혔다.

김수정(2004)은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연구에서 연결어미가 논리적인 텍스트를 이루는 미시 규칙의 일종으로서 텍스트의 응집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역시 연결어미의 담화표지 기능을 연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효인(2005)은 텍스트 구조 표지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텍스트 구조 표지의 유형과 기능을 밝히고 텍스트 구조 표지 유형을 미시 구조 표지와 거시 구조 표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임을 밝혔다.

김성은(2005)은 담화 구조 학습이 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텍스트 구조를 이용한 읽기 수업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김미경(2007)은 텍스트 구조 학습이 한국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원인-결과, 문제-해결, 비교-대조 구조를 중심으로 텍스트 구조를 지도

한 후 실험군의 쓰기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이연정(2009)은 한국어 교사의 읽기 교육시 담화 표지어 교수 현황 연구에서 교사들이 읽기 능력을 좌우하는 것이 ‘글의 전체 맥락 및 문맥을 이해하는 것’ 이라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담화구조 및 글의 흐름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도보다는 글의 세부 내용 설명에 치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담화 표지어 활용의 필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어 읽기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단계별 지침이나 범주에 대한 교수 방침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접속부사와 읽기 교육에 대한 연구

읽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접속부사를 학습해야 한다는 연구는 국어 교육학적 연구와 한국어교육학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어학적 연구는 정오(1991), 김정애(1988), 송수연(2000), 김구동(2005), 황미향(2007)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정오(1991), 김정애(1988)는 지시어·접속어를 중심으로 선행문과 후행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문단의 핵심어를 추출하여 문단, 글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제시된 기행문, 수필, 전기문, 논설문을 대상으로 접속어와 지시어의 사용 횟수를 조사하였다. 교과서에 실린 텍스트에 지시어·접속어의 사용횟수가 많기 때문에 지시어·접속어를 통한 읽기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장한다.

송수연(2000)은 텍스트의 응집성 및 결속성을 추론적 읽기에 적용한 논문으로 추론적 읽기 프로그램이 읽기의 요소를 살펴본 후 추론적 읽기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 순서는 논문의 지시어 및 대용어가 가리키는 내용 추론하기,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문장이나 문단간의 연결 관계로 글의 구조 파악하기, 중심 내용과 주제 추론하기, 제목 추론하기, 줄거리 요약하기,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등의 과정이다. 6학년 한 반을 대상으로 5주간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을 실시한 후, 수업을 받지 않은 다른 반과의 비교에서 추론적 읽기 지도가 읽기능력을 신장시켰음을 증명하였다.

김구동(2004)은 접속어가 글을 확장·창조·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에 착안하여, 접속어의 여러 가지 기능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쓰기능력을 신장시키려 했다. 접속어 교수·학습모형을 ‘안내하기→문제해결하기→연습하기→적용하기’ 네 단계로 설정하고 전 과정에 ‘합의하기’ 과정을 첨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학적 연구는 접속부사의 범주 설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접속부사의 담화 혹은 텍스트 상에서의 기능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다. 신현숙(1989)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의 담화층위에서의 의미와 기능을 살피고 있다. 또 안주호(1992), 신지연(1998)에서도 접속부사의 화제 전환, 설명, 화제 참여 등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이들의 기능과 의미를 살피고 있으며, 양명희(1995)에서도 텍스트에서의 접속부사의 쓰임을 살펴보고 있다. 김미선(2001)에서는 접속부사의 언어환경의 고찰을 위해 소설 텍스트와 구어체 텍스트 약 180만 어절을 분석하고 말뭉치를 대상으로 접속사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서는 접속부사를 시간관계 접속부사(그리고, 그러자, 그러면서)와 대립관계 접속부사(그러나, 그렇지만), 원인관계 접속부사(그래서, 그러므로, 그러하여, 그러니, 그러니까), 조건관계 접속부사(그러면, 그래야), 전환관계 접속부사(그런데, 그러다가), 양보관계 접속부사(그래도)로 분류하여 각각의 의미 기능을 살피고 있다. 최근에는 담화 층위에서의 읽기 전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텍스트 구조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적절한 훈련을 동반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리고 담화 구조 인지와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도 항상 읽기 전략에 관한 연구에 뒤따른다.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위에 2.1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담화 표지어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은 박수자(2002), 이효인(2005), 김성은(2005), 이연정(2009), 정수아

(2011)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담화 표지어를 활용한 읽기 전략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담화 표지어를 활용한 읽기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담화 표지어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전략 교육 모형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다. 담화 표지어를 활용한 읽기 전략에 대한 명시적 지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읽기 전략을 읽기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윌리엄스(Williams, 2007)는 텍스트의 구조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수법이 학생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담화 구조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텍스트의 담화 표지어에 대한 직접 교수, 수사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도식 조직자(graphic organizer)를 이용한 교수, 담화 구조를 의식적으로 강조하는 읽기 지도 방안에 대한 지도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세 번째 요소인 담화표지를 활용한 읽기 지도를 고찰해 볼 것이다. 즉, 담화표지로서의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읽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담화 표지어인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읽기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읽기 능력은 이해적 읽기 과정으로 효율적 읽기와 관련하여 전략적 읽기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의 언어 자료에서 이해의 단서가 되는 언어적 요소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이 한국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세웠다.

(1)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이 글의 주제 및 중심 생각, 글의 맥락 및 흐름(순서)을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는가?

(2)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접속부사와 읽기 교육의 상관성을 강조하고 있는가?

(3)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의 목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4)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읽기 교육을 위한 접속부사의 활용 전략은 무엇인가?

(5)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수업은 읽기 학습에 효과가 있는가?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을 도출하려면 텍스트 안에서 접속부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기능이 텍스트 구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접속부사의 텍스트성³⁾에 대해 고찰하면서 읽기와 연관하여 접속부사의 ‘정보성’을 중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보성은 선행 문맥을 통해 후행 문맥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요건이다. 즉, 문맥의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1>

(가)

나는 여행을 갈 것이다. 我要去旅行.

이 문장에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무한하다.⁴⁾

(나)

나는 여행을 갈 것이다. **그래서...** 我要去旅行. 所以...

나는 여행을 갈 것이다. **그러나...** 我要去旅行. 但是...

나는 여행을 갈 것이다. **그리고...** 我要去旅行. 而且...

3) 텍스트성(textuality)은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한다’ (이석규 외, 2011:78)는 말로 텍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텍스트성은 7가지의 기준이 있다. 즉, 결속구조, 응집성, 의도성, 수용성, 정보성, 상호텍스트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이중의 결속구조와 응집성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본다.

4) 예를 들어, 제주도에 갈 수도 있고, 외국에 갈 수도 있고, 내년에 갈 수도 있다. 또 부모님이랑 갈 수도 있고, 돈을 모을 수도 있다.

같은 기본 문장에 ‘그래서/그러나/그리고’가 위치하게 되면, 후행 문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접속부사가 어떤 관계⁵⁾를 표시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텍스트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접속부사가 ‘정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속부사의 정보성⁶⁾ 때문에 접속부사를 단서로 사용하면 읽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 중국인 학습자한테 접속부사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접속부사와 대응하는 중국어의 접속사(連詞)⁷⁾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는 접속부사의 개념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지만 실제로 대응 표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접속부사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한국어 읽기에서 접속부사의 개념과 기능을 먼저 이해하면 문장이나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정도도 더욱 정확해진다.

본 연구에서 빈도수가 높은 접속부사를 선정해서 중급 학습자의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어 접속부사의 분석 방법과 같이 중국어 접속사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제약, 선행절 서술어 제약, 후행절 서법제약을 살펴보고 접속사에서 공통의미와 변별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중한사전과 한중사전에 제시된 예문을 통하여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의 모든 예문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문법책과 한국어 사전의 예문으로 각각의 출처를 밝혀 놓았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예문은 연구자가 임의로 만들어 낸 문장이다.

-
- 5) 여기서 말하는 관계를 순접, 역접, 인과, 대등·병렬, 첨가·보충, 확인·요약, 전환, 예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6) 정보성에 대한 인식은 내용을 예측하여 문맥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기외(2001)는 응집성이 높은 글이 접속부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심리적으로도 글을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접속부사가 정보성이 있기 때문에, 접속부사 중심의 읽기를 하면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 7) 중국 문법 체계에서 접속사를 연사(連詞)라고 하는데 연사는 단어, 구, 절, 혹은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일정한 의미관계를 표시한다. (黃伯榮·廖序東, 2007). 본고에서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 이하 ‘접속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접속부사를 읽기 방법에 활용한 연구이다. 전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글의 부분들의 내용을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그 후에 부분의 내용들을 논리적 연결 흐름에 따라 묶어 전체 글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글의 부분의 합으로 전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의 논리적 흐름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을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파악할 것이다.

I 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범주를 초점화하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I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부분으로 담화표지 이론, 접속부사의 개념과 의미적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접속부사의 중국어 대응표현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현행 한국어교육에서 접속부사가 어떻게 다루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접속부사 이해 양상을 양적으로 확인하고 접속부사의 인식 오류에 대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 읽기 교육 실태와 접속부사에 관한 교사·학습자간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알아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한국어 접속부사와 중국어 접속부사의 의미 기능을 대조하면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접속부사에 대한 인식 오류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읽기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은 무엇이며, 이것이 학생의 읽기에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의 실재를 보인다. 제시된 계획안에 맞춰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방안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II.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 상관성의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먼저 읽기와 읽기 모형, 담화표지이론, 접속부사의 정의 및 분류, 접속부사의 기능 및 유용성, 접속부사와 읽기교육 등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읽기 교육을 위해서 왜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읽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우선 접속부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인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텍스트언어학, 학교 문법들을 검토한 후에 접속부사의 정의를 내린다. 문장 이상의 텍스트 단위에서 접속부사가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인지를 파악한다. 접속부사가 텍스트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면 독자는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접속부사를 파악하며 읽는 방법은 읽기 능력 신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읽기에서 접속관계를 중심으로 글을 읽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1. 읽기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1.1. 읽기의 개념

굿맨(Goodman, 1970)은 읽기를 문자언어의 수용과정으로 문자언어로부터 독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것을 ‘심리학적 추측 게임(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읽기는 추출하기(sampling)⁸⁾, 예측하기(predicting), 확인하기

8) 굿맨(Goodman, 1973)은 유능한 독자일수록 정확한 예측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4 단계의 읽기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 **추출하기(sampling)**: 독자는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 글을 추출한다. 유능한 독자일수록 추출은 더욱 선택적이 된다.

(confirming), 수정하기(revising)의 반복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숙달된 읽기는 모든 단서들(clues)의 효율적인 사용 과정, 전략의 적용 과정, 의미의 창조 과정의 통합 여부에 따라 구별 된다' 고 주장하였다.

스미스(Smith, 1971)는 읽기 과정에서 시각적 정보(visual information)와 비시각적 정보(non-visual information)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각 정보란 문자(phonics), 통신(syntax), 의미(semantics)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그는 읽기 행위란 이 세 가지 정보가 뇌에 저장된 정보들과 상호 작용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즉, 시각적 상징에 대한 의존도에 비해 독자의 공헌도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비시각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노명완(1987)은 효율적인 읽기란 첫째, 문자 언어를 유창하게 해독(decoding)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내용을 이해(understanding)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알지 못했던 내용을 읽으면서 학습(learning)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억(remembering)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제2언어 읽기 연구는 모국어 읽기의 심리언어학적 관점, 스키마 이론과 상호작용 과정 모형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받아 이루어져왔다. 읽기 과정 모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상향식(Bottom-up), 하향식(Top-down), 상호작용(Interactive)읽기 과정 모형이다. 다음 절에서는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 읽기 과정 모형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제2언어 읽기 과정 모형으로 제안된 코디(Coady, 1979)의 심리언어학적 모형, 베른하르트(Bernhardt, 1991)의 사회구성주의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예측하기(predicting)**: 독자는 자신의 언어 지식을 사용하고 구조에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하여 의미 개념을 부여하고 글의 문법적 구조를 예측한다.

· **확인하기(conforming), 수정하기(correcting)**: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거나 선택적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예측한 문자 입력이 글에 없는 경우에 이를 수정하게 된다.

1.2. 읽기 과정 모형

(1) 상향식 읽기 모형(Bottom-up Reading Model)

상향식 읽기 모형은 읽기를 하위 단계인 인쇄 문자에서 시작하여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의미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음운, 문자, 단어 등의 단위에서 구, 절, 문장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마침내 글 전체의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다. 고프(Gough, 1972)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그는 능숙한 독자일수록 글자를 빨리 식별하며, 대부분의 독자는 글자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읽어간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은 글자나 단어 처리에 초점을 두어 읽기를 독자가 한 글자 또는 문장씩 읽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렇게 상향식 모형은 입력되는 자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유도적(data-driven)처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형은 전반적인 이해 과정보다는 단어 인지 처리에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맥이나 독자의 배경 지식의 역할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나 통사적 측면에 의존하여 글을 이해하는 초보 단계의 독자나 미숙한 독자의 읽기 과정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우수한 독자의 읽기 과정은 설명해주기 어렵다.

이연정(2008)에 의하면 상향식 모형의 독해는 우선 어휘에 초점을 둔다. 학습자가 알지 못하는 어휘 목록을 미리 제시하거나 교사가 의미를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구 수준의 단계에서 교사는 관용구 등의 해석 방식에 중점을 두게 되고, 문장 수준에서는 수식관계 및 지시사를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단락 수준에 이르러 의미 해석이 완성된다. 또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해문제의 형식으로 단어나 구의 의미, 문장이나 단락 전체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 따라서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휘력 및 문법지식을 키우고, 접속관계를 복습하는 일 등이 강조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한 수업에서는 의미는 문자 안에만 존재할 뿐, 독자가 의미 해석에 관여할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는 매우 수

동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 독해란 문자의 의미를 회복하는 작업이며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여긴다. 독자의 주체성을 인정하거나 독자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다르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면서 상향식 읽기 이해과정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스미스(Smith, 1978)는 상향식 처리 모형으로는 글의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고, 누난(Nunan, 1995)은 독자 오류 분석 연구를 통해 독자의 오류는 읽기에 기계적인 해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 상향식 모형의 약점은 피드백이 없다는 것이다. 즉, 나중에 일어난 정보 처리과정이 문장-문맥 효과라든지 글의 주제에 대한 선행지식의 효과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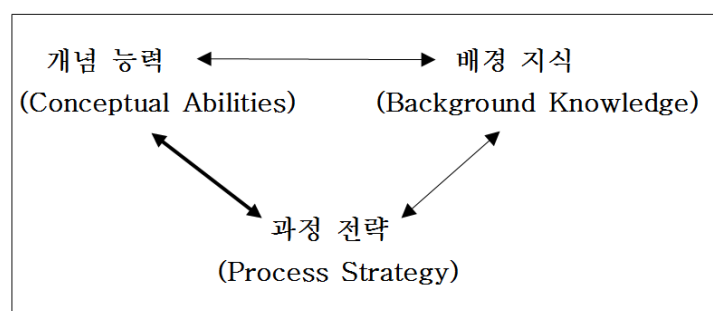
(2) 하향식 모형(Top-down Reading Model)

하향식 모형은 상향식 모형과는 반대로 독자의 내용 스키마(사전 학습, 일반 정보 등)와 형식 스키마(정보, 글의 유형 등)가 먼저 형성된 후 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독자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글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고 보고 있다. 이 모형은 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글에 있는 문자 언어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글의 통사체계와 의미체계, 담화 구조,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사용을 강조하는 높은 수준의 인지 과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Cziko, 1980).

하향식 모형의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굿맨(Goodman, 1967)을 들 수 있다. 그는 읽기의 목적을 의미의 재구성으로 보고, 의미는 인쇄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글을 쓸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향식 모형에서는 독자가 글에 나타난 요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배경 지식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하향식 모형에 의하면, 독자는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배경 지식에 통합한다. 따라서 하향식 모형은 독자 중심의 개념 유도적(Conceptually-driven) 읽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형은 단어 인지등과 같은 낮은 단계⁹⁾의 처리 능력이 갖는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였기에 비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 모형은 텍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언어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읽기 과정은 설명해주기 어렵다.

코디(Coady, 1979)는 굿맨의 심리 언어학적 모형을 제2언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모형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읽기 과정의 개념화를 위해서 3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학습자의 배경 지식, 일반적인 지적 능력인 개념 능력, 읽기의 하위 구성요소인 과정 전략이다. 즉, 읽기는 이 세 가지 요소 사이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이해로 보고 있다.



<그림1-1> 코디(Coady, 1979)의 심리언어학적 모형

위 모형에서 개념 능력은 독자의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배경 지식은 독자가 이미 갖고 있는 선행 지식을 말하며, 과정 전략은 일반적인 언어 처리 기능으로서 언어적, 통사적, 의미적 정보를 포함한다. 코디는 과정 전략을 ‘독자가 진행해 나가지만 반드시 같은 방법이 아닌 이해를 향한 경로’를 말한다고 하면서 독자는 각기 다른 읽기 목적을 위해 과정 전략을 바꾼다고 제안한다. 전형적인 독자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점차 추상적인 과정으로 옮

9) 스타노비치는 능숙한 독자일수록 낮은 단계의 처리 기술이 뛰어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단순히 단어를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능숙한 독자의 읽기 과정을 예측 과정으로 보면 읽기의 효율성을 올바르게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Stanovich1980:35; 전홍, 2010:12 재인용)

아가며 읽기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독자들은 단어 의미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과정 전략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점차 문맥이나 통사와 같은 보다 추상적인 전략을 배우게 된다. 미숙한 독자는 단어 인식과 같은 과정 전략에 초점을 두는 반면, 숙련된 독자는 더 추상적인 개념 능력에 초점을 두며 읽기 자료의 정보를 예상하고 확인하는 데 배경 지식을 더 잘 이용한다. 코디의 연구는 개별 독자가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모형은 읽기에서 배경 지식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하향식 읽기 과정에 치우쳤다.

(3) 상호작용 읽기 모형(Interactive Reading Model)

상향식 읽기 모형과 하향식 읽기 모형 모두가 읽기 과정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생겨난 것이 상호작용 모형(interactive model)이다. 이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독자와 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여러 기능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읽기는 독자와 글의 상호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은 어느 한 가지 변인에만 국한하여 언어 처리 과정을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상향식 모형은 이해 과정에서 ‘글’의 역할을 강조한 모형이고, 하향식 모형은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 모형이다. 그러나 이해 과정은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상호작용 모형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상호작용이라고 본다. 능숙한 독자에게는 상향 및 하향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상호작용 읽기 모형은 루멜할트(Rumelhart)와 스타노비치(Stanovich)의 읽기 모형을 들 수 있다. 스타노비치는 기본적인 상호작용적 읽기 모형에 ‘보상 가설(compensatory hypothesis)’을 첨가하였다. 스타노비치의 상호작용-보완적 모형은 한 단계의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때 맥락 기대(contextual expectancy)와 같은 보다 높은 단계의 처리 과정에 의존하여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

스타노비치(Stanovich, 1980)의 상호 보상 모형은 상향식 기능과 하향식 기능이 상호 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상향식과 하향식 사이에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읽게 된다는 것이다.

루멜할트(Rumelhart, 1977)의 읽기 모형은 상호작용 모형의 대표적인 예로서 그는 간단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스키마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스키마 이론은 글보다 독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스키마로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읽기 과정에서 접속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는 읽기 과정 내내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 가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접속부사는 논리적 의미를 연결해주므로 접속부사를 논리적 표지로 활용하여 읽는다면 글의 내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글자와 어휘, 문장 등 각 언어 단위들의 의미와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핵심어를 찾고, 중심 내용이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글의 이해에 접근하게 하는 상향식 읽기 지도법의 한 시도로서, 텍스트에서 이해의 단서가 되는 언어적 요소를 찾아 글 이해 즉 글의 의미 구조 구성 과정에 활용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의 의미를 텍스트의 언어 형식에 의존하여 구성하도록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접속부사는 미시구조에서 거시구조까지 활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전략이 된다. 따라서 읽기 지도에서 교사는 접속부사를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적극적 전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전략이 개입되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는 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읽기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 읽기 전략의 개념과 분류 및 읽기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3. 읽기 전략

(1) 읽기 전략¹⁰⁾의 개념

읽기 전략에 관한 학자별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루빈(Rubin, 1987)은 전략은 학습자들이 정보의 획득, 저장, 검색 및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조작, 절차, 계획, 관리라고 하였고, 앤더슨(Anderson, 1991)은 전략은 학습자들이 신정보를 습득하고 저장하며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작, 절차, 계획, 관리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코헨(Cohen, 1990)은 읽기 전략을 ‘읽기 과제 달성에 사용하기 위해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정신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은 효과적인 언어 학습 또는 언어 학습 시 주어지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습자의 의식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한편, 글 내용의 이해에 보다 초점을 두고 내려진 정의는 바네트(Barnett, 1988)와 더피(Duffy, 1993)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네트는 읽기 전략이란 독자가 읽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목적을 갖고 글을 대할 때 관련되는 정신적 작용이라고 하였고, 더피는 학습자가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블록(Block, 1986)은 읽기 전략은 독자가 어떻게 주어진 과제를 인식할 것인지, 이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읽기를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할 것인지와 관련된다고 했다.

박수자(1994)는 읽기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전략¹¹⁾으로 다음의 10 가지

10) 전략이라는 말은 책략이나 방략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람에 따라서는 구별하여 쓰자는 견해도 있지만, 요즘에 전략이라는 말로 통일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원래 전략이라는 말은 군사용어로 특정의 군사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의 조직을 뜻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 개념은 복잡하고 목적 지향적인 인간의 행위를 잘 표현하고 있어 경영학이나 경제학, 정치학, 교육학, 심리학 등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천경록 외, 1997:269)

11) 이성영(1990)은 기능(functions)과 기능(skills)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는데, 기능

를 제시하였다.

- | | |
|---------------|---------------|
| ■ 읽기 모형 전략 | ■ 글 구조 파악 전략 |
| ■ 문단 관계 파악 전략 | ■ 담화 구조 파악 전략 |
| ■ 중심 내용 파악 전략 | ■ 관계 짓기 전략 |
| ■ 문맥 단서 전략 | ■ 예측하기 전략 |
| ■ 재구성 전략 | ■ 초인지 전략 |

그는 담화 구조 파악 전략을 중심 내용 파악 및 관계 짓기 전략과 함께 의미내용 이해지향 전략으로 구분하면서 구조 파악 전략은 나머지 두 가지 전략을 토대로 의미 내용의 중요도와 그에 따른 구조화 양상을 인식하여 문면이해(literal understanding)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읽기 전략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접속부사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글 구조 파악 전략, 문단 관계 파악 전략, 담화 구조 파악 전략, 문맥 단서 전략, 예측하기 전략 등 전략에서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읽기 학습을 훈련시키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의 읽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읽기 전략 중심의 지도가 중요하다. 읽기 전략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려면 읽기 전략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레이브(Grabe, 2009)는 인지에 의해 읽기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인지적¹²⁾(Cognitive) 단계와 초인지적(Metacognitive)

(skills)은 기능(functions)을 수행하는 동태적인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읽기의 목표인 의미 획득은 읽기의 기능(functions)이 되며, 기능(functions)을 달성하려는 행동 양식을 기능(skills)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략은 행동 주체가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 나가는 방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읽기가 글을 재구성하는 행위라 할 때, 재구성과정에는 의사 결정 행위가 포함된다. 이 의사 결정 행위를 전략적 요소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때, 읽기 행위 자체는 전략 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전략을 익히게 되면 어떤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 12) 인지적 전략은 독자가 훈련을 받아야만 사용가능한 전략을 말하고, 초인지적 전략은 읽기 자체에 대한 명백한 자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읽기 목표에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인데 여기에는 이해에 대한 의도적인 보완이나 텍스트를 통한 정보 취득

단계이다. 앤더슨(Anderson, 1999)은 읽기 전략을 위와 같이 3 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각 그룹의 구체적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3)

<표1-1> 앤더슨(Anderson, 1999)의 읽기 전략 유형

① 인지적 읽기 전략	내용 예측하기, 주요 생각 이해하기, 어휘나 문법 확장하기, 모르는 단어 의미 추측하기, 주제나 문체, 접속사 분석하기 , 사실 구별하기, 어려운 구문과 쉬운 구문 나누어 읽기, 의미망이나 의미 지도 만들기, 짧게 요약하기, 모국어와 목표어의 단어 연결하기 등
② 초인지적 읽기 전략	읽기 목적 세우기, 어휘 목록 만들기, 반 친구들과 협동하여 공부하기, 연습할 기회 만들기, 스스로 평가하기 등
③ 보상적 읽기 전략	자신의 배경 지식 활용하기, 세부 사항 메모하기, 이해한 것을 기억하도록 노력하기. 내용의 목적과 어조 다시 한번 살피기, 머릿속에 그려보기, 주요한 생각과 세부 사항 재검토하기, 신체적 행동으로 반응하기, 의미 그룹으로 분류하기 등

본 연구에서는 훈련을 받고 습득할 수 있는 인지적 읽기 전략을 위주로 한 교수-학습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위의 표에서도 보듯이 인지적 전략 중에는 ‘접속사 분석하기’ 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가 없으면 학습자들이 읽기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읽기 수업의 한 실례를 보여 주고자 한다.

활동 등이 포함된다.

13) 강현화 외(2011b:183)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2.1. 접속부사의 개념 및 기능

2.1.1. 한국어 접속부사의 개념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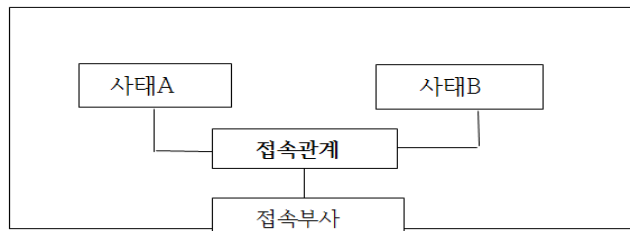
(1) 한국어 접속부사의 개념

접속부사는 선행 성분이나 문장과 후행 성분이나 문장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는 단어들이다. 김광해 외(1999:493)는 “한국말의 접속어에는 접속어미와 접속부사가 있다”라고 하며, ‘접속어’를 ‘접속부사’와 ‘연결어미’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로 보고 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등의 접속부사와 ‘-면서, -고, -니’ 등과 같은 연결어미를 함께 ‘접속어’로 보고, 접속부사와 접속어미로 나누어 설명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따르면 접속부사는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주는 부사이다. 다시 말하자면 접속부사는 독립된 품사가 아니라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접속부사는 부사의 하위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부사와는 차이가 있다. 먼저 ‘부사’는 수식 위치가 좀 더 자유로우며 주로 용언이나 문장안의 다른 부사를 수식하지만 접속부사는 그 명칭대로 ‘접속’과 ‘부사’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문장 안에서의 위치를 옮기기가 자유롭지 못하고 문두(文頭)에 있어야 하며 문장 전체의 의미에 관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손남익(1995: 26)에서는 접속부사들은 선행문과 후행문에 있어서 의미론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고 문장 전체의 의미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문장 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접속부사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임유중(1998), 이관규(2004), 이주행(2006) 등에서는 ‘접속부사’를 ‘접속사’로 주장하고 있

다. 남기심 외(2001 : 181)에서는 접속부사는 부사의 하나로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도 하고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기도 하는 문장부사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임홍빈(1997), 이주행(2006), 함계임(2006)에서도 접속부사가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거나 앞 문장을 뒤 문장에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학자들 사이에서 ‘접속부사’와 ‘접속사’의 용어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접속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김미선(2001)은 접속부사를 표층적 연결체인 응집성(cohesion) 형성의 주요인으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로 영어의 접속사와 달리 한국어의 접속부사는 의미관계를 이루고, 위치가 자유롭고, 수식과 접속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점에서 통일성(coherence)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미선, 2001)

접속관계는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앞·뒤에 위치한 사태를 연결한다. 접속관계가 성립하는 방식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2> 접속부사의 개념

보그랑테 & 드레스러(Beaugrande & Dressler, 1995)에서는 텍스트성의 요건 중 결속구조와 응집성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즉, 이 두 요소를 텍스트 판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

접속관계는 글 안에서 사태를 연결하기 때문에 문법적 차원인 응집성(cohesion)¹⁴⁾의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또 글 전체의 의미 구성

15) cohesion은 텍스트 구성성분과 텍스트 표층 문법적 자질을 말하고 주로 미시구조 차원

에 접속관계가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접속부사는 사태를 단순히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관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바로 접속부사를 통해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2) 한국어 접속부사의 기능

① 어휘로서의 접속부사

이남경(2008)은 어휘를 유형화하는 것은 단어들을 비슷한 속성을 기준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고 제시하였다. 접속부사도 어휘의 영역에 포함되는데, 접속부사는 새로운 어휘를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개방적인 어휘라기보다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어휘들을 활용하는 폐쇄적 어휘에 가깝다. 연결어미처럼 계속 활용하는 경향도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휘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¹⁵⁾ 따라서 접속부사는 그 자체만으로 암기해야 할 어려운 어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또 한정된 접속부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장이 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속부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접속부사를 사용하면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해 짜임이 엉성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반대로 접속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 문맥의 흐름이 매끄러워 지고, 의미도 선명하게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접속부사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면 텍스트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접속부사가 다른 어휘와 구분되는 것은 새로운 어휘를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휘 자체의 의미보다 문맥의 흐름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결과 동시에 문맥의 흐름이 자

에서 거론된다.

- 16) 최진경(2004:3)은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설명문과 논설문의 접속부사 분포도를 통해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므로, 그러면’ 등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연스러워야 한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접속부사 이후는 접속부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문맥을 형성한다. 즉, 어떠한 접속부사가 선택되느냐와 어떤 내용을 후치하느냐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이것이 접속부사가 텍스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접속부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 이 역시 다른 어휘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어휘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전달하지만, 접속부사는 그 자체로서 보다 문장이 연결되어야 의미가 분명하게 된다.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등 어떠한 단위의 텍스트도 접속부사로 연결될 수 있다. 연결어미의 경우 2~3 문장의 연결이 최대일 수 있으나, 접속부사의 경우는 그보다 많은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문장 이상의 단위도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연결어미와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접속부사는 어휘이다. 그러나 어휘적 특성을 가지면서 이에 한정하지 않고, 동시에 텍스트적인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속부사는 접속부사를 통해 연결된 선후행 문맥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접속부사를 어휘로서 학습함과 동시에, 텍스트 안에서 표현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

접속부사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접속부사의 의미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미를 알아야 문맥을 연결하는 접속부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접속부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준이 고정되지 않고,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분류 체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다양한 분류 체계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유형 분류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2> 접속부사의 분류¹⁶⁾

선행연구	의미관계	접속부사의 종류
최현배 (1937:586)	별 립 (並列)관계	또, 그뿐 아니라, 더구나, 하물며
	매 힘 (拘束) 관계	a. 까닭(理由)과 때문(原因)을 보이는 것: 그러(하)니, 그러(하)매, 그러(하)므로, 그러한즉, 한즉, 그러(하)니까, 하니까, 그런고로, 따라
		b. 매개(條件)를 보이는 것: 그러(하)면, 그러하거든, 그렇거든, 그래야만
	안매 힘 관계	그러하지마는, 그렇지마는, 하지마는, 하나, 하나마, 그러(하)나, 그러(하)되, 하되, 그러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김민수 (1971:256)	反復關係	그리고, 그런바, 또, 그러자, 따라서, 그러다가
	選擇關係	혹은, 또는
	對立關係	그러나, 하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假立關係	그렇지만, 하면, 그렇거든, 하거든, 그렇더라도
	原因關係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 그래서, 그러므로
손남익 (1995:63-67)	前提關係	그래야, 해야, 그렇건만, 그런즉, 그럴망정
	순접관계	그리고, 및, 연중애
	역접관계	그러나, 그러지마는, 그렇지만, 단, 한테
	인과관계	그렇지만, 그러므로, 그러한즉, 그러고로, 그런즉, 그럼, 그리한즉, 따라서, 시고로써, 연즉, 한즉
김미선 (2001:7)	선택관계	또는, 한편, 혹은
	시간관계	그리고, 그렇지만서, 그러자
	대립관계	그러나, 그렇지만
	원인관계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하여
	조건관계	그렇지만, 그래야
	전환관계	그런데, 그러다가
이주행 (2006:200)	양보관계	그래도
	순접관계	그래서, 따라서 등
	역접관계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대등관계	또, 또한, 및, 혹은
	첨가관계	그리고, 아울러 등
	인과관계	그러기에,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왜냐하면 등
	예시관계	예컨대, 이를테면, 말하자면
하지걸 (2011:8-9)	전환관계	그런데
	병렬관계	그리고, 및, 또
	대립관계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첨가관계	게다가, 더구나, 더욱이, 또한, 아울러, 하물며

16) 하지걸(2011), 강범(2016) 부분 재인용해서 본 연구자 정리했음.

	전환관계	그런데, 그러다가, 다만, 단, 아무튼
	선택관계	또는, 혹은, 한편
	조건관계	그럼, 그렇지만, 그래야
	인과관계	왜냐하면, 그러니,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기에, 따라서, 그리하여
	양보관계	그래도

위의 분류는 글의 내용과 내용이 논리적 연결 관계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접속부사가 선행 접속내용과 후행 접속내용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글의 논리 흐름을 짚을 수 있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표2-2>에서 제시된 분류는 현재 한국 국내에서 접속부사를 연구하는 주요 논저들의 분류이다. 최현배(1937:586)에서는 접속부사에 대한 최초의 체계로 접속부사의 뜻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다시 어휘를 정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민수(1971:256)에서는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접속부사를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자, 따라서’는 ‘反復的’ 판단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는 ‘對立的’이 아니라 양보관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손남익(1995:63-67)에서는 접속부사를 순접, 역접, 인과, 선택, 4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현대 국어에서 자주 쓰이지 않은 어휘도 많이 있고 또한 ‘연중에, 썬, 시고로’ 등과 같은 어휘들이 접속부사로 보기가 어려운 것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김미선(2001:7)에서는 접속부사를 6가지로 분류했는데 대용언 ‘그러하다’를 바탕으로 한 접속부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주행(2006:200)에서는 접속부사를 7가지로 분류했는데 하위 범주가 대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따라서’는 순접관계에 속하기도 하고 인과관계에 속하기도 한다. 넓은 의미로 보면 순접관계는 인과관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분류를 따르되, 한국어 읽기 텍스트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접속부사 13개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의미관계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표1-3> 선정된 접속부사의 분류¹⁷⁾

나열관계	그리고, 또한
인과관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대립관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그래도
조건관계	그러면, 그래야

② 문장 연결체로서의 접속부사

접속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을 텍스트로 성립하게 하는 것은 두 문장 이상일 때 사용되는 접속부사이다. 물론 문장이 하나일 경우에도 접속부사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선행 문맥에 대한 연속체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서 완결한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예2>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예3> “왜냐하면,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두 문장은 각각의 선행 문맥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문맥을 통해 선행 문맥을 추측할 수 있다. 예2는 어떤 사건의 발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3은 어떠한 행동, 또는 발화가 선행 문맥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문맥

18) 최현배(1937/1983)에 따라 접속부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단어 연결 문장 부사	및, 또는, 곧, 혹은	
문장 연결 문장 부사	나열관계	그리고, 또, 더구나, 하물며, 즉, 또한
	인과관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러니, 그런즉, 따라서, 고로
	대립관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그래도, 하나, 그렇되, 그럴지라도
	조건관계	그러면, 그래야, 그렇거든

혹은 문장이 선행되었다는 전제하에 후행 문맥이 구성되어 접속부사는 선행 문장에 대한 연결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상황 맥락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접속부사는 다음과 같은 문장 연결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예4>

- ① 나는 쇼핑을 하러 간다.
- ② 갑자기 비가 내렸다.

①+② 나는 쇼핑을 하러 간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

두 문장은 ‘그런데’라는 접속부사로 형식적인 접속과 함께 의미적인 밀접성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 안에서 접속부사는 결속구조와 응집성을 구별하여 텍스트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의미와 형식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장 연결체로서 접속부사는 선행문장을 연결함과 동시에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여 문맥의 흐름을 매끄럽게 한다. 단순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혹은 후행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여기서 ‘강조한다’는 것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곧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대개는 접속부사 이후에 놓인 내용이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 된다. 접속부사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논의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접속부사가 사용된 문장 이후에 주장하는 바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접속부사의 역할은 논의를 밝혀주고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읽기 이해 과정에서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읽으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로서의 접속부사와 함께 문장 연결체로서의 접속부사를 접속부사의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자 한다.

③ 맥락 구성체로서의 접속부사

맥락 구성체로서의 접속부사는 텍스트성의 요건인, 의도성, 수용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정보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 글과 담화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담화의 경우는 접속부사만으로 압축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에 그 기능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의도성, 수용성, 상황성은 담화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는 논하기 어렵다. 이 의도성과 수용성, 상황성은 개별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존재한다.

예5>

- ①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까?
- ② 좋아. 그런데, 왜 갑자기 영화 보자는 거야?
- ① '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상황성을 바탕으로, 접속부사가 상호텍스트성에 입각하여 각 텍스트를 연결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데’라는 접속부사는 선행 문맥을 선결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대해 전환의 관계에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다. 즉, 발화자의 의도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그런데’가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물음을 수용하고, 다시 자신의 의사를 밝히려는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맥의 연결 상호텍스트성이 상호작용을 통해 문맥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보성 역시 담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이유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 이유의 진위를 따져 묻는 것까지 다루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정보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성은 접속부사의 의미별 유형 분류에 입각하여 확보될 수 있다. 글의 맥락을 ‘구성’하는 것은 글을 이해(듣기-읽기)하고

표현(말하기-쓰기)하는 것 모두에 해당한다. 접속부사가 맥락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방향을 포착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써, 이와 같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함께 고려하면, 접속부사가 가장 텍스트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접속부사의 텍스트성에 대한 이해는 접속부사의 사용과 실제적 관련을 맺는데, 그 사용 실태를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18) 접속부사를 학습한 중국인 학생들의 접속부사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객관식 문항으로 맞는 접속부사를 고르는 문제가 주어진 경우는 40%를 상회하는 정답률을 보였으며 주관식으로 접속부사를 채워 넣는 문항에서는 평균 20%에 못 미치는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읽기’ 과정에서 접속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습자들은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시 접속부사 사용에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접속부사의 적절한 사용은 형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접속부사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는 곧 통일성과 응집성에 기인하여 의미의 완결을 이루는 장치의 역할을 한다. 의미적으로 유관한 연결을 한다는 것은 접속부사가 기능적인 연결 즉, 문장연결체와 맥락구성체로서 연결이 이루어질 때 텍스트에 생명력이 부여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텍스트성에 기반을 둔 접속부사의 기능 이해는 접속부사 용법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접속부사 교육의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방법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읽기 교육에서 접속부사의 지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텍스트 내용의 이해와 관련된다.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 명제들 간의 연결 관계를 어떠한지 또 의미 구조는 어떠한지,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 때 접속부사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거시 구조에서는 의미 덩이들 간의 관계가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

19) 한국어능력시험 I, II에서 제시된 문항들을 인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속부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이해는 텍스트의 의미 파악을 위해 매우 필요한 능력이다. 다른 측면에서 접속부사의 지도는 사고와 관련된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서는 교육 목표를 잡거나 교육의 내용을 설정할 때 사고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1.2. 중국어 접속사(連詞)의 개념 및 기능

중국어 접속사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黃伯榮·廖序東(2007 : 하권29)에서는 접속사는 단어, 구, 분문 혹은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일정한 의미 관계를 표시한다고 하였고, 『현대한어사전』¹⁹⁾에서는 접속사는 단어와 구 혹은 분문을 연결하는 허사(虛詞)²⁰⁾라고 정의하였다. 張斌·張誼生(2000 : 142)에서는 접속사는 단어, 구, 분문 혹은 문장을 연결하는 통사론적 기능을 가지며 또는 수식하는 의미론적 기능과 표현하는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하였다.

중국어 접속사는 그 수가 비교적 많고 분류도 상당히 복잡하다. 劉小瑜에서 제시된 총 79개의 중국어 접속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和, 跟, 同, 与, (∼와/과), 而, 而且 (∼고, 그리고), 以及, 及 (그리고), 并, 并且 (또한), 进而 (나아가서), 因, 因为 (∼ 때문에), 由於 (∼로 말미암아), 所以, 因此, 因而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以至, 以至于, 以致 (∼게되다, ∼로하여), 然后 (그 다음에), 于是 (그리하여), 那么 (그럼, 그러면), 但, 但是, 可, 可是, 然而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只是, 不过 (그런데), 否则, 不然, 反之 (그렇지 않으면), 要不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虽, 虽说 (비록∼지만), 尽管 (비록∼할지라

20) 呂叔湘(2008),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본 연구에서 『現代漢語詞典』으로 쓴다.

21) 중국어의 단어는 단어 기능에 따라 실사(實詞)와 허사(虛詞)로 분류할 수 있다. 실사(實詞)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장 안에서 주요 성분으로 나타나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반면에 허사(虛詞)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고 문장 안에서 단독으로 문장성분이 되지 못하며 접속사, 부사, 조사, 개사, 어조사(語助詞)로 구성되어 있다.

도), 固然 (물론~지만), 哪怕 (설령), 不但, 甚至 (심지어), 不仅, 不只, 不光, 不单 (~뿐만 아니라), 况且 (더욱이는, 게다가), 何況 (하물며), 从而 (따라서), 此外 (또한, 또는), 另外 (그밖에), 或, 或者 (혹은), 還是 (~아니면), 如, 如果, 假如, 假使, 倘若, 万一 (가령, 만약, 만일), 要是 (만약), 即使, 即便 (가령), 只有 (오직~만), 只要 (하기만, 한다면), 除非 (~지 않으면, 오직~만), 不论, 不管, 无论 (~막론하고, ~든지), 既 (~한바에야), 既然 (~된바에야), 总之 (하여간, 아무튼, 어쨌든, 요컨대), 可見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虽然 (그래도), 与其 (~하기 보다는 차라리), 免得 (~하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 以, 以免 (~함으로써), 以便 (~편리하게 하다), 一来 (첫째로는).

张斌·张谊生(2000)에서 정리하는 분류를 참고해서 다음과 같은 분류를 정리했다.

<표1-4> 중국어 접속사의 의미관계 분류

관계 유형		접속사의 예시	
연 합 관 계 접 속 사 (聯 合 關 係 連 詞)	병렬관계 (並 列 關 係)	단독 사용	和, 跟, 與, 并而, 而且, 以及, 同時, 也, 又, 此外 (그리고, 또한, 및 등)
		함께 사용	既…也…, 既…又…, (뿐만 아니라…) 一边…一边…, 一方面…一方面(…면서…), …不是…而是…((…아니라…), 一會兒…一會兒…((…다가…))
	승접관계 (承 接 關 係)	단독 사용	於是(그리하여), 然後, 接著, 跟著(그런 후에), 那么(그러면), 而(그러니), 終於(마침내)
		함께 사용	首先…, 然後/再/又…, (먼저…, 그 다음에… 一/剛…就…(…자마자…), 先…後來…(먼저…나중에…))
	선택관계 (選 擇 關 係)	단독 사용	或, 或者(혹은), 還是, 要麼(하든지), 不但(…뿐만 아니라…), 還不如, 倒不如(…하는 게 낫다)
		함께 사용	要么…要么…(…하든지), 寧可…也不…, 與其…寧可不如…(차라리 …할지언정), 或者…或者…(이던가 아니면 …이다), 是…還是…(…인가…), 不是…就是…(…이거나 아니면 …이다)
	점층관계 (遞 進 關 係)	단독 사용	並且, 而且(게다가), 不但(…뿐만 아니라), 何況, 況且(하물며), 尚且(그럼에도 불구하고), 甚至, 更, 還, 甚至於(심지어), 更何況(하물며), 反而(오히려)
		함께	不但…而且…, 不僅…還…, 不光…也…, 不只…更…

주 종 관 계 집 속 사 (偏 正 關 係 連 詞)	전환관계 (轉 折 關 係)	사용	(...뿐만 아니라), 為了...而..., 因為...而...(...위해)
		단독 사용	只是(단지), 不, 但是, 可是(그러나), 雖然, 但, 可卻, 然而(그런데, 그러지만, 하지만)
	인과관계 (因 果 關 係)	함께 사용	虽然, 尽管...但是/可是..., 固然...可是..., 但是/可是/ 不过...却/也/还..., 雖然...不過..., 不过...罢了...(그런 데, 그러지만, 하지만, 그래도)
		단독 사용	因為, 由於, 是因為, 是由於, 所以, 因此, 因而, 既然, 既, 以致, 致使, 從而(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가정관계 (假 設 關 係)	함께 사용	因為...所以..., 由於...所以/因此/因而..., 由於...以致 ..., 既然...就..., 之所以...是因為...(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단독 사용	如果, 要, 要是, 要不是, 要不然的话, 否则
	조건관계 (條 件 關 係)	함께 사용	如果, 要是...就..., 假如/假使/倘若...那么..., 要不是 ...那么/就/也..., 即使...也..., 就算/哪怕...也...
		단독 사용	無論, 才, 要不然, 便, 就, 如果不, 不论, 不管
	목적관계 (目 的 關 係)	함께 사용	無論...也..., 不管...都...(...하더라도...), 只有...才..., 只要...就..., 除非...才..., 否則...(...해야만...이다)
		단독 사용	为了, 以便, 以求, 以防, 以免, 免得, 省得(...하지 않도록, ...않기 위하여)
	양보관계 (讓 步 關 係)	함께 사용	为了...就/便..., 为了...就得/就要(...기 위해)
		단독 사용	即使, 即便(...하더라도)
		함께 사용	即使...也..., 即便...还..., 就算...也...(설령...하더라도 ...)

접속사가 나타내는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연합관계(聯合關係)²¹⁾와 주종관계(偏正關係)²²⁾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중국어 접

22) 연합관계에 의한 복문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주종의 구분
이 없다. 연합관계는 병렬관계(並列關係), 점층관계(遞進關係), 선택관계(選擇關係),
승접관계(承接關係)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3) 주종관계에 의한 복문은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되어 있는 복문 문장이다. 일반적인 순서

속사에서 어떤 접속사는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접속사는 앞뒤의 두 개가 아울러 사용되기도 하며, 혹은 관련부사와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즉 연결하는 성분에 따라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접속사 한 개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 중 하나는 주로 단어와 단어 결합을 연결하는 접속사 ‘和, 跟, 同(～와/과)’, ‘以及(그리고)’, ‘而(～고)’, ‘或(혹은)’ 등이다. 다른 하나는 주로 구절이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不但(～뿐만 아니라)’, ‘可是(그러나)’, ‘而且(그리고)’, ‘只是(그런데)’, ‘所以(그래서)’, ‘既然(～된바에야)’, ‘只要(하기만 한다면)’ 등이 있다.

둘째, 접속사 두 개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雖然…但是…(비록～하지만)’, ‘因為…所以…(～ 때문에)’, ‘由於…因此…(～으로 하여)’와 같은 예들이 있다.

셋째는, 접속사와 부사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예컨대 ‘無論…都…(～막론하고)’, ‘如果…就…(～라면)’, ‘即使…也(…설사～일지라도)’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여기서 ‘都(모두), 就(바로), 也(～도…)’ 등이 모두 부사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관계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 접속부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접속사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접속사 10개를 선정하여 나열관계, 인과관계, 대립관계, 조건관계 접속부사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2-1> 선정된 한국어 접속부사 대응하는 중국어 접속부사의 분류

접 속 관 계	나열관계	而且(그리고, 또한), 以及(그리고, 및)
	인과관계	所以(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因而(그러므로), 因此(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따라서)
	대립관계	但是(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可是(하지만,

는 종속절은 주절을 수식하며 주종의 구분이 있다. 때로 주절이 앞에 오고 종속절이 뒤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종속절이 이때는 보충 설명의 의미를 가진다. 주종관계(偏正關係)는 수식관계(修飾關係)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인과관계(因果關係), 전환관계(轉折關係), 조건관계(條件關係), 가정관계(假設關係), 목적관계(目的關係)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不过(그러나, 그렇지만)
	조건관계	那麼, 如果就, 這才(그러면, 그래야)

구체적으로 병렬관계 접속부사 ‘그리고’에 대응하는 중국어 접속사는 ‘而且’, ‘以及’가 있다. ‘또한’에 대응하는 중국어 접속사는 ‘而且’이고, ‘및’에 대응하는 중국어 접속사는 ‘以及’이다. 인과관계 접속부사 ‘그러므로’에는 ‘所以, 因此, 因而’와 모두 대응되고 ‘그래서’, ‘따라서’는 ‘所以, 因此’와 대응된다. 대립관계 접속부사 ‘그러나, 그렇지만’에는 ‘但是, 可是, 不过’와 모두 대응할 수 있고 ‘그런데, 하지만’에는 ‘但是, 可是’와 대응한다. 그리고 조건관계 접속부사는 ‘그러면, 그래야’에 대응하는 중국어 접속사는 ‘那麼, 如果就, 這才’가 있다.

2.2. 텍스트언어학에서 본 접속부사의 성격

앞서 접속부사의 개념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접속부사는 텍스트와 텍스트 혹은 텍스트 내부에서 텍스트를 형성하기 위한 구성체의 역할을 한다. 문장과 문단 등이 텍스트의 기본 단위가 되고, 그 단위들을 결속하는 것이 접속부사의 역할이다. 연결어미와 지시어 등도 그 연결체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접속부사는 단독의 품사로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연결체들과 구분된다. 그리고 단순히 문장이나 문단을 연결하는 역할 외에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맥락 구성체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접속부사의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단적으로 말하면, 접속부사는 텍스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하는 데 일조하는 ‘텍스트성²³⁾’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접속부사가 문장 이상의 단위가

24) 김광해(1999)는 보그란데와 드레슬러의 텍스트성 인정 기준이 대표적이다. 그 기준은 7가지로, 결속구조(cohesion), 응집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수용성

글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에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 그 자체로 의미를 표현하고, 동시에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접속부사의 텍스트성을 대변한다. 문장은 접속부사가 없어도 그대로 나열될 수 있고, 문단 역시 접속부사 없이 나열되어 텍스트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접속부사가 사용됨으로써 논의의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그 방향이 일관성 있게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부연, 첨가, 전환 등의 방식으로 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단순히 나열되지만 할 내용을 응집성과 통일성을 갖춘 텍스트로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글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접속부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남경(2008)에서는 접속부사가 문장과 문단을 연결하며 텍스트를 형성하고, 그 자체만으로 텍스트의 문맥을 이끌어 가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속부사가 텍스트적인 성격, 다시 말해 텍스트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속부사의 텍스트성에 대한 연구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학문 문법에서 현행 학교문법까지 ‘그러나, 그러므로’ 등을 접속사로 분리 독립하지 않고 부사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접속부사가 부사적 속성을 띠고 후행 문장을 수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접속부사는 수식의 성질은 가지나 (문장) 부사의 특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않다. 문장 부사는 후행 문장과만 관련이 있지만 접속부사는 선후행 문장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후행 문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결합을 넘어서 의미적 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접속부사는 문장의 연결을 통해 두 문장 간의 의미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한다. 이와 같이 문장을 연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장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문장의 연결을 통한 의미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접속부사가 텍스트성을

(acceptabi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그리고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등이다. 그런데 텍스트성의 기준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결속구조’와 ‘응집성’이 가장 본질적인 요건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접속부사의 주된 역할이 텍스트의 결속과 응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신지연(2004)은 접속부사는 ‘선행 문장이 없으면 그 의미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접속부사를 ‘가장 텍스트적인 품사’라고 하였다. 또한 접속부사는 ‘텍스트 안에서 종합하고 유추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인지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상위 인지 표지’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접속부사를 이해함과 동시에 텍스트를 이해하는 작용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텍스트 이해의 과정에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단계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접속부사를 초인지적으로 이해하여 문맥의 방향을 포착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독해가 활성화되어 결국은 독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접속부사가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이해하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접속부사의 텍스트 구성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임유중 외(2001)에서도 ‘그-계열의 대용 접속부사들이 후행하는 문장과 의 결합이 매우 자유로움을 보이면서 특별한 제약이나 어울림 관계를 가지지 않는 접속부사가 후행절을 수식하는 성분이라는 종전의 설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접속부사의 수식 범위는 후행 문장이 아니라 후행 문맥이라고 해야 정확한 설명이 된다’고 하며 접속부사의 수식 범위를 언급한다. 접속부사가 단순한 문장 연결이 아니라 연결과 동시에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수식할 수 있는 영역도 후행 문맥인 점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접속부사가 텍스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하여 논의한 것으로, 이 역시 후행 문맥에 영향을 미치는 접속부사의 텍스트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접속부사가 연결의 대상을 문장에 한정하지 않고 텍스트라는 넓은 의미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수식의 범위도 문장이 아닌 문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접속부사를 단순히 어휘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도 달하게 된다. 즉, 접속부사가 텍스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읽기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접속부사를 품사로서 교육하는 것

을 기본으로, 텍스트를 통해 읽기를 병행하여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따라서 ‘텍스트성’이라는 말로 ‘접속부사가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이유’가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3. 접속부사와 읽기 능력 신장

3.1. 읽기에서 접속부사의 필요성

위에서는 텍스트언어학의 관점에서 접속부사의 기능과 속성에 대한 고찰하였다. 다음은 읽기에서 접속부사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읽기에서 접속부사의 필요성은 텍스트구조의 복잡성과 학습자의 미숙성에서 발생한다. 텍스트구조가 복잡하면 독자가 추론해야 할 관계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 용량이 커짐으로써 읽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접속부사는 추론해야 할 관계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관계의 파악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내용 구조의 체계가 접속부사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인지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읽기 이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내용 명제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내용 명제들 간의 관계가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한 것 등 내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추론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접속부사가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 수준이 낮을 때의 접속부사는 매우 중요하다. 읽기 능력 수준이 낮은 것은 배경지식이 부족하거나, 어휘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런 지식들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추리력의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인데, 접속부사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읽기 능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읽기에서 접속부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다.

(1) 통일성

읽기, 쓰기 영역에서 통일성과 관련하여, 문장과 문장, 문장과 문단, 문단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연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여, 주제를 벗어난 내용을 골라낸다. 평가하는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내용의 통일성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여기서 접속 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접속부사로 인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중심 내용과 하위 내용을 분별하므로, 문장 간의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2) 내용 관계 표지

접속부사를 내용 연결의 표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담화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연결의 표지를 사용하고, 연결하는 말이 주제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에서는 연결하는 표지에 대해 학습하고, 표지를 통해 앞, 뒤 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을 학습한다.

내용의 응집성과 통일성 파악은 접속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문단 이상의 연결 시 접속부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양한 표지들이 존재하고, 표지에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존재한다. 접속부사의 경우는 한국어 초급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다소 쉬운 표지에 속한다. 읽기에서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표지를 활용한다. 특히 읽기에서는 내용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하고, 다음에 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된다. 접속부사가 표지로 사용되면, 이를 활용하여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응집성

응집성과 관련하여, 텍스트의 부분과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어가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신지연(2004)이 “논증텍스트에서 ‘그러나’가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한정하는 방법으로 텍스트를 발전시키고, 전개하는 등 텍스트의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접속부사는 논리성을 유지, 확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용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로 ‘지시어, 접속어, 연결어, 명사구의 반복’ 등을 들었는데, 문단 이상의 연결 시 접속부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접속부사의 유형 분류로 ‘병렬, 인과, 대립, 조건’ 등이 있는데, 이 점에서 접속부사가 텍스트의 형식적 연결이 아닌 내용의 응집성을 높여주는 표지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4) 글의 짜임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를 파악해서 글 전체의 짜임을 살펴본다. 문단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따라 맥락의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결 관계는 전체 텍스트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된다. 문장 간의 관계가 그러하듯, 지시어나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면 어떻게 글이 짜여져 있는가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는데, 이때 접속관계의 표지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5) 일관성

일관성이란, 글의 주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방법이나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관점에서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등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관성과 접속부사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글의 일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부분과 부분을 연결할 때 여러 장치들을 활용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접속부사이다.

잘못 연결된 문장을 일관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는 활동을 하면, 내용 조직 능력과 문장 연결 능력이 함께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6) 중심 내용 파악하기

글 속에서 더 중요한 문장과 덜 중요한 문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으로 구분하며,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중요한 문장을 중심으로 전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일관성, 응집성, 통일성’ 등을 통해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주제를 찾는 데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안다. 대개 중심 내용이 접속부사 전후로 등장하므로 접속부사를 통해 문장의 중요도를 판정하고, 이를 기초로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3.2. 접속부사가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3.2.1. 읽기 속도에 미치는 영향

할리데이 & 하산(Haliday & Hasan, 1976)은 결속장치(cohesive devices)의 하위 유형을 지시(reference), 대치(substitution), 생략(ellipsis), 어휘결속(lexical cohesion), 접속(conjunction)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접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표지는 한국어에서 의미적, 형태적으로 가장 발달한 결속장치 중에 하나로 보고되었다(노석기, 1989). 접속표지는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논리적 연결 관계와 문장 간의 의미관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말 접속표지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결어미, 접속조사,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의 의

미를 담은 표현이 있다(황미향, 1998).

접속부사는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속표지 중 하나로써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그 의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응집성 있는 덩이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문장과 문장 간의 의미관계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적절한 접속부사가 사용될 때 그 덩이글은 더욱 강력한 응집성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인과적 접속부사가 사용될 때 다른 유형의 접속부사에 비해 이해와 회상의 촉진, 후행 문장의 읽기 시간 단축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Caron, Micko, Thuring, 1988; Millis & Just, 1994; Murray, 1997; 전문기, 이정모, 이재호, 2001).

전문기(2001), 이재호 (2001)는 읽기 과제를 사용하여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접속부사의 처리 특성을 연구하였다. 실험 1에서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덩이글에 인과적 접속부사 ‘왜냐하면’과 부가적 접속부사 ‘그리고’가 삽입된 조건과 삽입되지 않은 조건으로 나누고, 각 조건에 따라 두 번째 문장의 읽기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인과적 접속부사 ‘왜냐하면’이 있는 조건에서 없는 조건보다 더 빠른 후행문장의 읽기시간을 보였다. 이는 두 문장 사이에 삽입된 인과적 접속부사가 의미적 관계에 대한 연결단서를 제공함으로써 후행문장을 읽는 데 촉진 효과를 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부가적 접속부사에서는 접속부사 유무에 따른 읽기속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2에서는 인과적 접속부사가 포함된 덩이글의 후행문장 마지막 어절의 읽기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과적 접속부사가 삽입된 조건에서 마지막 어절의 읽기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과적 접속부사가 등장할 경우 의미통합과정이 후행문장의 끝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접속부사의 존재는 독자로 하여금 문장 간의 의미관계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작업기억의 소비를 줄여주게 되고, 이것이 읽기 시간의 단축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접속부사를 통해 읽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읽기 속도보다 정확도를 읽기 이해의 척도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2.2. 읽기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케론, 미코(Caron, Micko, 1988)는 접속부사의 기능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장들의 이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접속부사의 유형마다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미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덩이글을 만들고 인과 접속부사 ‘Because’를 삽입한 조건, 나열 접속부사 ‘And’를 삽입한 조건, 접속부사가 없는 조건으로 나누어 문장의 회상량(Recall)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Because’를 삽입한 조건에서 ‘And’를 삽입한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회상량을 보였다. 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수행 수준을 보였다는 것은 접속부사가 읽기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접속부사의 유형마다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케론, 미코(Caron, Micko, 1988)는 접속부사가 문장과 문장 간에 삽입되었을 때 읽기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접속부사 통합 모형(Connective integration model)’²⁴⁾을 통해 설명하였다. 접속부사 통합 모형에 따르면, 독자가 덩이글에서 접속부사를 발견하게 되면 선행문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독자는 선행문장과 후행문장의 표상을 순차적으로 형성하게 되고 후행문장의 읽기를 마침과 동시에 두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때 접속부사는 두 문장을 해석하고 추론하는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독자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문장들을 표상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작업기억을 소비하게 된다. 반면에 접속부사가 없는 덩이글을 통합할 때는 문장 간의 의미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작업시간의 용량을 소비하게 된다. 즉, 접속부사의 존재는 독자로 하여금 문장 간의 의미관계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작업기억의 소비를 줄여주게 되고, 이것이 읽기 정확도를 높이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5) 상향식과 하향식 통합한 접속부사 통합모형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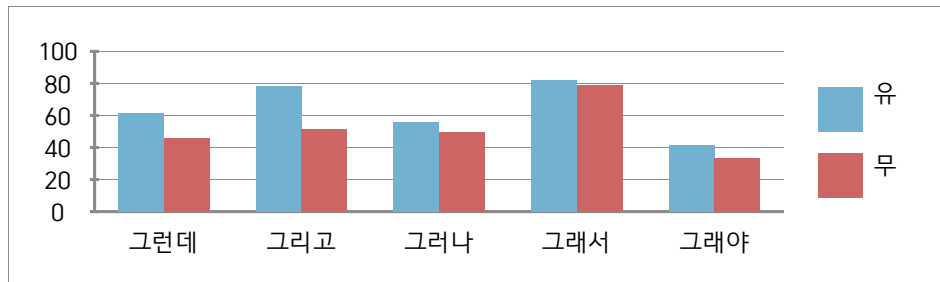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험 조사²⁵⁾도 읽기 정확도를 평가의 척도로 하였다.

<표2-2> 접속부사가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문항

접속부사가 있는 읽기 문항(10개)	접속부사가 없는 문항(10개)
다음 글을 읽고, 내용과 맞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2점/개)	다음 글을 읽고, 내용과 맞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2점/개)
(1)저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u>그런데</u>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택시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①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② 저는 회사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③ 저는 보통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갑니다. ④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1)저는 보통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택시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①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② 저는 회사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③ 저는 보통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갑니다. ④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2) 오늘 수미 씨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는 영화관까지 함께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u>그리고</u> 영화를 보고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① 저는 수미 씨와 영화를 봤습니다. ② 저는 영화관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③ 저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2) 오늘 수미 씨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는 영화관까지 함께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① 저는 수미 씨와 영화를 봤습니다. ② 저는 영화관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③ 저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26) 접속부사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접속부사 있을 때와 접속부사 없을 때의 독해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피험자가 동일하고, 그 피험자가 읽어야 할 텍스트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두 번째 읽을 때는 앞서 읽은 내용의 기억이 작용하여 정확한 독해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표지 효과가 검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읽기 능력이 비슷한 두 피험자를 선정하여 피험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접속부사 있는 텍스트의 읽기 이해 결과와 접속부사 없는 텍스트의 읽기 이해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접속부사 효과를 검사한다.

④ 저는 영화관에서 수미 씨를 만났습 니다.	④ 저는 영화관에서 수미 씨를 만났습 니다.
-----------------------------	-----------------------------



<그림1-3> 접속부사 유무에 관한 문항 정답률

<그림1-3>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실험 조사에서 접속부사가 있는 문항에 더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유형과 난이도의 문항 중에서 접속부사가 있는 읽기 텍스트의 이해가 더 정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교재분석 및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의 선정

한국어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우선 현행 3개 교육기관에서 발행된 교재를 분석하여 접속부사의 교육현황을 파악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학습자가 접속부사의 사용과 이해 오류를 조사한 후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를 선정할 것이다.

4.1. 한국어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 선정

본고에서는 서상규(2000)에서 제시된 교육용 기초 어휘를 바탕으로 교재 분석의 결과와 조사한 접속부사 사용빈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중국인을 위한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를 선정하겠다.

선정 기준은 위에서 기술한 것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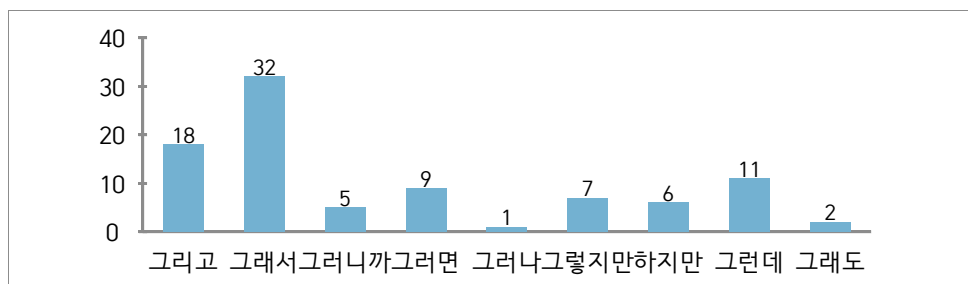
첫째: 21세기 세종 말뭉치 문어의 고빈도 접속부사 참조

둘째: 서상규(2000)에서 제시한 교육용 어휘와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접속부사를 위주

셋째: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문항에서 고빈도 접속부사 참조.

넷째: 한국어 접속부사와 중국어連詞의 상관성을 고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앞에서 이미 밝혔다. 세 번째에서 제시할 개편 후의 한국어능력시험Ⅱ에서 읽기 부분의 접속부사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2-1> 한국어능력시험Ⅱ 읽기 부분 접속부사 출현 빈도수

한국어능력시험 30회, 31회, 35회, 41회, 47회에 나타난 접속부사의 종류는 모두 9종이고 총 86번의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과관계 접속부사인 ‘그래서’가 32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 다음으로 나열관계 접속부사 ‘그리고’가 18번 출현하고 대립관계 접속부사인 ‘그런데’ 11번, ‘그렇지만’이 7번으로 그 뒤를 잇는다.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6:

35회: 한국의 옛날 그림에는 꽃과 나비가 함께 있는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 속에서 꽃은 여자를 나비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꽃과 나비가 함께 있는 것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옛날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런 그림을 많이 주었습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그러면 ②그런데 ③그래서 ④하지만

41회: 저는 안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안경을 씁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부드러운 느낌의 안경을 씁니다. 운동을 할 때는 가벼운 안경을 씁니다. (㉠) 멋있게 보이고 싶을 때는 유행하는 안경을 씁니다. 이렇게 안경을 바꿔서 쓰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①그러면 ②그래서 ③그리고 ④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접속부사의 종류와 의미를 알고 있으면 정답을 고르는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기에 접속부사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41회 문제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고 알맞은 접속부사를 넣는 문제이다. 보기에 나온 접속부사는 조건관계 접속부사 ‘그러면’, 대립관계 접속부사 ‘그런데·하지만’, 인과관계 접속부사 ‘그래서’ 등이 출현한다. ㉠들어갈 알맞은 접속부사는 인과관계 접속부사인 ‘③그래서’ 만 정답이 된다. 각각의 접속부사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이다.

35회: (가) 우리 고향에는 딸기가 많이 납니다.

(나) 그래서 딸기가 많은 달에 축제를 합니다.

(다) 그리고 맛있는 딸기를 시장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라) 이 축제에서는 딸기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①가-나-다-라

②가-나-라-다

③가-다-나-라

④가-라-나-다

‘순서에 맞게 나열하기’ 유형은 개편된 35회 한국어능력시험 I 의 58, 59번의 2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기존 체제의 초급 읽기에서 출제되지 않았다. 57번 문항에는 대립관계 접속부사 ‘하지만’, ‘그런데’가 등장하고 58번 문항에는 인과관계 접속부사 ‘그래서’와 나열관계 접속부사 ‘그리고’가 출현하여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순서에 맞게

나열하기' 유형은 문장들을 순서에 맞게 연결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접속부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문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접속부사는 읽기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를 선정할 때도 한국어능력시험(30회, 31회, 35회, 41회, 47회) 읽기 부분의 접속부사 출현빈도를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

접속관계	나열관계	그리고, 또한
	인과관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대립관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그래도
	조건관계	그러면, 그래야

4.2. 한국어 접속부사의 사용빈도

한국어 접속부사의 사용빈도를 조사할 때는 구어(口語)에서의 접속부사 사용빈도와 문어(文語)에서의 접속부사 사용빈도로 나눈다. 본 연구에서는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어에서 접속부사의 사용빈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용빈도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말뭉치의 규모와 권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21세기 세종말뭉치'를 분석할 말뭉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분류를 따르되, 한국어 읽기 텍스트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접속부사 18개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의미관계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4가지 의미 관계로 분류된 접속부사가 중국어의 접속사와 대조하여 읽기 텍스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한국어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세종

말뭉치에서 빈도순으로 추출한 결과는 아래의 <표2-3>과 같다. 비교 기준은 1,000어절 당 빈도이다.

<표2-3> 세종 말뭉치 접속부사 빈도순위²⁶⁾

빈 도 순 위	세종 말뭉치		
	항목	빈도	1,000어절 당 빈도
1	그러나	25111	2.495
2	그리고	18244	1.812
3	그런데	7243	0.720
4	그래서	6785	0.674
5	따라서	5507	0.547
6	하지만	4941	0.491
7	또	3834	0.381
8	또는	2069	0.206
9	그러므로	1855	0.184
10	그렇다면	1716	0.170
11	및	1705	0.169
12	또한	1701	0.169
13	즉	1626	0.162
14	그러면	1563	0.155
15	그러니까	1419	0.141
16	하물며	1401	0.139
17	그렇지만	1133	0.113
18	혹은	876	0.087
19	그런데도	777	0.077
20	그래도	672	0.067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어절 당 접속부사 빈도 순위는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따라서, 하지만, 또, 또는, 그러므로, 그렇다면, 및, 또한, 즉,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만, 혹은, 그런데도, 그래도’의 빈도 순위로 나타난다.

26) 송현주, 비신연(2014) 부분 재인용.

4.3.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접속부사 실태 분석

언어 교육에서 기본적인 3요소는 교사(teacher)와 학습자(learner)와 교재(materials)이다. 이 중에 교재란, 교육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행위’로 볼 때 바로 이 ‘무엇’을 담고 있는 총체물이다(민현식, 2000).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교재를 선정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현행 한국어 학습 교재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가치 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접속부사가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겠다. 본 연구는 접속부사와 읽기의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바, 접속부사의 통합교육의 기반이 될 텍스트와 관련된 교재를 통해 그 반영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살펴본 교재는 북경대 『표준한국어2, 3』, 서울대 『한국어2, 3』, 서강대 『서강한국어2, 3』 총 6권이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4> 표준한국어(2~3)

교재	본문	단어장	문법	연습 활동	읽기 연습
2	그러면(13)그런데(9)그리고(7)그래서(6)그럼(6)또(2)그렇지만(1)그러니까(1)또한(1)그래도(1)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문장 만들기 연습)	그래서(14)그리고(9)그렇지만(7)그런데(5)그러나(2)그러니까(1)또(1)
3	[본문] 그런데(24)그러나(13)그리고(12)그래서(8)그렇지만(6)그래도(6)그러면(2)그럼(2)그러니까(2)오히려(2)또(2)혹은(1) [읽기 연습] 그런데(5)그러나(4)그리고(2)그래서(2)또한(2)또는(1)및(1)그러면(1)또(1)				
총	그리고(30)그런데(43)그래서(30)그렇지만(14)그러나(19)그러면(16)그러니까(4)또(2)또한(3)또는(2)오히려(2)혹은(1) 및(1)				

<표2-4>은 『표준한국어』에서 나타난 접속부사와 그들의 사용빈도수를 조사한 것이다. 교재를 보면 접속부사를 많이 다루지 않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총 7 개 접속부사의 문법 해석을 제시했다. 제시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그리고’ 連接兩個句子的接續副詞，表示順接關係。相當於漢語的“還…”。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순접 접속부사다. 중국어의 “還…” 과 대응한다.
- (2) ‘그렇지만’ 為接續副詞，連接兩個句子，表示轉折關係。相當於漢語的“但是…”，“…，而…”。‘그렇지만’은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전환관계를 표현하는 접속부사다. 중국어의 “但是…”，“…，而…” 와 대응한다.
- (3) ‘그러면’ 相當於漢語的“那麼”，表示上文是下文的前提或條件。在口語中多用“그럼”這一形式。중국어의 “那麼”와 대응한다. 선행문이 후행문의 전제나 조건이 된다. 구어에서 “그럼”으로 많이 쓰인다.
- (4) ‘그래서’ 表示上下文的因果關係。相當於漢語的“…因而…”，“…所以…”。선행문과 후행문의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중국어의 “… 因而…”，“…所以…”와 대응한다.
- (5) ‘그런데’ “그런데”是連接兩個句子的接續副詞，表示轉折關係或話題的轉變。“그런데”는 두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부사로 전환관계를 나타내거나 화제의 전환을 나타낸다.
- (6) ‘그러니까’ 接續副詞，置於兩個句子之間，表示前一句是後一句的理由或依據。‘그러니까’는 접속부사다. 전후문장의 중간에 위치하여 선행문은 후행문의 이유나 근거가 된다.

이상으로 <표준한국어> 교재에서 접속부사에 관한 문법기술을 예문과 같이 제시했다. 제시한 것을 보면 각 접속부사의 기본 의미만 제시한 것이고 사용 제약 등을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문법 해석이 제시된 접속부사들

에 대해 「문장 만들기」의 연습문제만 제시했다. <표준한국어2>와 <표준한국어3>은 접속부사를 많이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이 교재에서는 다른 교재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땀’ 등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접속부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문법 해석이 없이 단어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표2-5> 서강한국어(2, 3)

교재	말하기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연습 활동
2	그리고(2)그럼(2)	그래서(16)그리고(14)그런데(10)하지만(2)그러니까(1)	그래서(17)그리고(3)그런데(1)그러니까(1)	
3	그럼(7)그런데(1)그러면(1)그래도(1)그러니까(1)	그래서(24)그런데(12)그리고(12)하지만(11)그러니까(5)그럼(3)또(2)	그리고(10)그런데(12)하지만(11)그러니까(5)그럼(3)또(2)	
총	그래서(69) 그리고(58)그런데(36)그럼(13)하지만(24)그러니까(13)또(2)그러면(1)그래도(1)			

<표2-5>는 『서강한국어』 교재에서 나온 모든 접속부사 목록과 빈도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교재에서는 ‘그럼’,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4 개 접속부사만 다루었다. 이 4 개 접속부사들은 모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나타났고 사용빈도도 아주 낮다. 그리고 문법 설명 부분에 접속부사에 관한 문법기술은 하나도 없고 단지 연습 문장에서 접속부사에 관한 빈칸 채우기 문제만이 제시되었다. 이 문제에서 본문에 다루지 않은 ‘그러나’와 ‘왜냐하면’도 연습 대상으로 나타났다. 교재2에서는 교재1에서 나타난 4개 접속부사에다가 ‘그러니까’와 ‘하지만’ 2개 접속부사를 더 다루었다. ‘그래서’의 사용빈도가 제일 높고 ‘그럼’은 주로 「말하기」 영역에서 나왔으며 나머지 접속부사들은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영역에서 주로 다루었다. 접속부사에 대한 문법 설명이나 연습문제도 없다. 서강한국어 4개 교재에서는 접속부사를 제일 많

이 다루었다. ‘그래도’, ‘그러면’, ‘그러나’ 3개의 접속부사를 더 많이 다루었고 교재 와 같이 ‘그래서’의 사용빈도가 제일 높고 ‘그럼’은 주로 「말하기」영역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나머지 접속부사들은 「읽고 말하기」「듣고 말하기」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교재에서도 접속부사에 대한 구체적인 문법 설명이 없고 주로 본문과 단어장에서 단어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재 3을 보면 교재 2보다 새롭게 다루는 접속부사가 없고 교재에서 다루는 접속부사들의 사용빈도도 낮다. 교재3를 배울 때까지 학생들이 앞서 2개 교재의 공부를 통해서 다루던 접속부사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재에서 접속부사에 대한 문법 설명이 없지만 ‘그런데’, ‘그래서’ 2개의 접속부사를 예문을 많이 나열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켰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알 수 있듯이 『서강한국어』교재는 듣기, 읽기, 말하기 그리고 연습 활동 부분을 나누고 있고 다루는 접속부사가 아주 적다. 표를 보면 듣고 말하기 부분과 읽고 말하기 부분은 말하기 부분보다 접속부사가 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의 사용빈도가 제일 높고 ‘그럼’은 주로 「말하기」영역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교재 3에서 교재 2보다 접속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거의 다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권 교재 중에 접속부사에 대한 문법 해석이 하나도 없었다. 단지 교재에서는 몇 개의 접속부사를 「빈칸 채우기」의 연습 활동을 통해서 인식시켰고 교재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두 개 접속부사에 대한 예문을 많이 나열했다. 이것은 학생들이 접속부사의 의미와 사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읽기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더 추가해야 한다.

<표3-1> 서울대 <한국어2, 3>

교재	본문	어휘와 표현	연습
2	그리고(15), 그래서(17), 그런데(14), 그렇지만(12), 그러면(10), 그럼(3), 그러니까(1)	그래서(11), 그리고(8), 그러나(6), 그런데(4), 그렇지만(1), 그러면(4), 그럼(1), 또한(3)	그리고(12), 그래서(9), 그런데(11), 그렇지만(8), 그러나(7), 그러면(5)
3	그래서(37), 그런데(19), 그리고(13), 그러면(8), 그렇지만(8), 그래도(3), 그러니까(2), 그러나(2), 또는(3), 그럼(1)	그래서(11), 또한(5), 그런데(7), 그러면(3), 그러므로(9), 그리고(12), 그러니까(5), 또는(4), 그렇지만(4)	그래서(22), 그리고(17), 또한(6), 그런데(12), 그러나(13), 그렇지만(11), 그러면(3), 그러니까(2), 그러므로(2), 그리하여(1)따라서(4), 즉(1)
총	그리고(77), 그런데(67), 그래서(107), 그러면(33), 그렇지만(44), 그러나(28), 그러니까(10), 그럼(5), 그래도(3), 또한(14), 또는(7), 그러므로(11), 그리하여(1), 따라서(4), 즉(1)		

<표3-1>는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접속부사를 조사하여 목록과 사용 영역과 사용빈도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 『한국어』 교재는 접속부사를 많이 다루는 교재이다. 우선 교재를 보면 주로「본문」, 「새 단어」, 「어휘와 표현」, 그리고「연습」 4부분으로 나누고 비교적 접속부사를 많이 다루었다. 다루는 방법은 우선「본문」에서 나타난 접속부사들을 「새 단어」 부분에서 똑같이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어휘와 표현」과 「연습」 부분에서 보충으로 간혹 접속부사를 다루는 현상이 있다 이 교재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다룬 접속부사들의 의미와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

다. 단지 본문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나타나거나 단어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서강한국어』에서는 ‘그럼’을 많이 쓰는 반면에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그래서’를 제일 먼저 다루고 ‘그리고’의 사용빈도가 제일 높다. 다루는 접속부사 중에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 그러니까’의 사용빈도가 너무 높다. 나머지 접속부사의 사용빈도는 비교적 많이 낮다. 서울대 한국어 교재는 접속부사를 다루는 방법이 거의 똑같고 비슷한 단계에서 한번 반복하여 마지막으로 단어장에서 단어 형태로 나열한다. 접속부사에 대해 특별한 문법 기술이 하나도 없고 연습 문제도 없다.

4.4. 선정된 접속부사와 읽기 교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읽기 교육에서 접속부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접속부사 자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맥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위해, <표3-2>의 유형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문맥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접속부사의 하위분류로는 나열, 대립, 인과, 조건 관계의 접속부사가 있다. 이들 부사를 문장부사의 하위로 분류하는 것은 이들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선행문과 후행문의 연결에 있어서 의미론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접속부사는 통사적인 위치에 있어서 후행문의 문두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후행문의 문두에 위치하여 후행문 전체에 의미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의미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접속부사의 4가지 분류 중에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교육 방안의 제시에 이론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4.4.1. 나열관계 접속부사 ‘그리고’

한국어 나열관계 접속부사 ‘그리고’ 는

1. 앞뒤의 문장이 내용과 관계없이 대등하게 나열한다.

이때 앞뒤의 두 문장은 서로 대조되는 문장이 올 수도 있다.

2. 앞뒤의 문장이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남을 나타낸다.

‘그리고’ 의 의미특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3-2>와 같다.

<표3-2> 접속부사 ‘그리고’ 의 의미특징

국립국어원 (1999)	1. 또한, 이에 더하여. 참고: 앞에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을 단순히 나열할 때 쓴다. 2.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후에. 3. 끝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참고: 세 가지 이상을 나열할 때 마지막 말 앞에 쓴다.
백봉자 (1999)	문장 연결부사로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주로 뒤 문자의 첫머리에 놓여서 앞 문장과 연결한다. 단어나 구를 연결하기도 하는데, 이때 연결되는 문장 성분은 동일해야 한다. 연결어미 ‘고’ 의 속성처럼 사물의 공간적인 나열이나 시간적인 서열을 나타낸다. 대체적으로 앞 문자의 서술어와 뒤 문장의 서술어의 범주는 동일하다. 1. 구어에서 ‘그리구’ 로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표준어가 아니다. 2. ‘그리고’ 는 의미 없는 군말(간투사)로 쓰는 경우가 있다. 3. 단어나 명사구를 연결시켜 주는 경우에는 ‘-와/과’ 를 붙여서 ‘~와/과/그리고~’ 의 형태로도 쓴다.
우인혜 외(2000)	후행문을 대등하게 연결하거나 순서를 나타낸다.
임홍빈 외(1997)	선후의 내용과 관계없이 대등한관계로 이어주거나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 선후의 내용이 차례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쓰임 선후의 내용과 관계없이 대등한 관계로 이어주거나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
허용외	앞뒤 문장의 동사가 각각의 목적어를 취할 때는 ‘-고’ 를 사용하고

(2005)	동일한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취할 때는 ‘-아서/어서’ 를 사용한다.
--------	--

4.4.2. 인과관계 접속부사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인과관계 접속부사에 대하여 한 마디로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압축할 수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기심(1978 : 11)에서는 어떤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전제하는 것을 ‘원인’이라 하였고 개인의 추리 작용에 의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서정수(1996 : 1217)에서는 원인이나 이유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논리적으로 원인과 이유가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 인과관계 접속부사로는 ‘그래서’, ‘그러니까’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접속사로는 ‘所以’가 있다.

(1) 인과관계 접속부사 ‘그래서’

인과관계 접속부사 ‘그래서’는

1. 앞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며, 이때 뒤 문장에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는 쓰이지 않는다.
 2. 앞 뒤 문장을 동일한 화자가 말하는 경우는 연결어미 ‘-어서’로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때의 ‘그래서’는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다.
 3. 대화에서 앞사람의 말을 근거로 해서 뒤 사람이 하는 말이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낸다.
 4. 대화에서 단순히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는 표지로 쓰이기도 한다.
- ‘그래서’의 의미특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3-3>와 같다.

<표3-3> 접속부사 ‘그래서’ 의 의미특징

국립 국어원 (1999)	1.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의 뜻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쓸 수 없다. 2.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의 뜻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쓸 수 있다. 단 앞뒤 문자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3. 다음 이야기를 더 계속해 달라고 하는 말.
김선영 (2003)	인과 관계로 연결하는 기능만 보인다.
백봉자	원인·이유, 근거,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낸다. 앞 뒤 문장을 동일한 화자가 말하는 경우는 연결어미 ‘-어서’로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대화에서 앞사람의 말을 근거로 해서 뒤 사람이 하는 말이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낸다.
연세대 사전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서 말하는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의 뜻으로 명령형, 청유형이 올 수 없다. *앞 뒤 두 행위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문제 되어 앞문장의 행위가 뒤 문장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임을 나타내어) 수단이나 방법의 뜻으로 ‘그렇게 해서’와 같음. 이때 선·후행문의 주어는 일치해야 함.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는 표지로 쓰여 ‘그렇게 하고서’, ‘그다음에는’ 등의 뜻을 나타낸다.
우인혜 외(2000)	선행문의 후행문에 이유·원인이 된다.
임흥빈 외(1997)	선행문이 후행문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냄 선후 내용이 차례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쓰임.
장기열 (2003)	선행문에 명령문이 올 수 없고 후행문은 명령이나 제안이 올 수 없다. 선행문이 계기적으로 접속된 문장에서는 ‘그래서’ 다음에 명령문이나 제안문이 올 수 있다. 이때 선행문은 전제된 행위나 수단으로 하여 후행문과 ‘계기’의 접속을 한다.

(2) 인과관계 접속부사 ‘그러니까’

인과관계 접속부사 ‘그러니까’ 는

1. 앞문장이 원인 · 이유가 되어 뒤 문장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2. ‘그래서’ 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이유를 나타낸다면 ‘그러니까’ 는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이유임을 나타낸다.
3. 주로 현재나 미래적인, 즉 아직 완료되지 않은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연결어미 ‘-으니까’ 에는 없는 ‘다시 말하면, 자세히 말하면’ 과 같이 부연 설명의 의미가 있다.
5. 비격식적인 말이나 글에서 주로 사용한다.
6. 말을 시작할 때 특별한 의미 없이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의 의미특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3-4>와 같다.

<표3-4> 접속부사 ‘그러니까’ 의 의미특징

국립 국어원 (1999)	<p>1. 그런 까닭에. 그러한 이유로. 참고: 앞에서 말한 내용을 생각하며 주관적으로 짐작하여 뒤의 내용을 말하는 경우에 쓴다.</p> <p>2.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자면.</p> <p>3. 말을 시작하자면 참고: 주로 그러니까 [말입니다/말이야]로 쓴다. 특별한 뜻을 없이 말을 시작할 때 쓴다.</p>
남기심 (1994)	<p>‘그러니까’ 는 비 격식적인 글이나 말에서 쓰이며 ‘동격’ 및 ‘부연 설명’ 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p>
백봉자 (1999)	<p>‘그러니까’ 의 준말로써, 뒤 문장의 첫머리에 놓여 앞 문장과 연결한다. 앞 문장이 뒤 문장의 필연적인 원인이 되거나 앞 문장의 동작이 일어나는 그 때, 뒤 문장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대화에서 사용하는 경우.</p> <p>1. ‘그러니까’ 는 간접 인용문에서 그 때 또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말했든지 행동했든지를 나타낸다.</p> <p>2. 화자와 청자, 사물의 거리에 따라 ‘이러니까, 저러니까’ 를</p>

	<p>쓴다.</p> <p>3. 구어에서는 ‘그러니까’를, ‘그러니깐’으로도 쓴다.</p>
연 세 대 사 전	<p>1.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이가 주관적으로 추리하여 뒷말의 근거를 짐작함을 나타내어 그러한 근거에서 말하면, 그러한 이유로</p> <p>2. 앞의 말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내어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자면</p> <p>3. ‘그러니까’ 앞에 ‘그때가’나 ‘그게’ 등이 생략된 채 쓰여, 다시 말하자면,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p> <p>4.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는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주로 글말에서 쓰이고 ‘그래서’는 어떤 결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누구나 동의하는 것에 쓰임.</p>
우 인 혜 외(2000)	<p>선행문이 원인으로 후행문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p>
임 홍 빈 외(1999)	<p>선행문의 이유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후행문이 올 때. 연결어미 ‘-아서’가 주로 일반적인 이유를, ‘-니까’는 화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청유형이 많이 쓰인다.</p>
장 기 열 (2003)	<p>현재적인 이유와 미래적인 이유에 더욱 자연스럽게 연결된다.</p> <p>‘그러니까’는 그 이유가 현재를 기준으로 제기된다면 ‘그래서’는 현재를 기준하여 그 이전 어느 때부터 있었던 이유를 전체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미완적이고 이유의 범위가 선행문을 오직 하나의 이유로 한정한다.</p> <p>‘그래서’는 완료적 전체로 이유의 범위가 포괄적이다.</p>

4.4.3. 대립관계 접속부사 ‘그렇지만’

(1) 대립관계 접속부사 ‘그렇지만’

대립관계 접속부사 ‘그렇지만’은

1. 앞뒤의 문장이 서로 대립 또는 대조,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2. 앞 문장의 내용을 인정하지만 뒤 문장의 내용은 앞 문장과 관계없는 내용이 온다.
3. 대화에서 앞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부연 또

는 반대의 의견을 나타낼 때 쓴다.

4. ‘그렇지만’ 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나’ 는 앞 뒤 문장 모두에 초점이 있지만 ‘하지만’ 은 뒤 문장이 강조된다.
5. ‘그렇지만’ 은 입말과 글말 모두에 쓰이며, ‘그러나’ 는 주로 글말에 ‘하지만’ 은 동화 등의 이야기에서 주로 쓰인다.

‘그렇지만’ 의 의미특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3-5>와 같다.

<표3-5> 접속부사 ‘그렇지만’ 의 의미특징

국립 국어원 (1999)	앞에 말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와 다르게, 앞에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선 (1996)	‘그렇지만’ 은 ‘양보’ 와 ‘대조’ 의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단순한 대비의 뜻을 가진 것보다는 ‘양보’ 로 해석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렇지만’ 을 ‘그러나’ 로 바꾸면 화두의 초점이 선행문과 후행문 모두에 맞춰지는데 비해, ‘하지만’ 을 쓰면 후행문이 강조된다.
백봉자 (1999)	‘그러하다/그리하다’ +연결어미 ‘-지만’ 이 결합된 ‘그러하지만’ 의 준말로써, 뒤 문장의 첫머리에 놓여서 앞 문장과 연결한다. 앞뒤 문장은 대립의 관계일 수도 있고, 뒤 문장이 앞 문장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올 수도 있다. 앞 문장의 내용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만 뒤 문장의 내용이 자유롭게 올 수 있음을 나타낸. ‘그러나’ 로 대체할 수 있다. 1. 앞뒤 문장을 동일한 화자가 말하는 경우. 2. 대화에서 선행 화자의 말을 인정하지만 후행 화자가 거기에 부연하고 싶은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연세대 사전 (1999)	①(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립되는 내용을 이어줄을 나타내어) 그것이 사실이지만. ②(양보적 대립을 나타내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앞에서 말한 내용을 시인하면서 단서를 달듯이 내용을 보충하면서 이어줄을 나타내어) 단,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렇지만’ 은 입말과 글말에 두루 쓰이고, ‘그러나’ 는 글말에

	주로 쓰이고, ‘하지만’ 은 동화 등의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이 쓰일 자리에 흔히 쓰이고, ‘허나’ 는 주로 중년이나 노년기 남자가 쓴다.
우 인 혜 외(2000)	선행문의 문장의 내용이 서로 대립 또는 대조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대립관계 접속부사 ‘그런데’

대립관계 접속부사 ‘그런데’ 는

1. 앞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 뒤 문장이 반대, 대립할 때 사용한다.
2. 이야기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킴을 나타내어 앞문장이 뒤 문장의 발화에 대한 배경이 됨을 나타낸다.
3. 앞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한 화자의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4. 상황 설명의 ‘-으니까’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5. 주로 구어체에 많이 쓰인다.

‘그런데’ 의 의미특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3-6>와 같다.

<표3-6> 접속부사 ‘그런데’의 의미특징

국립 국어원 (1999)	1. 형편이나 상태나 현상이 그와 같은데. 2. 그것에 덧붙여 말하자면 3. 대화를 이어가는 데 쓴다. *참고: 말 할 때는 ‘근데’ 로 자주 쓴다.
김미선 (1996)	‘그런데’ 는 주로 구어체에 많이 쓰이는 접속어로, ‘대조’ 와 ‘전환’ 의 의미를 지닌다. ‘대조’ 의 의미보다는 ‘전환’ 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남기심 (2000)	대조 또는 인과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절을 연결하거나 상황을 도입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상황을 도입하는 의미일 때는 과거선어말어미 -었/았과 함께 쓰일 수 있다.
백봉자 (1999)	‘그러하다/그리하다’ 에 연결어미 ‘-ㄴ데’ 가 결합한 형태로서, 뒤 문자의 첫머리에 놓여서 앞 문장과 연결한다.

	<p>앞 문장이 뒤 문장의 발화에 대한 배경이 됨을 나타낸다. 이때에 선행절은 후행절을 위한 도입이 되기도 하고 대립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상황을 묘사하여 후행절의 보조 정보가 되기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앞 뒤 문장을 동일한 화자가 말하는 경우. 2. 대화에서 사용하였을 때 선행 화자의 말을 인정하고 그를 배경으로 하여 후행 화자가 말할 때 쓴다. 후행절의 동작이 일어난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 주로 동사 현재 시제와 결합한다. 선·후행절의 서로 대조적인 관계를 나타냄.
연 세 대 사 전 (199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앞에서 말한 내용과 뒤에서 말한 사실이 대립됨을 나타내어 형편이나 상태나 현상 그와 같은데, 그러한 형편, 상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2. 앞에서 말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뒤의 사실이 전개됨을 나타내어 그러한 형편이지만, 사정이 그와 같지만. 3. 이야기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킴을 나타내어 그 말은 그만하고, 그것은 그렇고. <p>어떠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들어가는 말로 쓰여 대화를 이어가는 데에 쓰임.</p>
우 인 혜 외(2000)	<p>선행문의 내용에 대해서 후행문이 반대, 대립하거나 전환할 때 사용한다. *참고: 대화에서 내용을 전환할 때 사용한다.</p>
윤 평 현 (1989)	<p>선·후행문의 인계관계가 예견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화자의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 화자의 단순한 주관적 추리에 의해 연계되는 표면적 이유 또는 원인이 되기도. 함이유와 더 긴밀함.</p>
이 희 정 (2003)	<p>입말에서 하위화제로 전환할 때 인접한 화제나 발화 단위에서 화제를 도입한다. 또 상이한 참여자가 화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동일 참여자는 화제를 진전시킬 때 쓴다. 하위화제로 전환시키거나 선행발화에 반론하면서 화제를 전개시키는 기능으로 사용됨.</p>
임 홍 빈 외(1997)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선행문의 내용을 인정하나 그 내용에 대하여 후행문이 반대, 대립되는 내용일 때 쓰인다. ②선행문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로 전환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경우에 쓰인다. ③앞에서 말한 내용과 뒤에서 말하는 사실이 대립됨을 나타내어 형편이나 상태, 현상이 그와 같은데.

4.4.4. 조건관계 접속부사 ‘그러면’

조건관계 접속부사 ‘그러면’ 은

1.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 오는 사실의 조건이 됨을 나타내어 선행문이 후행문의 전제나 과정이 된다.
 2. 대화에서 화자를 바꿀 때 쓰인다.
 3. 명령문이나 청유문 뒤에 쓴다.
 4. ‘그러면’ 의 준말 ‘그럼’ 은 끝맺는 인사말로도 쓰인다.
- ‘그러면’ 의 의미특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3-7>와 같다.

<표3-7> 접속부사 ‘그러면’의 의미특징

국립국어원 (1999)	<p>1. 그렇게 하면, 준말: 그럼. *참고: 명령문이나 청유문 뒤에 쓴다.</p> <p>2.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슷한 말: 그렇다면 *참고: ‘그럼’ 은 주로 편지 등의 끝에서 인사말 쓴다.</p>
백봉자 (1999)	<p>‘그러하다/그리하다’ 에 연결어미 ‘-면’ 이 결합한 형태로서 뒤 문장의 첫머리에 놓여서 앞 문장과 연결한다. ‘그러면’ 을 다시 줄여서 ‘그럼’ 이라고 한다.</p> <p>앞 문장이 뒤 문장의 전제나 가정임을 나타낸다. 전제의 뜻보다는 ‘그러하다고 가정하면’ 의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p> <p>1. 앞 뒤 문장을 동일한 화자가 말하는 경우에 앞 문장은 예정이나 추정을 나타내는 시상어미가 오거나, 예정을 나타내는 내용이 와야 한다.</p> <p>2. 대화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앞 문장에 동작동사, 상태 동사, ‘이다’ 동사를 다 쓸 수 있다.</p> <p>‘그러면’ 의 줄임말 ‘그럼’ 은 ‘물론 그렇다’ 는 뜻의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쓰이는 ‘그럼’ 과는 동음이 의적 형태이다.</p> <p>2. 후행절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일반적인 사건으로서 가정적 조건인 경우 사실적인 것, 습관적인 것, 반복적인 것을 말하며</p>

	‘-었, -겠’ 을 쓸 수 없다.
연 세 대 사 전 (1999)	<p>1.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 오는 사실의 조건이 됨을 나타내어 명령문이나 청유문 뒤에 쓰여 그렇게 하면.</p> <p>2. 앞에서 말한 내용이 시간적으로 다음 내용의 조건으로 작용함을 나타내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p> <p>3. 앞에서 말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여 말함을 나타내어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p> <p>어떠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말로서 화제를 바꿀 때 쓰여 자 이제부터 말을 바꾸어서의 뜻.</p> <p>앞에서 이야기 된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전체로 새로운 논지를 펼 때 쓰임.</p> <p>‘그럼’ 은</p> <p>1. 끝맺는 인사말로 쓰여 ‘마지막으로, 이상으로’</p> <p>2. 조건을 나타내어 ‘그렇다면’ 화제를 바꿀 때 쓰여 ‘다음으로 할 말은’</p>
우 인 혜 외(2000)	선행문이 후행문의 전제나 과정이 된다. *참고: 대화에서 ‘그럼’ 은 ‘물론이다’ 또는 ‘당연하다’ 는 의미를 나타내는 겨우도 있다.
임 홍 빈 외(1997)	선행문에 대한 설명 또는 해설할 때 쓴다.

위와 같이 병렬관계, 인과관계, 대립관계, 조건관계 접속부사의 의미특징에 대한 살펴보았다. 문맥이 순행적이라는 것은 후행 문맥으로 이어질 때에 흐름이 자연스럽고, 글이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접속부사가 문맥형성에 기여하며, 내용 및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읽기 교육에서 접속부사를 통해 문맥 관계 파악에 대한 학습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3장에서는 이런 접속부사의 의미특징이 읽기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것이다.

Ⅲ. 중국인 학습자 대상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의 상관성 조사

앞장에서는 읽기 교육과 접속부사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접속부사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접속부사의 개념과 특징을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의 접속부사의 이해 오류의 양상, 접속부사 유형별로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이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읽기 습관 및 읽기에 대한 정의적 측면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이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습관 및 읽기에 대한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어 읽기 교육 실태와 접속부사에 관한 교사·학습자 간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조사하여 사전 설문조사 및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의 변인에 따라 읽기 습관 및 접속부사의 이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요인이 읽기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읽기 이해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접속부사가 읽기 이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이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을 실시하는 실험 집단과, 접속부사를 활용하지 않는 읽기 수업이 이루어지는 통제 집단을 독해 검사를 통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읽기 수업이 시작되기에 앞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읽기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독해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 실험 집단은 접속부사 활용 전략을 사용하는 읽기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통제 집단은 읽기 텍스트의 내용 및 문법과 어휘 설명 중심의 전통적 읽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읽기 수업이 끝난 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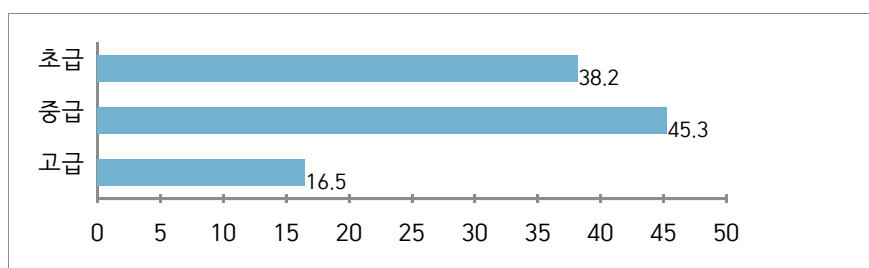
는 사후 독해 검사를 실시하여 읽기 이해력에 있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접속부사 활용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사후 설문조사에서 그 효과를 명시적으로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수업에 대한 의견을 쓸 수 있는 주관식 문항도 사용하였다. 그밖에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기 위하여 실험 집단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방법

1.1. 조사 참여자 정보

본 연구는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읽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교사를 대상으로 접속부사를 활용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자 숙달도 단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의 산둥대학교, 연변대학교,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길림화교외국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총 19명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2-2> 접속부사 활용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읽기 수업 단계

위에 표에 따르면 접속부사 활용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자 숙달도

단계로 다수의 교사들이 ‘중급(45.3%)’을 선택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한국어 중급 수준(한국어능력시험 TOPIK 중급 기준)의 중국인 학습자로 정하고자 한다. 본 조사의 참여 대상자는 중국 국내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중급 학습자 113명, 그리고 한국의 언어교육원에서 재학 중인 중국인 중급 학습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개인 정보

<표4-1> 조사 참여자 구성

분 류	인 원
성 별	남(26명), 여(116명)
연 령	18세 이하(4명), 18~25세(98명), 26~30세(17명), 30세 이상(23명)
한국 체류 기간	6개월 이하(91명), 6개월~1년(22명), 1년~2년(3명), 2년 이상(26명)
TOPIK 수준	중급(86명), 무등급(57명)

첫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총142명으로 그중 남자가 26명으로 18.3%, 여자가116명으로 81.7%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중에서 여자의 비중이 비교적 많다. 이는 중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여자의 비중이 보편적으로 더 큰 편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수준 중급(한국어능력시험 4급)에 해당하거나 대학교 2,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중급 학습자이다. 초급 학습자나 고급 학습자보다 중급 학습자가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에 더 적당하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한국어 중급 수준인 중국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는 모두 중국 대학교나 한국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이다.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 범위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접속부사 활용한 읽기 교육 현황과 교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의 한국어 학습 기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4-2> 학습자 소속 기관 정보

대학 정보	중급 학습자 총 인원(명)	한국 거주 기간		
		6개월 이하	6개월~12개월	12개월 이상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9	16	4	9
산동대학교	19	15	2	2
연변대학교	25	11	10	4
연변과학기술 대학교 ²⁷⁾	69	52	14	3

학습자 소속 기관 정보에 따르면 79%의 학습자는 중국의 각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21%의 학습자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 중에서 중국에서 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은 읽기 학습에 대한 대부분은 읽기 텍스트의 내용 및 문법과 어휘 설명 중심의 전통적 읽기 수업을 실시했다고 하였으며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습자보다 접속부사 활용 전략에 대한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넷째, 접속부사 이해 양상에 대한 언어 환경의 영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고의 연구 참여자는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한다. 즉, 한국 거주 기간 6개월 이하의 학습자는 91명이고, 6개월-1년의 학습자는 22명이고, 1년-2년의 학습자는 3명, 2년 이상의 학습자는 26명이다.

다섯째, 연령별 분포도에서는 30세 이상 23명으로 16.2%, 26세~30세 17명으로 12%, 18~25세 98명으로 69%, 18세 이하 4명으로 2.8%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주로 20대이므로 본고에서 연구 대상

27) 연변대학교의 부속학교

의 나이는 20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2) 교사의 개인 정보

교사용 설문에 응답한 총19명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사 개인정보에 관한 세부 항목에는 다음과 같다.

<표4-3> 교사 성별 분포

성 별	인 원	비 율
남	3	16%
여	16	84%
합 계	19	100%

<표4-3>을 살펴보면 총19명중 남자가 3명(16%), 여자가 16명(84%)이었다.

<표4-3-1> 교사 연령별 분포

연령대	인 원	비 율
20대~30대	12	64%
30대~40대	5	26%
40대~50대	1	5%
50대~60대	1	5%
합 계	19	100%

<표4-3-1>은 연령별 교사 분포도이다. 20~30대가 12명으로 64%를 차지하였고, 30~40대가 26%, 40~50대가 5%, 50~60대가 5% 순으로 나타났다.

<표4-3-2> 교사 경력별 분포

교사 강의 경력	인 원	비 율
2년 미만	6	31.6%
2년~4년	11	57.9%
4년 이상	2	10.5%
합 계	19	100%

교사 경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년 이상 4년 미만의 교사가 57.9%로 가장 많았고, 2년 미만의 교사가 전체의

31.6%, 4년 이상의 교사가 10.5%로 나타났다.

<표4-3-3> 읽기 수업의 단계별 분포

단 계	인 원	비 율
초 급	8	43%
중 급	7	37%
고 급	4	20%
합 계	19	100%

<표4-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급 단계 교사는 전체의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급 단계 교사37%, 고급 단계 교사2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접속부사 활용한 읽기 전략이 가장 적당한 학습 단계를 선정하기 위해 각 단계별 교사를 심층 면담도 진행하였다.

1.2. 자료 구성 및 분석 방법

1) 자료 구성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본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읽기 교수·학습에 관한 읽기 교육의 실태와 접속 부사에 관한 인지도 및 이해 양상, 그리고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총 2 부분으로 나누어진 설문조사와 접속 부사의 기능 검증 실험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4-4> 조사 절차 및 자료 구성

조사 방법		문항 수	조사 기간
설문조사	1. 학습자 · 교사 설문조사	10개	2016년 10월 11일 ~ 2016년 10월 31일
	2. 학습자의 접속부사 이		

	해 양상 설문 조사		
실 험	1. 접속부사와 읽기의 상관성 검증	각 10개	2017년 7월 4일 ~ 2017년 10월 28일
	2. 학습자 면담	10개	2017년 11월 4일 ~ 2017년 11월 27일

<표4-5> 한국어 교사 및 학습자 설문지

영역	설문 항목	문항 수	내용 구성
I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5	-소속기관명 -성별 -연령대 -한국어강의경력- 한국어학습기간 -한국에 체류 기간
II	읽기 교수 및 학습에 관한 사항	7	-읽기 수업 단계 -읽기 교수 지도-학습 방식 -읽기 능력 향상의 중요 요인 -읽기 지도-학습의 어려움 -읽기 지도-학습의 문제점
III	접속부사에 관한 사항	25	-접속부사의 관한 지식 이해도 -접속부사의 인지 및 중요도 -접속부사의 수업 활용도 -접속부사의 필요성 -접속부사의 교수 적합한 학습 단계 -접속부사의 활용 및 효과

이 부분의 설문은 각각 교사용 설문지와 학생용 설문지 2종류로 나누어서 제작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되르네이(Dörnyei, 2003)에 따른 세 가지 정보²⁸⁾에 입각해서 설문 항목으로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읽기 교수 및

29) 되르네이(Dörnyei, 2003)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정보에 대해 지적하였다.

①사실에 입각한 정보: 교사들과 학습자의 특성(학생의 나이, 성, 민족성, 언어 배경, 숙달도 수준 등)에 대해 알려준다.

학습에 관한 사항, 접속부사에 대한 관련 사항, 읽기 학습의 교육적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강정화(2008), 문희영(2000), 이연정(2009), 정수아(2011) 등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되 읽기 교육 및 담화 표지어 이론은 박수자(1994), 김봉순(1996), 박영순(2004)등을 토대로 하였다.

<표4-4-1> 접속부사에 관한 테스트 내용 구성²⁹⁾

조사 방법	내용 구성
접속부사에 관한 테스트	<p>예시:</p> <p>유형1: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p> <p>★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 중 하나가 휴대 전화를 열어 보지 않는 것이다. 공연 중에 휴대 전화를 확인하면 어두운 공연장에서 휴대 전화의 불빛이 또 하나의 조명이 된다. () 관객들은 배우가 아닌 그 불빛을 쳐다보게 되어 공연에 집중할 수 없다. ① 그러나 ②그리고 ③따라서 ④그러면</p> <p>유형2: 다음 텍스트에서 접속부사의 맞는 기능을 고르십시오.</p> <p>★인주시장은 오래된 시장입니다. <u>그런데</u> 요즘 사람들은 오래된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찾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시장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가게 주인들은 시장에 재미있는 그림을 전시하고 가게의 이름도 예쁘게 써서 걸었습니다.</p>

②행동에 입각한 정보: 학생이나 교사가 배우거나 가르칠 때의 행동 습관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 중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얼마나 자주 사전을 찾는지, 글쓰기 전에 개요를 짜는지 등과 같은 내용이다.

③태도에 입각한 정보: 교사나 학습자의 의견이나 신념 및 관심 등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주로 학습자의 학습 목표나 어떠한 언어 기능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분석할 때 자주 쓰인다.

30) 접속부사에 관한 테스트 내용은 학습자들이 접속부사의 기능과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그 것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텍스트 안에서의 접속부사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읽기 이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테스트에 나타난 접속부사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질문은 II장에 제시한 내용의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①대조(对比: 前后文出现相反的意义内容) ②첨가(补充: 补充前文内容, 提出新的内容) ③역접(转折: 连接与前文内容相反的内容) ④전환(转换: 后文内容与前文内容不同, 连接新的想法或主题, 转移话题)
--	--

<표4-4-2> 접속부사의 기능 검증 실험 내용 구성³⁰⁾

조사 방법	내용 구성
접속부사가 있는 읽기 테스트	<p>예시: 유형1(접속부사가 있는 읽기 이해): 다음 글을 읽고, 내용과 맞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p> <p>★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즐겁습니다. <u>그런데</u>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가끔 운동을 못 합니다. <u>그래서</u> 다음 주부터는 저녁에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일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p> <p>①이 사람은 저녁에 운동을 했습니다. ②이 사람은 아침마다 친구를 만납니다. ③이 사람은 친구와 운동을 할 것입니다. ④이 사람은 친구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p>
접속부사가 없는 읽기 테스트	<p>예시: 유형2: (접속부사가 없는 읽기 이해): 다음 글을 읽고, 내용과 맞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p> <p>★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즐겁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가끔 운동을 못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녁에 친구와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일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p> <p>①이 사람은 저녁에 운동을 했습니다. ②이 사람은 아침마다 친구를 만납니다. ③이 사람은 친구와 운동을 할 것입니다. ④이 사람은 친구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p>

31) 설문 내용의 설계는 개편된 한국어능력시험35회, 41회, 52회 읽기 부분을 인용하여 ‘한 단락의 서술문을 읽고 세부내용 파악하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속부사의 유무에 따른 읽기 이해 결과의 정확성³¹⁾을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을 임의 선정하여 실험집단에게는 접속부사가 있는 텍스트를 제시하고 비교집단에게는 접속부사가 없는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텍스트는 접속부사의 유무만이 다를 뿐으로 이 외의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그리고 접속부사가 있는 텍스트와 접속부사가 없는 텍스트는 모두 의미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글이다. 접속부사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접속부사가 있을 때와 접속부사가 없을 때의 독해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피험자가 동일하고, 그 피험자가 읽어야 할 텍스트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두 번째 읽을 때는 앞서 읽은 내용의 기억이 작용하여 정확한 읽기 이해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접속부사의 효과가 검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읽기 능력이 비슷한 두 피험자를 선정하여 피험자간의 차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접속부사가 있는 텍스트의 읽기 이해 결과와 접속부사가 없는 텍스트의 이해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접속부사의 효과를 검사한다.³²⁾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방법(전략)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평소에 선호하는 읽기 방법
- 읽기 텍스트 안에서 접속부사에 대한 이해 정도 (단순한 어휘로 인식, 문법으로 인식)
- 접속부사 유무는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 접속부사 활용한 읽기 방법(전략)에 대한 효용성

32) 접속부사의 기능은 두 가지의 현상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읽기 결과의 정확성이고 다른 하나는 읽기 시간의 단축이다. 이 둘 중에서 본 연구는 읽기 결과의 정확성으로 접속부사의 기능을 검증한다.

33) 또 다른 설계로서, 동일한 피험자에게 내용이 다른 텍스트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제시되는 두 글이 내용은 서로 다를지라도 그 난이도나 내용의 친밀성 정도 등이 매우 유사하여, 독자가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두 글을 이해함으로써 접속부사의 유무만이 변인이 될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 자료를 얻기는 매우 어렵고, 또 접속부사 외에도 여러 가지 텍스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절한 설계가 되기 어렵다.

면담(interview)은 질적 연구에서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설문지와 함께 조사 기반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면담은 형식성의 정도에 따라 구조화(structured) 면담, 비구조화(unstructured) 면담, 반구조화(semi-structured) 면담으로 나눌 수 있다³³⁾.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읽기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에서 진행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와 읽기 이해 문항들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읽기 과정에서 접속부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접속부사를 활용해서 읽기 학습할 때 효과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이런 심층적인 사고를 알아내기 위해 면담을 통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귀납적 결과를 얻고자 한다.³⁴⁾ 우선 양적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읽기 습관 및 읽기에 대

34) ①**구조화 면담**은 연구자가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미리 준비해 둔 동일한 질문 목록을 정해진 순서대로 물어 마치 설문지를 구두로 실시하는 것과 같은 표준화된 구조를 말한다. 면담 계획은 연구자가 전적으로 사전에 결정한다.

②**비구조화 면담**은 사전에 어떠한 질문을 하겠다고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연구자가 일상 대화처럼 질문을 하고 연구 참여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구조이다. 연구자의 계획보다는 면담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면담이 이루어진다. 연구자가 면담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면담 방향도 예상하기 어렵다.

③**반구조화 면담**은 연구자가 면담 계획과 내용에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질문 목록을 미리 정해 두지 않거나 미리 준비해 둔 질문 목록을 일종의 지침으로 참고하여 질문을 하는 형태이다. 연구 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사전 질문 목록에는 없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한국어교육학사전, p306)

한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볼 것이고 접속부사의 인지도와 이용도에 대한 학습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학습자의 변인에 따라 읽기 습관 및 접속부사의 이해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질적 분석을 통해 얻은 귀납적 결과를 바탕으로 접속부사의 기능 및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은 읽기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4가지 유형의 접속부사이다. 먼저, 병열관계를 표현하는 병열관계 접속부사, 그리고 원인·결과관계를 표현하는 인과관계 접속부사, 비교·대조 관계를 표현하는 대립관계 접속부사, 전제 및 조건을 표현하는 조건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이해 전략은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조사 결과 및 분석

2.1. 중국인 학습자의 읽기 교육 현황과 접속부사 이해 양상 분석

본 설문지를 통해 본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것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첫째, 학습자의 읽기 학습의 습관 및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학습자의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학습자 읽기 학습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35) McKay(2006:23-24); 노미연(2012 재인용)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연구 목표	인과관계를 일반화하고 예측, 결정하는 것	맥락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
연구 문제	연역적 방법, 연구는 가설에서 시작	귀납적 방법, 관찰과 질문을 통해 연구
연구 설계	수량화된 지표를 통해 정리	자료 수집 후 유형을 찾음
자료 분석	통계 분석	자료 해석적으로 분석, 범주화

셋째, 현재 학습자의 단계별 또는 수준에 상관없이 읽기 이해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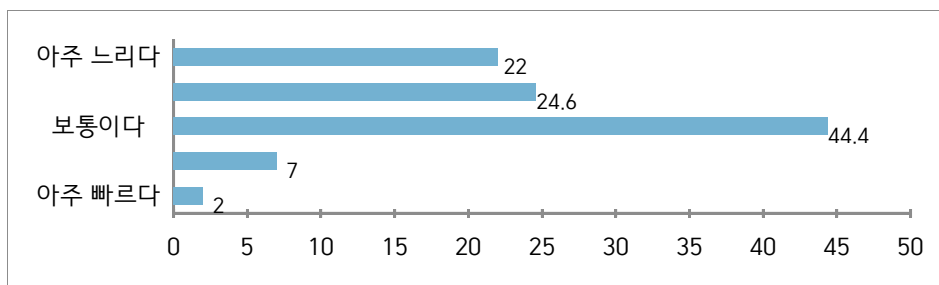
넷째, 단계별 학습자에 따른 접속부사 인지도 및 활용도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섯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에서 기대되는 효용성이 무엇이며 접속부사 교수의 필요성 및 적합한 학습시기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섯째, 한국어 읽기 수업 시 어려운 점이나 수업 방안의 개선점에 관한 학습자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위의 여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지의 각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응답수, 비율을 통해 설문지를 분석한 것이다.

1) 읽기 학습에 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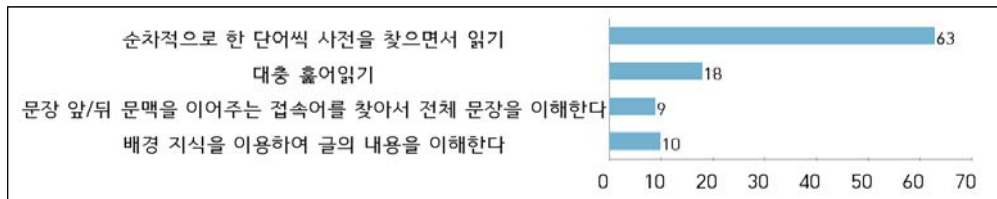


<그림2-3> 학습자의 읽기 속도³⁵⁾

<그림2-3>에서는 학습자의 읽기 속도에 대한 설문으로 ‘아주 느리다’라고 응답한 학습자 31명으로 22%, ‘조금 느리다’라고 응답한 학습자 35명으로 24.6%,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습자 63명으로 44.4%,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읽기 속도가 빠른 학습자는 10%에 부족하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학습자들의 읽기 수준은 대부분 미숙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수준이 약간 떨어진 학습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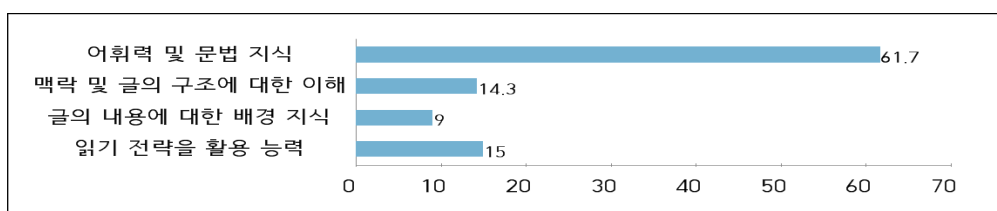
36) 여기서 학습자의 읽기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평소에 교과서 읽는 속도를 말한다.

대상으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은 한국어 능력이 미숙한 학습자들한테는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림2-4>학습자가 읽기 학습에서 선호하는 방법

<그림2-4>에서는 학습자의 일반적인 읽기 학습 습관에 대한 설문으로 ‘순차적으로 한 단어씩 사전을 찾으면서 읽기(63%)’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단어나 문장의 앞/뒤 문맥을 이어주는 접속어를 찾아서 전체 문장을 이해하기’ 라는 문항에는 응답율이 9%에 불과했다. 이로부터 중국인 학습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읽기 학습 방법은 단어를 통해서 문장 뜻을 파악하는 상향식 전략이다. 특히, 중급 학습자들은 어휘와 문법 지식은 부족하기 때문에 읽기 학습할 때 사전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돼서 읽기 능력 향상에 지장이 된다. 이는 교사가 읽기 지도를 함에 있어서 배경 지식과 같은 스키마 전략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문맥을 이어주는 담화표지(접속부사)를 찾아서 전체 문장을 이해하는 읽기 전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림2-5> 읽기 이해를 돕는 중요 요인

<그림2-5>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단계에서 읽기 이해를 돕는 중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고 대부분 학습자들은 어휘력과 문법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어휘력과 문법 지식 외에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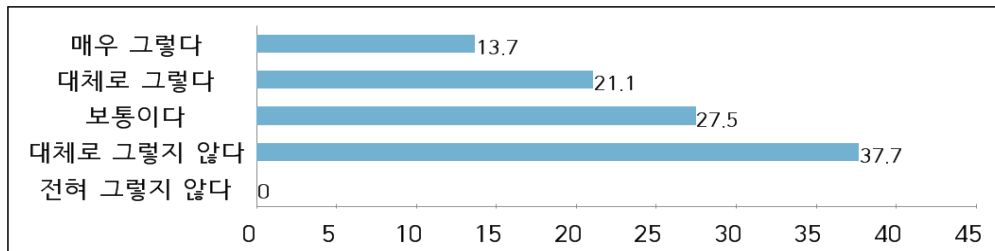
는 읽기 이해의 중요 요인을 분석해 볼 때 14.3%의 학습자들은 ‘맥락과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5%의 학습자는 읽기 전략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선택하였다. 외국어 읽기에서 어휘와 문법 등 언어 지식은 간과할 수 없지만 읽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맥과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의미 파악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접속부사 교육에 관한 조사

<표5-1> 접속부사의 학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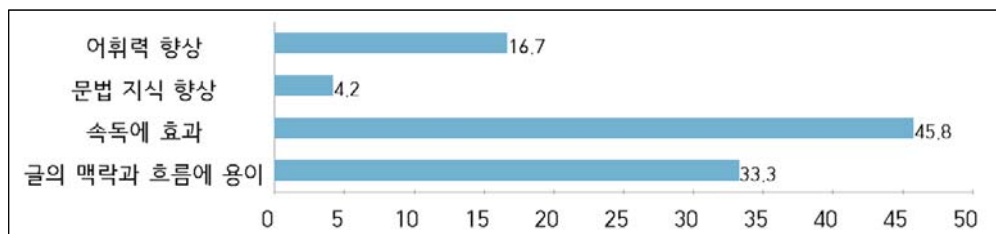
내 용		인원	비율
9. 접속부사를 학습한 적이 있는가?	있다	59	41.5%
	없다	83	58.8%
10. 접속부사 학습 방식	어휘 차원에서 뜻을 설명해 주셨다.	16	11.1%
	문법 차원에서 뜻을 설명해 주셨다.	47	33.3%
	접속부사의 사용 기능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예, 전환, 인과기능)	34	24.1%
	접속부사가 전체 문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문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셨다.	45	31.5%

<표5-1>의 문항 9에서는 접속부사를 학습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항목으로서 58.8%의 학습자는 학습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은 41.5%의 학습자는 학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습 방식에 대한 “어휘와 문법 차원에서 접속부사를 설명하셨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44.4%에 이른다. 접속부사의 사용 기능 및 전체 문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접속부사 교육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모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읽기 능력을 신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수업에서 접속부사 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비중 있게 교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그림2-6>접속부사에의 주의 정도

<그림2-6>의 문항(11)는 접속부사에 관한 주의 정도에 대한 측정 항목으로 ‘글을 읽을 때 접속부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까’ 라는 설문 내용이다. 학습자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에 반해 ‘대체로 그렇다’가 21.1%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글을 읽을 때 ‘접속부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읽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읽기는 어휘, 문법을 해독하는 능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담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 텍스트 구조화 텍스트성을 파악하도록 접속부와 같은 담화 표지를 활용한 전략을 지도해야 한다.



<그림2-7> 접속부사의 활용 효과

<그림2-7>에서 접속부사를 활용함으로써 기대되어지는 효과성에 관한 설문으로 ‘글의 구조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속독에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글의 맥락과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나타났다.

위의 설문을 종합 분석해 볼 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읽기 학습 방식에서 대부분 학습자는 사전을 찾지 않고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 본다.

둘째, 읽기 이해를 돕는 중요 요인으로서는 현재 학습자의 단계별 또는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어휘력 및 문법 지식 가장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접속부사에 관한 지식 척도에서 학습자들이 ‘보통이다’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접속부사에 관한 필요성 부분에는 대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넷째, 활용도 부분에서는 ‘대체로 활용한다’라고 하였다. 37.7%가 ‘접속부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즉 초·중급단계에서 접속부사 학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 적절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중급 학습자의 접속부사 활용이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접속부사 효용성으로 속독과 글의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3) 교사 대상 읽기 학습과 접속부사 교수에 관한 조사

교사용 설문지 문항 2에서 문항 12까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현 읽기 수업의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읽기 학습 지도 시 어려운 점과 읽기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접속부사 인식도 및 활용도에 관한 읽기 교육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에서 기대되는 효용성이 무엇이며 접속부사 교수의 필요성 및 적합한 학습 단계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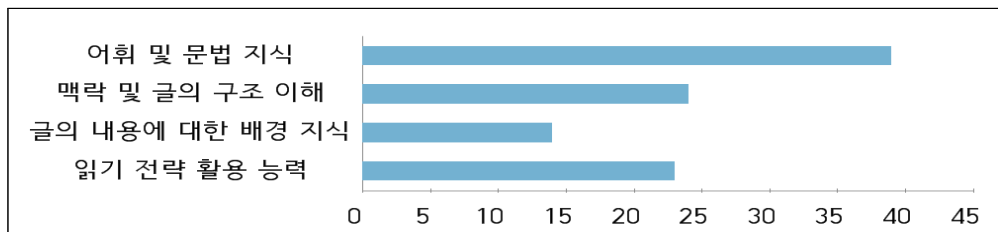
다섯째, 한국어 읽기 수업 시 어려운 점이나 수업 방안의 개선점에 관한 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위의 다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지의 각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응답수, 비율을 통해 설문지를

분석한 것이다.

<표5-2> 한국어 읽기 교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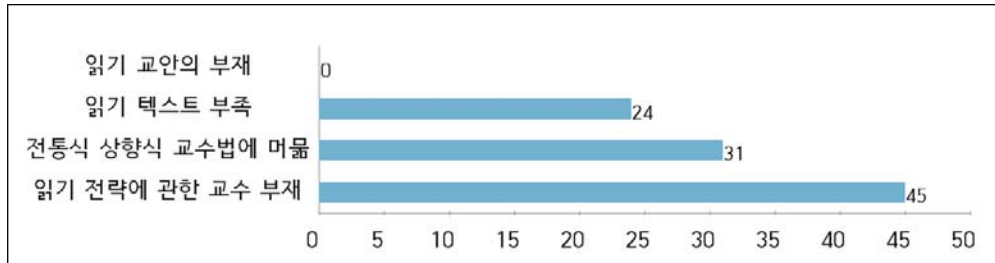
내 용		어휘와 문법 설명 위주	전체 맥락과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	읽기 전략에 관한 수업 지도	배경 지식을 활용한 읽기 수업	기 타
초급	인원	12	3	0	4	0
	비율	61%	15%	0%	24%	0%
중급	인원	6	4	2	7	0
	비율	31%	24%	11%	34%	0%
고급	인원	1	10	3	5	0
	비율	4%	52%	15%	29%	0%

<5-2>에서는 학습 단계별 교사의 일반적인 읽기 교수 방식에 관한 설문으로 초급 단계는 어휘와 문법 설명 위주의 수업방식, 중급 단계는 배경지식을 활용한 읽기 수업, 고급 단계는 전체 맥락과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 수업으로 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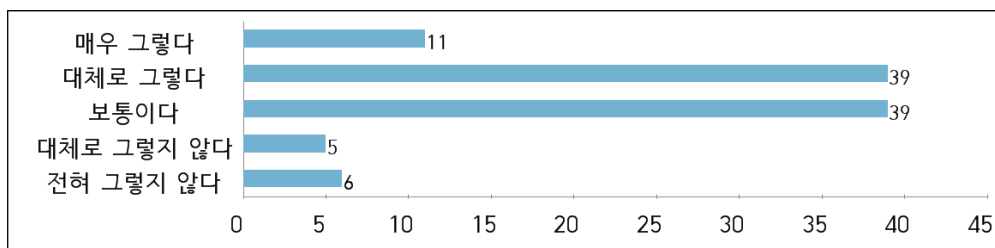
<그림3-1> 읽기 학습 향상의 중요 요인

<그림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읽기 학습 향상의 중요 요인에 관한 설문에서는 어휘력 및 문법 지식이 가장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맥락 및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및 읽기 전략 활용 능력, 글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 등과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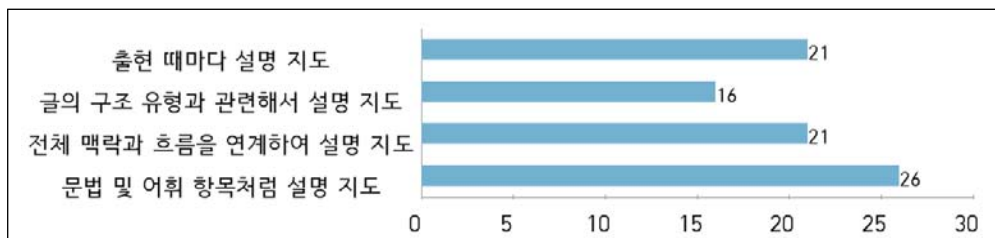
<그림3-1-1> 현행 읽기 수업의 문제점

<그림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읽기 수업에서의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읽기 전략에 관한 교수 부재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읽기 텍스트 부족과 읽기 전략에 관한 교수 부재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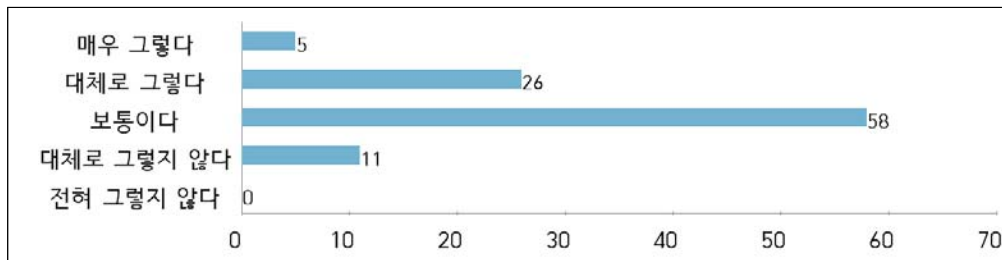
<그림3-1-3> 읽기 수업 시 접속부사 지도 방식

<그림3-1-3>에서는 현 읽기 수업 시 접속부사 지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학습자는 ‘전체 맥락과 흐름을 연계하여 설명 지도를 한다’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6%가 문법 및 어휘 항목처럼 설명 지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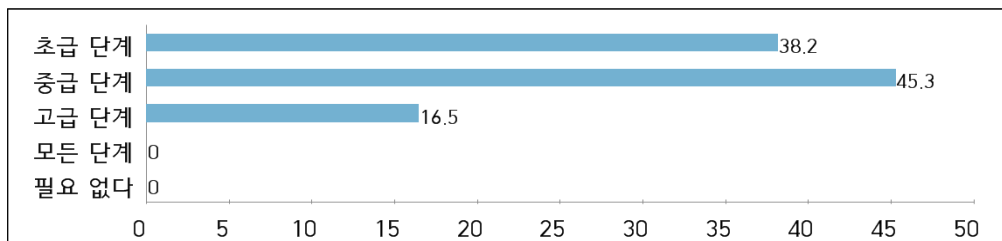
<그림3-1-3> 읽기 수업 시 접속부사 지도 방식

<그림3-1-3>에서는 현 읽기 수업 시 접속부사 지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학습자는 ‘전체 맥락과 흐름을 연계하여 설명 지도를 한다’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6%가 문법 및 어휘 항목처럼 설명 지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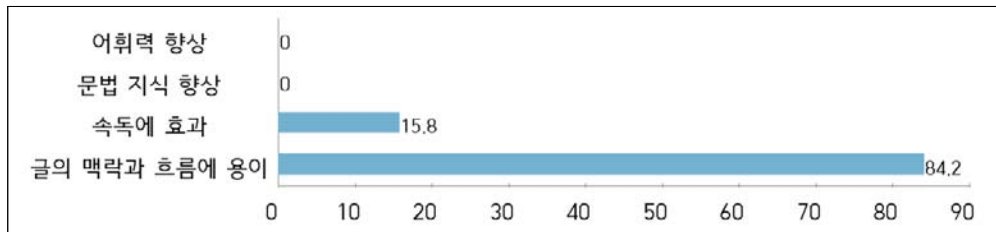
<3-1-4> 접속부사의 교육 필요성

<그림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속부사의 교육적 필요성에 관한 설문으로 교사들이 접속부사 교육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3-1-5> 접속부사의 적절한 교수 단계

<그림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수업이 적합한 시기에 관한 설문 결과 초급, 중급 단계에서의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3-1-6> 접속부사의 활용한 효과

<그림3-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효과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 교사의 84.2%가 글의 맥락과 흐름을 용이하게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비해 문법 및 어휘 항목의 효과성에 관해서는 무응답으로 나타나 접속부사의 활용 효과성의 세부 항목 간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수업에서 읽기 이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위의 설문을 종합 분석해 볼 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 단계별 교사의 일반적인 교수 방식으로 초급은 어휘 및 문법 설명 위주, 중급은 배경 지식을 활용한 교수방식, 고급은 전체 맥락과 글의 구조에 대한 교수 방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읽기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모두 어휘력과 문법 지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도 시 어려운 요인으로 초급과 중급은 읽기 전략 지도, 고급은 맥락 및 구조에 대한 지도로 나타났다.

셋째, 접속부사 인식 및 주의 정도 부분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교육적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적합한 시기는 중급 단계로, 글의 맥락과 흐름에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2.2. 중국인 학습자의 접속부사에 대한 이해 양상

II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텍스트와 관련한 접속부사의 교육 내용을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 글의 짜임,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의 용어로 응축하였다. 따라서 III장에서는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은 접속부사에 대한 이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항을 통해서 피험자의 이해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 절에서는 중급단계 중국인 학습자의 나열관계의 ‘그리고’, 인과관계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대립 관계의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조건관계의 ‘그러면’을 조사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오류 양상과 분석을 자세히 살펴본다.

2.2.1. 나열관계 접속부사의 이해 오류와 원인 분석

문항1번~5번은 문단과 문장의 연결이 하나의 문맥을 형성하도록 적절한 접속부사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적절한 접속부사를 골라내려면 문장과 문단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해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자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면, 두 텍스트를 유관한 관계로 엮기 위해 관계를 표시하는 접속부사를 선택한다.

문항6번~10번 문항은 텍스트에서 접속부사의 맞는 기능³⁶⁾을 고르는 문

37)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4 가지의 접속부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접속부사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테스트에서 나온 기능의 설명은 바로 다음 표를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표5-3> 접속부사의 기능

분류	접속부사	세부 관계	기능
나열관계	그리고	순접	앞의 내용을 이어 받아 연결시키는 것
		첨가·보충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하는 것
		대등·병렬	앞뒤의 내용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하면서 이어 주는 것
	또한	첨가·보충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하는 것

항들이다. 접속부사는 문단 안에서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 학습자들은 접속부사에 대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하고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런데’는 문맥 전환의 의미를, ‘그리고’는 문맥의 연결 내지는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같은 텍스트라도 어떤 접속부사가 오느냐에 따라 문맥의 흐름 변화가 온다. 그리고 접속부사를 파악하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읽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읽기 능력을 신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접속부사를 유념하여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음 문항들을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읽기 과정에서 접속부사의 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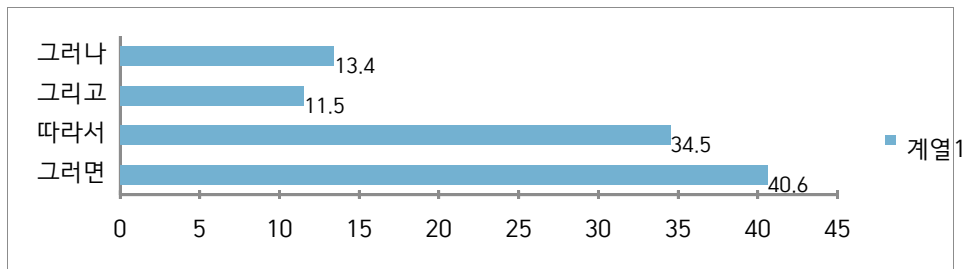
또한, 접속부사의 선택 문제는 문단이나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앞,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접속부사의 의미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고려한 접속부사를 골라내야 한다. 이러한 접속부사의 선택 문제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파악하기에 적당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윤평현(2005)에서 선행문의 서술어가 동사이고 선·후행문의 주어가 다를 때는 ‘나열’로도 볼 수 있고 ‘시간관계’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

	즉	확 인 · 요 약	앞의 내용을 바꾸어 말하거나 간추려 짧게 요약하는 것
인과관계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따라서	인과	앞뒤의 문장을 원인과 결과로, 또는 결과와 원인으로 연결시키는 것
대립관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도	역접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 주는 것
	그런데 그러면	전환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이나 사실을 서술하여 화제를 바꾸며 이어 주는 것
조건관계	그래야	조건	앞의 마땅히 그러해야 할 내용이 뒤의 예상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것

에서 서정수(1996)에 따라 ‘그리고’는 나열관계로 보기로 한다. 즉 앞절의 서술에 뒷 절의 서술이 덧붙여지도록 잇는 구실을 한다. 다음 문항의 응답 현황을 통해서 학습자의 나열관계 접속부사 이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 중 하나가 휴대 전화를 열어 보지 않는 것이다. 공연 중에 휴대 전화를 확인하면 어두운 공연장에서 휴대 전화의 불빛이 또 하나의 조명이 된다. () 관객들은 배우가 아닌 그 불빛을 쳐다보게 되어 공연에 집중할 수 없다. (한국어능력시험 34회 중급 읽기 부분)	
①그러나	②그리고
③따라서	④그러면



<그림4-1> 응답률

위 문항에서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 중 하나가 휴대 전화를 열어 보지 않는 것이다’의 내용과 ‘공연 중에 휴대 전화를 확인하면 어두운 공연장에서 휴대 전화의 불빛이 또 하나의 조명이 된다’는 문장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무엇인지와 왜 그래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선행하여 제시되고 뒤에는 ‘전화의 불빛이’ 관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후치된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앞의 내용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사용하는 조건관계 접속부사 ‘그러면’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오답자가 34.5%는 ‘따라서’를 선택하였다. 이유는 이 문장은 중국어로 번역하면 괄호 안에 ‘따라서’의 대응 중국어 표현 ‘所以’를 써도 문단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11.5%의 학습자들은 ‘그리고’와 ‘그러면’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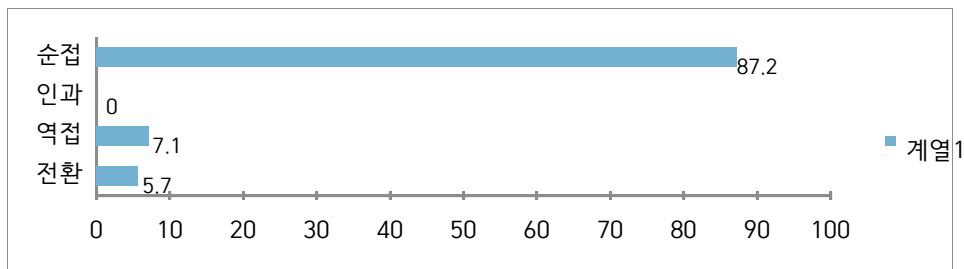
기다리고 있습니다.

①순접(顺接：连接前文内容，起到承上启下的作用。)

②인과(因果：前后文使用原因和结果，或结果和原因这样的方式连接)

③역접(转折：连接与前文内容相反的内容)

④전환(转换：后文内容与前文内容不同，连接新的想法或主题，转移话题)



<그림4-3> 응답률

‘그리고’는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하는 기능이 있다. 이 문항에서 ‘<첫사랑>은 내용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영화이다’의 내용과 ‘영화에 나온 음악은 요즘에도 인기가 많다’의 내용은 나열관계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에 대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를 잘 이해하면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들은 가장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문항은 텍스트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위해 알맞은 접속부사를 선택하여 빈칸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기본적으로 ‘쓰기’ 활동이지만, 접속부사에 대한 ‘문법 지식’ 그리고 적절한 접속부사를 넣기 위한 사전 활동인 ‘읽기’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다. 이것은 같은 수준의 난이도인 객관식 문항에 비해 심리적으로 문제해결이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와 ‘따라서’를 구분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접속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접속부사가 생략되면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여 빈칸을 채워 넣는 문항들은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즉, 접속부사를 제대로 넣는 학습자들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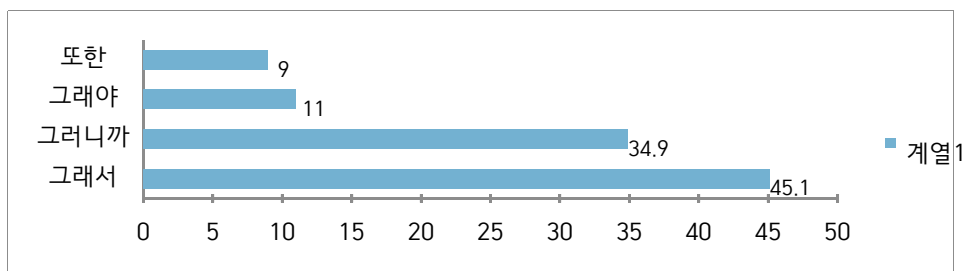
장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은 구성에 통한 표현을 완성하지 못하고 문맥 자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2.2. 인과관계 접속부사의 이해 오류와 원인 분석

윤평현(2005:171)은 ‘인과 관계’라 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러므로, 그래서’는 주로 문장과 문장을 인과 관계 또는 이유 결론들의 관계로 접속한다. 여기서는 ‘그래서’와 ‘그러니까’의 차이를 살펴보고, 상호대치 문장 상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 () 인간은 정보가 많을 때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집중하게 된다. 주차된 많은 차들 중에서 내 차만 눈에 보이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나와 관련된 이야기만 잘 들리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 34회 중급 읽기 부분)

- | | |
|-------|------|
| ①또한 | ②그래야 |
| ③그러니까 | ④그래서 |



<그림4-4> 응답률

이 문항은 정답률 45.1%로 학생들이 비교적 문맥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와 ‘인간은 정보가 많을 때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집

중하게 된다'의 문맥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두 문장이 순행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접과 인과적 관계로 선택의 폭을 좁히게 된다. 그러나 '그래서'와 '그러니까'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다 '所以'인데 학생들은 이 두 접속부사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6>

ㄱ. 그런 손님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접할 수 있고 필요한 이재이다. 그래서 위에 쓴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직업은 앞으로도 유행이나 속도에 눈치가 빠른 선세대의 관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휴대폰시장이 더 큰 시장이 되고 전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ㄴ. 우선 공공교통수단 쓰기, 지금 한국에서는 기름 값이 올라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비용도 싸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예6> (ㄱ)에는 '그래서'가, (ㄴ)에는 '그러니까'가 첨가되었다. (ㄱ)에서는 '위에 쓴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이라는 절이 이미 접속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ㄴ)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이 앞 명제와 뒤의 명제를 의미적으로 접속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접속어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와 '그러니까'의 의미 차이를 이해해야 읽기 이해할 때 문맥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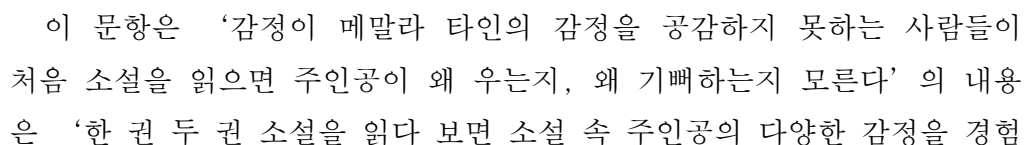
내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조카가 태어났을 때이다. 나에게는 오빠가 1명, 언니가 1명 있는데 동생이 한명도 없었다. 내가 막내이다. 그러니까 언니가 임신했다고 들었을 때 환호의 소리를 쳤다.

예7>는 '그러니까'로 대치가 일어난 경우이다. 학습자가 '그러니까'를 사용함으로써 그 앞에 나오는 명제가 뒤에 나오는 명제가 뒤에 나

2.2.3. 대립관계 접속부사의 이해 오류와 원인 분석

(3)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감정이 메말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이 왜 우는지, 왜 기뻐하는지 모른다. () 한 권 두 권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 속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주인공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 (한국어능력시험 34회 중급 읽기 부분)

- 〈그림4-5〉 문항3 응답률



하게 되고 조금씩 주인공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서 대립관계 접속부사 ‘하지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를 선택한 학습자는 15.9%로, ‘그래도’를 선택한 학습자는 35.7%로 나타나며 비교적 높은 오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학습자들은 같은 대립관계의 접속부사 ‘하지만, 그래도’의 기능에 대한 구별하지 못해서 나타난 오류 양상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문맥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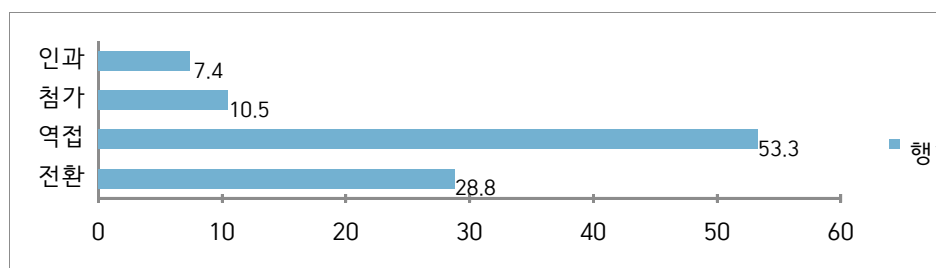
(6) 인기가 많았던 영화나 소설, 만화 등을 드라마로 만들면 새로운 이야기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보다 실패할 위험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드라마라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작품을 이미 재미있게 본 사람들을 다시 만족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①인과³⁷⁾(因果: 前后文使用原因和结果, 或结果和原因这样的方式连接)

②첨가(补充: 补充前文内容, 提出新的内容)

③역접(转折: 连接与前文内容相反的内容)

④전환(转换: 后文内容与前文内容不同, 连接新的想法或主题, 转移话题)



<그림4-6>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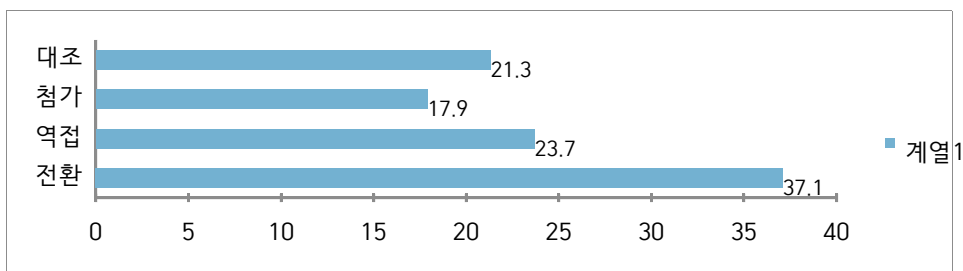
이 문항은 학습자들이 ‘그러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고찰하는 문항이다. ‘그러나’는 이 문단에서 ‘인기가 많았던 영화나 소설, 만화 등을 드라마로 만들면 새로운 이야기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보다 실패

37) 여기서 학습자들은 접속부사의 기능에 대한 ‘대조, 첨가’ 등과 같은 전문 용어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설계할 때 선택 문항은 중국어로 설명하였다. 또한, 접속부사의 기능에 대한 분류도 미리 제시하였다.

할 위험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의 내용과는 상반적인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부사이다. ‘역접’을 선택한 학습자는 53.33%으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하지만 ‘전환’의 기능을 선택한 학습자도 28.8%로 나타났다. 이는 ‘그러나’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但是, 可是’는 전환의 의미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대립 관계 접속부사 ‘하지만’과 ‘그러나’를 대치하는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중 일부는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과 ‘그래도’ 간에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는 제2언어 학습자를 보이는 것으로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 그래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접속부사에 대한 오류가 자주 일어난다. 학습자들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 접속부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문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보다 문장 시작의 첫 단어에 따라 접속부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8) 인주시장은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오래된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찾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시장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가게 주인들은 시장에 재미있는 그림을 전시하고 가게의 이름도 예쁘게 써서 걸었습니다.

- ①대조(对比: 前后文出现相反的意义内容)
- ②첨가(补充: 补充前文内容, 提出新的内容)
- ③역접(转折: 连接与前文内容相反的内容)
- ④전환(转换: 后文内容与前文内容不同, 连接新的想法或主题, 转移话题)



<그림4-7> 응답률

이 문항에는 ‘그런데’의 의미는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는 다른,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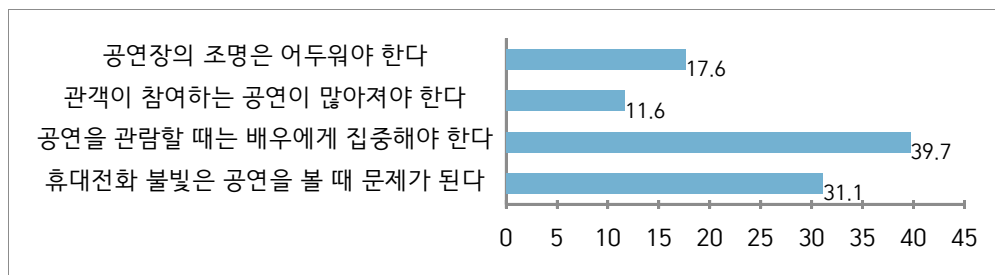
로운 생각이나 사실을 서술하여 화제를 바꾸며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인주시장은 오래된 시장이다’의 내용을 이어서 ‘시장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가게 주인들은 시장에 재미있는 그림을 전시하고 가게의 이름도 예쁘게 써서 걸었다’와 같은 새로운 사실을 서술하여 화제를 바꾸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그런데’의 적절한 의미 기능은 ‘전환’의 기능이다. 이에 대한 응답률은 37.1%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이 문단에서 ‘그런데’의 의미는 단순히 상반된 내용을 이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의 새로운 생각이나 사실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 문맥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2.2.4. 조건관계 접속부사의 이해 오류와 원인 분석

‘그러면’의 의미자질은 다음과 같다.

1.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 오는 사실의 조건이 됨을 나타내어 선행문이 후행문의 전제나 과정이 된다.
2. 대화에서 화자를 바꿀 때 쓰인다.
3. 명령문이나 청유문 뒤에 쓴다.
4. ‘그러면’의 준말 ‘그럼’은 끝맺는 인사말로도 쓰인다.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 중 하나가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다. 공연 중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어두운 공연장에서 휴대전화의 불빛이 또 하나의 조명이 된다. 그러면 관객들은 배우가 아닌 그 불빛을 쳐다보게 되어 공연에 집중할 수 없다.



<그림4-8> 응답률

이 문항의 정답은 ④번이며 정답률은 31.1%에 불과했다. 학습자들은 조건관계 접속부사 ‘그러면’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글의 전체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휴대전화의 불빛은 공연을 볼 때 문제가 된다’의 내용은 글의 중심 내용인 것을 판단이 될 것이다.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접속부사의 통합적 교육의 방법이 된다. 접속부사가 문맥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면 보다 주제 및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진다. 먼저 접속부사에 밑줄을 긋고, 텍스트 전체의 내용 흐름을 파악한다. 순접이 이어지는지 역접이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접속부사 후행 문장을 따라가며 내용을 이해한다.

이해 오류	원인 분석
1. 각 유형별 접속부사의 기능 혼동 예: ‘그러면’과 ‘그리고’의 혼동 ‘그러면’과 ‘따라서’의 혼동	<p>-모국어의 간섭: 조건관계 접속부사 ‘그러면’과 병렬관계 접속부사 ‘그리고’, 인과관계 접속부사 따라서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비슷한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법 능력은 우수한 편이었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암기식으로 어휘와 문법을 배웠고 접속부사에 대한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형상이 있다.</p> <p>-문장 구조 이해 부족: 대부분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한 구절씩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의미를 파악하였는데 문법에 대한 어려움은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문장성분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이해하기 힘들어했다. 또한, 많은 학습자들은 어휘에 의존한 번역 중심의 읽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의 접속부사의 기능을 이해하지</p>

	못했다.
2. 접속부사의 세부 관계 인식 부족	<p>-문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 면담에서도 학습자들이 어휘나 문법의 해독에 집중하다보니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표지를 이용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p> <p>-접속부사 기능의 불완전한 이해: 접속부사의 세부적인 기능은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학습자들은 단순한 표면적인 의미 기능만 알고 있으면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p>

결론적으로 접속부사의 기본적인 관계와 의미는 모어 화자가 직관에 따라 판별할 수 있지만 제 2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접속부사의 의미를 체계화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접속부사를 잘 파악하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접속부사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차후의 면담을 통해서 학습자의 이해 오류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는 접속부사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어려움이 읽기 이해에는 영향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접속부사의 기능과 읽기 이해의 관계 검증

앞에 접속부사에 관한 테스트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여 빈칸을 채워 넣는 활동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접속부사를 제대로 넣는 학생은 문맥의 흐름을 짚어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텍스트 구성을 통한 표현을 완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 파악을 위해서 문단의 흐름이 매끄러워야 하고, 문장 간의 관계가 적절한 연결 표지로 이어져야 한다. 여러 문장을 하나로 묶는 연결어미도 물론 그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두세 문장 이상의 문장을 연결하는 데는 접속부사가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이해 활동에 접속부사가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와 접속부사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 즉 접속부사의 텍스트성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접속부사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접속부사가 있는 텍스트와 없는 텍스트의 읽기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대상 접속부사는 집합 관계를 드러내는 접속부사들이다.

① 실험의 설계

피험자: 중국에 있는 대학 3학년 학생 두 그룹을 선정하여, 한 그룹 15명은 접속부사가 있는 텍스트의 실험 집단으로 하고, 다른 그룹 15명은 접속부사가 없는 텍스트의 비교 집단으로 하였다. 이들 피험자들은 읽기 능력 검사 결과로 볼 때 대체로 미숙한 수준의 학습자들이었다.

검사 자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 읽기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읽기 능력을 고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 구조상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어서 접속부사 효과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인 피험자에게 이전에 학습한 적이 없는 새로운 텍스트이기 때문에 학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읽기 이해 결과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 문항의 선택은 본 연구에서 검사하고자 하는 접속부사가 사용된, 또는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접속부사가 있는 텍스트와 접속부사가 없는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접속부사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수정만 가하였다. 그러나 접속부사가 첨가 또는 삭제되었을 때에도 문맥의 흐름이나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명제간 관계의 추리에는 무리가 없는 부분을 선정하였다. 특히 접속부사가 없는 텍스트일 경우에도 텍스트 구조의 정확성

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락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텍스트의 의미 구조는 독자 수준에 비추어 복잡한 수준의 것이었다.

검사 항목 및 과제 제시 방법 : 검사 항목은 접속부사의 기능성을 보기 위해, 중심 내용 찾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내용의 복잡성으로 하여 여러 수준의 중심 내용이 설정 가능한 경우는 중심 내용의 수준을 지정하여 주었다.

검사 과정 : 문항들을 하나의 지면에 함께 제시하여 피험자들이 문제에 답할 때 원하는 경우 텍스트를 다시 읽을 수 있게 하고 검사 시간도 제한하지 않아, 피험자들이 충분히 읽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보다 정확한 읽기 이해 결과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결과

사전 검사한 읽기 능력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독해 결과를 평정하였다. 그 결과 접속부사가 있는 텍스트를 읽은 실험집단의 독해 결과가 비교집단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성 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읽기 이해력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한 문항 당 1점씩으로 계산하여 총1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모두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0점으로 처리하였다. 채점을 마친 두 집단의 점수를 SPSS 14.0의 독립표본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서 $F - value = 13.46$, $p = .0004$ ($p < .01$)의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각 문항별 그리고 접속부사 유형별로 검토해 보면 대립관계 접속부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 - value = 27.97$, $p = .0001$ ($p < 0.01$))

결과를 보면 접속부사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이러한 접속부사 효과를 텍스트의 복잡성 및 독자의 읽기

능력 수준과 관련지어 평가해 볼 때, 본 실험의 피험자들은 읽기 능력 검사에서 대체로 미숙한 독자들이고 또 본 실험에 사용된 텍스트는 조잡한 상술이 없는 명료한 텍스트로서 접속부사 효과가 강하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5-4> 접속부사 유무에 따라 이해력 점수 t-검정 결과

접속부사 유무	집단	N	평균	유의확률
유	실험 집단	15	6.95	.0001
무	비교 집단	15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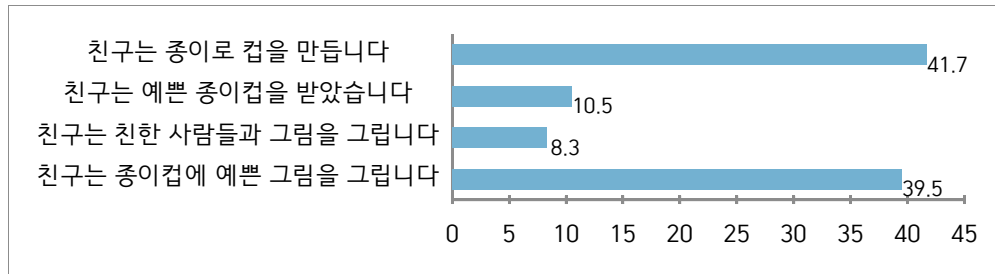
본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본 실험의 피험자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접속부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다양한 접속부사를 다 활용하지는 못하나, 접속부사로 인식한 경우에는 그 접속부사를 효과적으로 읽기 이해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실험의 시사점으로, 이들 피험자 수준에서는 접속부사 교육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접속부사에 대한 인식 및 접속부사의 활용을 읽기 이해 전략으로서 지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실험 집단의 읽기 테스트에서의 문항별 분석이다.

3.1. 나열관계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

읽기 이해 테스트: 문항 3

제 친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종이컵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게 종이컵을 선물합니다. 친구가 만든 종이컵은 세상에 하나만 있습니다. 친구의 종이컵은 참 예쁩니다.



<그림5-1> 응답률

이 문항은 학습자들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한 문항이다. 정답은 ④번인데 학습자들은 61.5%의 오답률을 나타냈다. 앞에 문법성 판단 테스트 결과 분석을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나열관계 접속부사 ‘그리고’, ‘또한’에 대한 이해 오류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접속부사의 분류에 따라서 나열관계에 속한다.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부사’라는 해석이 국어대사전에서 나왔는데 기본 의미로 나열을 많이 쓰이고 있다. 중국어 ‘和, 而且, 然後’ 등과 대응하는데 사실 ‘그리고’의 의미 자질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그리고’를 완벽하게 이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습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1과의 면담 자료 발췌

연구자: 你覺得‘그리고’連接的前後文關係是什麼? (‘그리고’가 연결하는 전후 문맥의 관계는 무엇인지 알아요?)

참여자1: 表示並列關係的內容, 相當於漢語的‘和’, ‘而且’(병렬관계가 나타나며 중국어의 ‘和’, ‘而且’와 비슷해요.)

연구자: 閱讀中你會利用‘그리고’推測出後面的內容嗎?(읽기에서 ‘그리고’를 통해서 뒤에 나올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요?)

참여자1: 我覺得‘그리고’只是個單詞, 推測出它後面的內容比較難(‘그리고’는 간단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내용을 추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자: 你能區分그리고和또한在文章中的意思嗎? (‘그리고’와 ‘또한’은 문장에서의 의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참여자1: ‘그리고’是與前文並列的關係, ‘또한’是補充說明的意思。(‘그리고’는 선행문과의 병렬관계가 나타나며, ‘또한’은 보충 설명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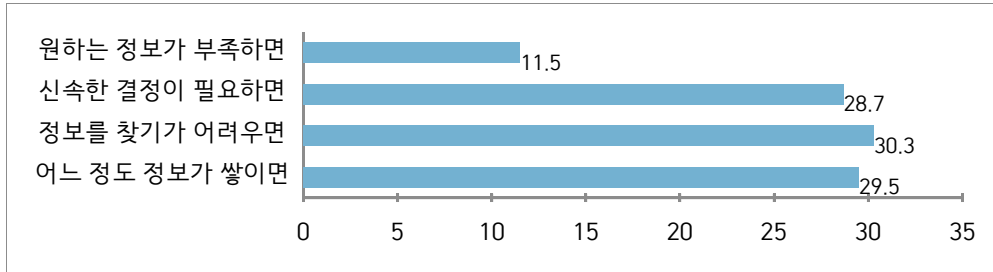
참여자1과의 면담 내용을 보면 학습자는 ‘그리고’에 대한 단순히 단어의 뜻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의 의미자질을 이해 부족으로 인해 문맥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학습자들은 ‘그리고’를 보면 뒤의 어떤 문맥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추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 ①선·후행절은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서 계기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 ②선행절과 후행절은 서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 ③선행절과 후행절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읽기 교육할 때 학습자에게 ‘그리고’와 같은 나열관계 접속부사의 의미 자질을 정확하게 교육시켜야 한다. 동시에 중국어의 대응표현과 비교해서 교육할 필요도 있다.

3.2. 인과관계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정보를 참고해서 결정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단을 내리기 위해 참고해야 할 정보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수집된 정보들 중에는 불필요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 정보 수집을 멈추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림5-2> 응답률

인과관계 접속부사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것이 근거가 되어 필자의 주장이 결과가 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 문항은 인과관계 접속부사 ‘따라서’ 뒤의 내용을 채우는 문항이기 때문에 우선 따라서 앞에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정답률이 29.5%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학습자들은 문맥 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면담 내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인과관계 접속부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지만 비슷한 인과관계의 접속부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 자질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 예를 들어, ‘그래서’는 단순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만 ‘그러므로’는 추론의 기능이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어의 인과관계 접속부사는 한 가지의 의미 자질만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 때문에 이해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참여자2과의 면담 자료 발췌

연구자: 你覺得‘따라서’後面通常接什麼麼樣的內容? (‘따라서’뒤에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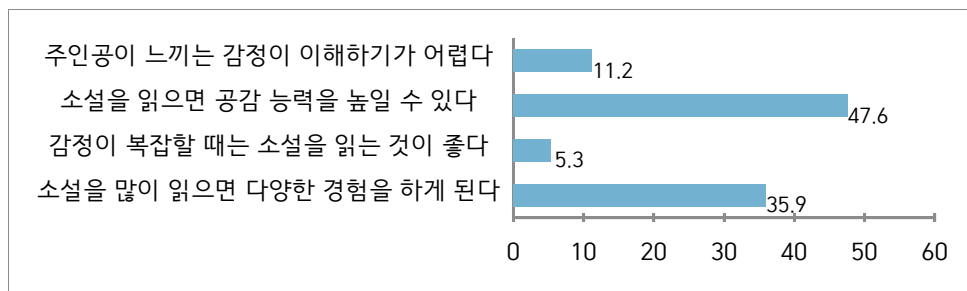
참여자2: 應該是結果(텍스트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연구자: 閱讀中你可以區分‘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等的區別嗎?(읽기에서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등의 의미 자질을 구분할 수 있어요?)

참여자2: 我覺得這幾個都是漢語的所以, 沒有什麼區別(중국어의 대응 표현은 모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타난 ‘所以’의 뜻이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3.3. 대립관계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감정이 메말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이 왜 우는지 왜 기뻐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한 권 두 권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 속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주인공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



<그림5-3> 응답률

대립관계 ‘그러나’와 ‘하지만’이 들어가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접속부사 앞뒤 내용은 상반된 내용인 것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 ‘읽다보면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의 내용은 정답인데 오답률이 52.4%로 나타났다. 면담을 통해서 학습자가 읽기 학습할 때의 문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3과의 면담 자료 발췌

연구자: 你閱讀是會使用連結副詞來推測上下文內容嗎? (읽기 연습할 때 접속부사를 통해서 전후 문맥의 내용을 추측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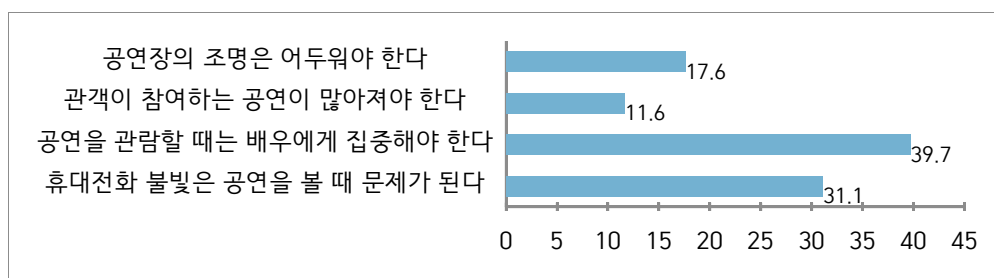
참여자3: 我一般推測不認識的單詞的內容, 對於上下文內容並沒有(나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추측하기를 좋아해요. 접속부사를 활용해서 전후 문맥의 관계를 파악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어요.)

여러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문법에 대한 숙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한

구절씩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의미를 파악하였는데 문법에 대한 어려움은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많은 학습자들은 어휘에 의존한 번역 중심의 읽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속부사를 활용해서 문장 분석하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3.4. 조건관계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 중 하나가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다. 공연 중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어두운 공연장에서 휴대전화의 불빛이 또 하나의 조명이 된다. **그러면** 관객들은 배우가 아닌 그 불빛을 쳐다보게 되어 공연에 집중할 수 없다.



<그림5-4> 응답률

이 문항의 정답은 ④번이며 정답률은 31.1%에 불과했다. 학습자들은 조건관계 접속부사 ‘그러면’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글의 전체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휴대전화의 불빛은 공연을 볼 때 문제가 된다’의 내용은 글의 중심 내용인 것을 판단이 될 것이다.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접속부사의 통합적 교육의 방법이 된다. 접속부사가 문맥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면 보다 주제 및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진다. 먼저 접속부사에 밑줄을 긋고, 텍스트 전체의 내용 흐름을 파악한다. 순접이 이어지는지 역접이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접속부사 후행 문장을 따라가며 내용을 이해한다.

IV. 중국인 학습자의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앞서 접속부사와 읽기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접속부사와 읽기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이는 접속부사 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육의 수행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향식 읽기 전략을 이용하여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의 수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읽기 전략 수업은 학습자가 전략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읽기 전략을 활용한 교수-학습모형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접속부사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접속부사와 읽기의 통합 교육은 ‘읽기와 접속부사’의 관계에서 교육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접속부사가 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성’이라는 말은 접속부사의 특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텍스트는 표현과 이해를 통해 학습되는 ‘언어 자료’이므로, ‘읽기’와 ‘쓰기’ 혹은 ‘듣기’와 ‘말하기’ 활동이 없이 텍스트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에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표현과 이해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접속부사의 ‘텍스트성’을 요긴하게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읽기와 쓰기를 위한 접속부사의 사용, 접속부사 사용을 통한 텍스트 이해와 표현 능력의 향상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접속부사의 통합 교육이 설정하는 교육의 결과이며 지향하는 바이다.

4.1.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학습한 접속부사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문장 연결체와 맥락 구성체로서의 기능을 학습하도록 한다. 문장 연결체를 접속부사의 형식적인 연결로, 맥락 구성체를 내용의 연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텍스트를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접속부사의 기능을 학습하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 구성과 함께, 접속부사 사용 시 나타나는 오류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그런데’와 ‘그러나’의 관계를 포함하는 관계 구분의 문제가 내용상 빈도수가 높은 오류이다. 전자의 관계의 구분은 접속부사의 유형의 도식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고, 후자의 호응의 문제도 완결된 텍스트(한 문장)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범위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항목화하여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한다.

접속부사를 활용해서 읽기 교육하기 위해서 매개체가 되는 것이 ‘텍스트’이다. 교육과정에 맞추어 다양한 텍스트를 선별하여 접속부사의 교육을 실행하는 것도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텍스트의 종류를 연계하여 학습하고, 가능한 통합 교육 방법을 유형화하도록 한다. 다양한 텍스트 안에서, 그 기능이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 교육 방법을 모색한다.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접속부사의 유형별로 나누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4.1.1. 나열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나열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을 제시하려면 학습자들에게 먼저 접속부사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나열관계 접속부사 중 가장 대표적인 접속부사는 ‘그리고’이다. 여기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읽기 교육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는 접속부사의 분류에 따라서 나열관계에 속한다.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부사”라는 해석이 국어대사전에서 나왔는데 기본 의미로 나열이 많이 쓰이고 있다. 중국어 ‘和, 而且, 然後’ 등과 대응하는데 사실 ‘그리고’의 의미 자질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그리고’를 완벽하게 이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그리고’를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한다.

1)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열이 나요.

⇒ 접속부사 ‘그리고’로 연결된 두 문장은 나열된 문장이 된다. 이 두 문장은 ‘B+A’와 같이 앞뒤를 서로 바꿔 써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 나열의 의미를 강조할 때에는 강조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도’를 써서 ‘그리고 열도 나요.’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를 나열하는 의미로 처음 제시할 때에는 두 번째 예문과 같이 구성된 문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동사로 제시할 경우 ‘밥을 먹어요. 그리고 잠이 와요.’는 어떤 일이 시간적 순차에 따른 연결(그리고 나서)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와 결합되는 형용사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 ‘형용사+동사’ 또는 ‘동사+동사’를 제시하면서 ‘도’를 함께 지도하면 나열의 의미가 훨씬 더 쉽게 전달될 것이다. 다음 예문에 살펴보겠다.

2) 운동해요. 그리고 샤워해요.

비가 그쳐요. 그리고 해가 나요.

⇒ ‘그리고’로 연결된 문장은 첫 번째 예문과 같이 앞 절의 동작 이후에 뒤 절의 동작이 이어지거나, 또는 두 번째 예문과 같이 앞 절의 상태가 뒤 절에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이때 ‘그리고’로 연결된

두 문장은 앞뒤를 서로 바꿔 썼을 때(예: 샤워해요. 그리고 운동해요.) 동일한 의미가 되지 않는다. 이때 ‘그리고’는 시간의 순차적인 연결의 의미가 있으므로 ‘그리고 나서’로 해석된다. ‘그리고’의 의미가 나열과 시간의 순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뉘는데,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문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나열의 의미로 쓸 때 두 문장의 연결을 ‘A+B’한 것과는 달리 시간의 순차성의 의미로 쓸 때에는 ‘그리고’의 앞 문장과 뒤 문장에 시간을 써서 순차적인 의미로 강조하고 교사가 ‘그리고 나서’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4.1.2. 인과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배울 때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문법 항목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나타낸다. ‘그래서’는 인과관계에 속하는 접속부사인데 인과관계 접속부사에 속하는 다른 하나인 ‘그러니까’와 문법적으로 비슷하게 보인다.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와 ‘그러니까’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모두 ‘所以’인데 학생들은 이 두 접속부사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래서’의 의미 자질에 중점을 두고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피곤해요.

⇒위의 예문은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피곤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두 문장이 ‘그래서’에 의한 문장으로 연결되고 쓰인다. 중국어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절이 앞 절이나 뒷 절 어느 곳에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몇몇 중국어 화자는 간혹 ‘피곤해요. 잠을 못 자서’라고 말하는 학습자도 있다. 물론 이 문장도

구어체에서는 의미가 통하나 ‘그래서’가 쓰인 문장 구조 이해를 지도할 때에는 원인이 결과 앞에 오는 것으로 가르쳐야 한다. 위와 같이 두 문장이 ‘그래서’로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줘서 원인 해당하는 절에 위치한다는 것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

2)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게요. (X)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게요. (O)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있는 ‘그래서’는 뒷 절에 평서문이 올 때 ‘그러니까’와 바꿔 쓸 수 있으나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예문에서와 같이 뒷 절에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으)르게요’가 쓰였을 때 앞 절에 ‘-아/어서’를 쓰면 자연스럽지 못하며,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이유를 밝히는 ‘그러니까’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와 ‘그러니까’의 의미는 미묘하게 차이가 나나, 이 의미 차이를 초급 수업에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초급 수업에서 이런 차이를 중국인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학습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교사가 적절한 예문을 선정할 때 ‘그래서’는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을 둔 인과관계로, ‘그러니까’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을 넣어 말하는 이유로 상황을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초급에서는 ‘그래서’와 ‘그러니까’의 의미가 같다고 제시하고, 많은 읽기 텍스트를 접한 중급 이후에 중국인 학습자가 어색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런 차이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래서’는 주로 원인 의미로 나타내는데 ‘단순의 원인’이나 ‘보편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인과관계’ 혹은 ‘공손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인과관계로 나타내는 ‘그래서’는 중국어 連詞인 ‘所以’와 대응한다. 그리고 ‘그래서’가 연결된 앞뒤 두 문장에서 앞선 행위나 상태가 원인이나 이유가 될 때 뒤 문장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쓸 수 없다. 또한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등

과 함께 자주 쓰이는 인사말 등 공손한 표현과 같은 경우에 ‘그래서’를 쓰인다. ‘그래서’의 사용 양상을 잘 습득하면 읽기 이해에도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읽기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접속부사에 용법에 대한 학습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

4.1.3. 대립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대립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접속부사의 의미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대립관계의 대표적인 접속부사 ‘그런데’를 교육시킬 때 한국어의 대립관계와 중국어의 대립관계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대립], [전환], [양보], 그리고 [대조]의 변별적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않아도 모국어로서 내재적 직관력에 의해 문맥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거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할 줄 안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이들이 변별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김미선(2001)에 따라서 [전환], [대립], [대조], 그리고 [양보] 관계의 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전환: 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내용으로 화제를 바꾸는 것.
- ②대립: 전술한 내용에 대해 후행문에서 반대의 사실을 진술하는 관계.
- ③대조: 앞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내용이 반대되거나 모순되어 서로 대비되는 관계
- ④양보: 전술한 내용에 대해 일단은 인정해 주고 후행문에서 그 반대의 사실을 말하는 것.

위의 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그런데’의 의미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접속부사 ‘그런데’는 선행문의 내용이나 화제를 후행문에서 바뀔을 나타낸다. ‘그런데’는 접속부사로서 기본적으로 전환 의미로 사용되는데 중국어 轉折連詞에 속하는 ‘可是, 但是, 而’와 대응한다. ‘그런데’는 전환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대

조], [양보], [기대 부정], [정정] 그리고 [설명] 등 의미도 가지고 있다.

예: 1) 요즘 일이 바빠요. 그런데 오늘은 안 바빠요.

⇒ ‘그런데’ 는 앞 절과 반대되는 내용을 뒷 절에서 이어 말할 때 쓴다.
‘그런데’ 을 중심으로 하여 앞 절과 뒷 절은 ‘요즘’ 과 ‘오늘’ , ‘바빠요’ 와 ‘안 바빠요’ 로 내용상 대비된다. 대비되는 것을 강조하려면 ‘요즘’ 과 ‘오늘’ 뒤에 ‘-은/는’ 을 써서 ‘요즘은’ 과 ‘오늘은’ 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의 의미를 연결된 문장에서 도출하려면, 이전 학습에서 접속어를 사용하여 짧은 문장들이 연결되는 것을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연습이 선행되었다면 접속어로 연결되는 복문을 연습할 때 중국인 학습자가 의미를 쉽게 이해한 상태에서 활용 방식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4.1.4. 조건관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

‘그러면’ 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부사” 혹은

“앞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접속부사” 라고 국어대사전에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 은 중국어 連詞인 ‘那, 那麼’ 와 대응한다.

1) 이길을 따라 가봐, 그러면 목적지가 나올 것이다

(順著這條路走下去, 那麼就會到達目的地的。)

2)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다 맹목적인 것이다.

(不能把握實際情況, 那麼無論怎麼做都是盲目的。)

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러면’ 과 ‘那, 那麼’ 가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면’의 의미 기능과 사용 제약을 중점을 두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활용 전략을 통해서 이해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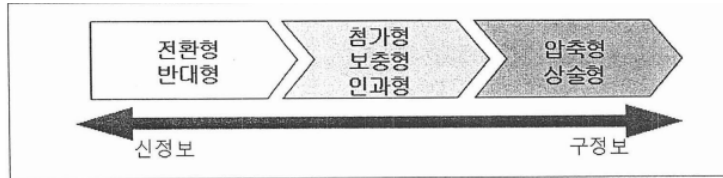
4.2.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의 사례

4.2.1.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 모형

<표6-1> 접속부사 지도 모형

1단계: 접속부사 인식하기
-텍스트를 읽고 접속부사 찾아내기
2단계: 전형적 구실 익히기(미시 구조: 문장 접속)
-텍스트를 읽고 선, 후행 문장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문장과 문장 사이의 빈칸에 적절한 접속부사 채워 넣기
3단계: 확장된 구실 익히기(거시 구조)
-텍스트를 읽고 화제의 흐름을 도식화하기
-텍스트를 읽고 접속부사에 유의하여 의미 구조도 그려보기
4단계: 정착시키기
-텍스트를 읽고 접속부사에 유의하여 중심 내용 요약하기
-접속부사의 의미와 기능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읽기 전체 글에서 문단을 명시적 구조로 구분할 때 각각의 문단 안에서 등장하는 접속부사 횟수는 다양하다. 단 하나의 접속부사도 등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2~3개 이상의 접속부사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접속부사의 중심의 글 읽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접속부사가 전체적 흐름을 주도하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다양한 접속부사 중에서 중요도를 판정한다는 것이다.



<그림6-1-1> ‘정보의 신-구’에 따른 접속대상 분류³⁸⁾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접속부사의 분류를 체계화하여 어떤 유형이 다른 유형들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정보와 후행정보의 비교를 통하여 체계화하였다. 윤효숙(2006)에서 도식화한 것은 <그림6-1-1>와 같다.

접속부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문단의 제일 앞에 위치하는 접속부사는 선행문단과 후행문단을 연결하는 것이다. 또 한 문단 안에서도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선행내용과 후행내용이 달라지는 ‘전환형³⁹⁾’을 나머지 종류보다 우선시한다. 또한, 앞의 내용을 간결하게 하는 ‘요약형’과 ‘상술형’, ‘첨가형’ 보다는 ‘반대형’의 접속부사를 우선시한다. 즉 구 정보를 구별하여 접속부사의 중요도를 구별한다.

예8>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유리 상태를 심화시키는 데에 과학 내용의 어려움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과학에 관해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이다. 흔히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과학의 책임인 것으로 생각한다. 즉, 과학이 인간의 운

38) 윤효숙(2006) 참조.

39) 전환형 접속부사: 그런데, 그러면, 어쩌든 등
반대형 접속부사: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등
첨가형 접속부사: 그리고, 또한, 게다가 등
압축형 접속부사: 즉, 말하자면 등
상술형 접속부사: 예컨대, 즉, 말하자면 등
인과형 접속부사: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등
보충형 접속부사: 만약, 특히, 더욱 등

리나 가치 같은 것은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발전해서 많은 문제들--

위의 문단에서는 접속부사가 둘 등장한다. 접속관계 중요도 분석은 우선 문단 앞에 위치하는 ‘그러나’는 선행문단과 후행문단을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 문단을 보지 않아도 접속부사 자체의 논리적 의미로 반대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즉’은 문단 내부에 위치하여 문장 간의 연결을 이어주는 것이므로 문단 내용을 요약하는데 필요한 접속부사로 각각의 기능을 알 수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앞의 예시처럼 한 문단 내에 같은 형태의 접속부사가 두 번 이상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후행하는 접속부사의 중요도를 우선시한다.

위에 제시한 접속부사의 지도 모형을 참고하여 접속부사를 활용한 실험 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읽기 전 단계

- ① 종류에 따라 접속부사에 대한 명시적 제시 및 설명
여기서 앞에 2장에서 제시한 나열관계, 인과관계, 대립관계, 조건관계 4가지의 종류대로 학습자들에게 학습시킨다.
- ② 접속부사 기능 학습: 학습할 접속부사 기능 익히기
- ③ 접속부사 및 내용 예상하기: 제목으로 접속부사 예측
- ④ 접속부사 읽기 전략 교사 시범 보이기

(2) 읽기 중 단계

- ① 글을 훑어 읽으면서 접속구조 파악하기
- ② 접속부사에 표시해 보기(밑줄 긋기)
- ③ 접속부사를 활용해 문장 간 관계를 따져 중심 내용 및 세부 정보 파악

악하기

④ 접속부사 빈칸 채우기

(3) 읽기 후 단계

① 접속부사 대체하기

②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요약하기 및 이에 대해 반응하기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향식 읽기 전략의 원리를 이용하여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의 수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읽기 전략 수업은 학습자가 전략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고에서의 읽기 전략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접속부사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접속부사의 지도 순서에 대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접속부사 중심의 방법들을 세 단계로 ‘글의 내용 파악하기’와 ‘논리구조 파악하기’, ‘개요 만들기’로 정리할 수 있다. 글의 내용 파악하기, 논리 구조 파악하기, 개요 만들기의 활동들은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분리되어 순차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독자는 읽기에 능숙한 독자가 아니므로 상향식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읽기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지도 순서에 있어서도 내용 파악하기, 논리 구조 파악하기, 개요 만들기 순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학습자는 아직 미숙한 독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도 되었을 때 비로소 능숙한 독자가 되어 동시적 사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속부사 중심의 읽기 모형은 <그림6-2>과 같다.

<표6-2>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수업의 단계별 내용

읽기 전 단계	접속부사 유형 제시(교사), 접속부사의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교사), 기능별로 접속부사를 분류하는 활동 진행(교사와 학생 전체), 텍스트 구조, 내용 등을 예측하기(학생 전체)
읽기 중 단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교수-학습, 훑어 읽기를 통해 접속부사를 찾기(소그룹 활동), 찾은 접속부사의 중요도 판별(교사-시범-소그룹 활동), 접속부사를 이용하여 요약하기(교사 시범-소그룹 활동), 접속부사를 통해 논리구조 도식화하기(소그룹 활동), 중심 내용 파악하기(개별 활동)
읽기 후 단계	정리하기, 과제 부여

위의 단계별 내용에 따라 접속부사를 활용한 실제 수업의 한 실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6-3> 수업 구성 및 과정

읽기 전 단계	도입	동기 유발 및 개관	<질문하면서 흥미 유발>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를 암시한다 주제를 보고 접속 구조 유형을 추측하여 내용을 예상해본다. (유래와 절차라는 어휘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나열관계 유형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나열관계 유형에는 어떤 접속부사들이 있는가 칠판에 나열관계 유형 접속부사를 적는다.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에 대한 교사 시범(짧은 지문을 들어 설명 전략 지도 설명)	접속부사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주기
	제시	접속부사 제시		
읽기 단계	본문 내용	내용 이해하기	-훑어 읽기를 하면서 접속 구조 파악하기 -나열관계 유형(또한, 또 등을 통해 나열관계 유형임을 확인할 수	

			<p>있다)</p> <p>-접속부사에 밑줄 긋기</p> <p>-접속부사를 활용해 문장 간의 관계를 따져가며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p> <p>-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 내용을 파악해 본다.</p> <p>-본문에 나온 질문을 말하거나 답을 찾도록 한다.</p> <p>-돌 음식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p> <p>-돌잡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합니까?</p>	
읽기 후 단계	활동	읽기 후 활동	<p>-본문에 나온 접속부사를 대체하기 연습 (‘또한, 또’ 를 첫째, 둘째, 셋째로 바꿀 수 있다.)</p> <p>-중국의 돌잔치를 소개하기 (지역별로 그룹을 지어서로 소개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p>	
	마무리	확인 및 정리	<p>-학습자 활동 내용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을 한다.</p> <p>- ‘나열관계 유형의 주제를 만들어 보기’ 라는 과제를 주고 다음 시간에 발표하기로 해본다.</p> <p>예를 ‘면접을 보는 요령’ , ‘잡채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p>	

수업 예시

읽기 전 단계:

(1) 접속부사 유형 제시: 먼저 읽기 텍스트에서 나타난 접속부사를 제시한다.

(2) 접속부사의 기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기: 학생들에게 접속부사는 인과, 조건, 대립, 전환, 부가/나열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3) 접속부사를 기능별로 분류하는 활동 진행하기: 학생들로 하여금 텍스트에서 나타난 접속부사를 기능별로 분류하게 한 후 그것을 표로 작성하게 한다. 교사가 정확한 분류를 제시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의 제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

(4) 텍스트 구조, 내용 등을 예측하기: 학생들로 하여금 제목이나 교사의 간단한 도입을 통하여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

예시:

<p>‘고맙습니다’ 혹은 ‘미안합니다’와 같은 인사말은 나라마다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이런 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하고 있다. <u>그런데</u> 그런 인사말을 사용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중략) <u>그러나</u>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가 변화해 가면서 이런 인사말을 말로 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윗 사람도 어떤 잘못 된 일이 생기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다. <u>그래서</u> 그런지 요즘은 길에서 부딪치거나 지하철에서 발을 밟히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기대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연세한국어읽기3, 제9과></p>		

의미 제시:

분류	의미	접속부사
나열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한다.	그리고
대립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낸다.	그런데
인과	앞문장이 뒷문장의 원인이나 근거로 된다.	그래서

읽기 중 단계:

① 훑어 읽기를 통한 접속부사 찾기: 먼저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리고 훑어 읽기를 하면서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나누게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각 문장 맨 앞에 접속부사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게 한 후 위의 예시처럼 밑줄로 접속부사를 표기하게 한다.

② 찾은 접속부사의 중요도 판별: 하나의 텍스트에는 항상 여러 가지 접속부사가 있다. 이때 그 중에서 전체 텍스트의 흐름을 주도하는 접속부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는 접속부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부사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과 약이 많을수록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접속부사의 다섯 개 기능을 보면,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 뒤에 오는 내용은 앞에 없는 내용이므로 다른 접속부사보다 중요도가 높다. 따라서 한 문단에서 대립접속부사는 나머지 종류보다 우선시 되어야한다. 교사는 이러한 판별 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읽기 자료에 나타난 접속부사의 중요도를 판별하게 한다.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접속부사를 다룬 문장을 고르면서 글의 내용을 다시 추측하게 하는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럼 아래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가 변화해 가면서 이런 인사말을 말로 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인사말을 사용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 추측:

㉔ 텍스트는 인사말에 관한 내용이다.

㉕ 한국에서는 옛날에 ‘고맙습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는 인사말을 자주 쓰지않았다.

㉖ 인사말을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③ 접속부사를 이용하여 요약하기: 문단에서 찾은 모든 접속부사가 다루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교사가 먼저 시범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요약하게 한다. 접속부사가 없는 경우에는 간단한 추론을 통하여 접속부사를 첨가시키는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

예시:

앞문장과 뒷 문장을 ‘그런데’ 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인사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다르다’ .

④ 접속부사를 통해 논리 구조를 도식화하기: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텍스트의 논리구조를 파악하고 도식화한다. 도식화는 개요 만들기의 형식으로 해도 되고 구조도의 형식으로 해도 된다. 논리 구조의 일반적인 틀은 ‘서론-본론-결론’ 인데 ‘문제제기-주장과 근거제시-정리와 강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중심 내용 파악하기: 학생들로 하여금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개별 활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학생들과 서로 평가하고 토론하게 한다. 그리고 교사가 제시한 참고 답안에 따라 그 정확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읽기 후 단계:

① 정리하기: 배운 내용을 정리한 후 질문을 통하여 읽은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결과를 확인한다.

② 과제부여: 다른 텍스트를 내주고 접속부사를 활용한 다양한 읽기 훈련을 시킨다.

위에서는 주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의 한 실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읽기 전략의 지도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인지적 읽기 전략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인지적 전략과 보상적 전략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국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2.2. 접속부사 활용한 읽기 수업 모형의 효과 검증

4.2.2.1. 실험 내용 및 참여자 선정

본 연구 실험 집단은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에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예비 실험 수업⁴⁰⁾을 실시한 후에 사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실험 평가를 위해 사전·사후 테스트지 두 표본을 가지고 신뢰도 및 분석을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

서울 소재의 S대학교와 Y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로 한국어능력시험 급수가 3급, 4급이 되는 중급 수준의 중국인 유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17명의 중국인 학습자이다.

(2) 측정 도구

측정 도구로는 첫째, 사전·사후 테스트로는 총 20문항으로 34회에서 52회까지의 TOPIK⁴¹⁾의 기출 문제를 사용하였으며 사전·사후 테스트용 읽기 평가지 세부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둘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 자료로는 현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중급 교재 I 읽기 텍스트를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실험 분석으로는 학습자의 읽기 정확도를 사전·사후 테스트 두 표본을 가지고 신뢰도 및 분석을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40) 수업 2회, 각 50분

41) 개편 후의 한국어능력시험

사전·사후 테스트 평가지 세부 항목

독해기능	세부항목	문항수
주제 및 중심 생각 파악하기	제목 붙이기	3
	중심 생각 파악하기	3
내용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3
	읽고 이유·목적·근거 파악하기	3
글의 맥락 및 흐름(순서) 파악하기	순서 파악하기	3
	문맥에 맞는 말 넣기	3
	글의 유형 특성 파악하기	2
합 계		20

4.2.2.2. 테스트 절차 및 지도 절차

(1) 테스트 절차

- ①집단 선정
- ②사전 테스트 실시
- ③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실험 수업
- ④사후 테스트 실시

(2) 읽기 수업 지도 절차

가. 읽기 전 단계

- (1) 종류별로 접속부사에 대한 명시적 제시 및 설명
- (2) 새로운 어휘 학습
- (3) 접속구조 및 내용 예상하기

나. 읽기 단계

- (1) 글을 훑어 읽으면서 접속구조 파악하기
- (2) 접속부사에 표시해 보기
- (3) 접속부사를 활용해 문장 간 관계를 따져 중심 내용 및 세부 정보 파

악하기

다. 읽기 후 단계

(1) 접속부사 대체하기

(2) 글에 제시된 정보를 평가하거나 이에 대해 반응하기

4.2.2.3. 사전·사후 테스트 평가 분석

(1) 신뢰도 분석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 항목 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간 유의확률이 .05($p>.05$)보다 크므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표6-5> 신뢰도 분석

독해기능	신뢰도
주제 및 중심 생각 파악하기	.59
내용 파악하기	.692
글의 맥락 및 흐름(순서) 파악하기	.5650

(2) 사전·사후 효과성 비교

① 사전평가지

사전 평가의 목적은 실험 학습자들이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이 읽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습자 수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전평가지의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전평가지 문항 예시

I. 제목 붙이기

텔레비전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장점에 비해 단점도 적지 않다. 텔레비전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전은 나쁜 친구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며, 가족 간의 대화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사고와 상상의 기회를 빼앗아 사고의 성숙을 방해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친 행동을 따라하게 될 위험성도 많다.

1. 다음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성공과 실패의 기준
- ②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
- ③ 성공한 사람들의 목표
- ④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2.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텔레비전, 낭비 심해
- ② 텔레비전, 장점 많아
- ③ 텔레비전, 멀리해야
- ④ 텔레비전, 가족과 함께

(1) 주제 및 중심 생각 파악하기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이 글의 주제 및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제 및 중심 생각 이해 영역

독해기능	구분	M ⁴²⁾
중심 생각 파악하기	사전	1.75
	사후	2.78
제목 붙이기	사전	1.21
	사후	1.97
주제 파악하기	사전	1.68
	사후	3.57

주제 및 중심 생각 이해 영역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사전에 비해 사

42) M: 정답률 평균점

후의 점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중심 생각 파악하기’ 항목의 사전 평균점이 ‘1.75’ 에서 사후 평균점 ‘2.78’ 으로 높아졌으며 이것은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남으로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제목 붙이기’ 항목에서는 사전 평균점 ‘1.21’ 에서 사후 평균점 ‘1.97’ 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 및 중심 생각 파악하기’ 전체 항목의 평균은 사전 평균점 ‘1.68’ 에서 사후 평균점 ‘3.57’ 로 높아졌으며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2) 내용 파악하기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용 이해 영역

독해기능	구분	M ⁴³⁾
세부 내용 파악하기	사전	1.41
	사후	1.56
읽고 이유·목적·근거 파악하기	사전	1.99
	사후	1.78
내용 파악하기	사전	2.34
	사후	2.77

글의 내용 이해 영역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세부 내용 파악하기’에서는 사전 평균점이 ‘1.41’ 에서 사후 평균점 ‘1.56’ 로 높아졌으며 ‘읽고 이유·목적·근거 파악하기’에서는 사전 평균점 ‘1.99’ 에서 ‘1.78’ 로 낮아졌다. 또한 ‘내용 파악하기’ 전체 항목에서 사전 평균점 ‘2.34’ 에서 사후 평균점 ‘2.77’ 로 높아졌다.

43) M: 정답률 평균점

(3) 글의 맥락 및 흐름(순서) 파악하기

글의 맥락 및 흐름(순서) 영역

독해기능	구분	M ⁴⁴⁾
순서 파악하기	사전	0.98
	사후	1.72
문맥에 맞는 말 넣기	사전	1.11
	사후	1.34
글의 유형·특성 파악하기	사전	0.64
	사후	0.95
글의 구조 및 맥락 파악하기	사전	2.23
	사후	3.48

글의 맥락 및 흐름 순서 영역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순서 파악하기’ 항목에서 사전 점수 ‘0.98’에서 사후 점수 ‘1.72’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그 효과성이 나타났다. ‘문맥에 맞는 말 넣기’에서는 사전 평균점 ‘1.11’에서 사후 평균점 ‘1.34’로 평균값이 증가하고, ‘글의 유형·특성 파악하기’에서는 사전 평균점 ‘0.64’에서 사후 평균점 ‘0.95’로 평균값은 높아졌다.

(4) 결과 및 분석

위의 실험을 결과 분석으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이 주제 및 중심 생각 파악하기, 글의 맥락 및 흐름(순서) 파악하기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3) 사후 설문 조사 및 사후 인터뷰 결과

다음으로는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후 설문조사에서 ‘접속부사를

44) M: 평균점

활용한 읽기 전략의 효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물어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사후 설문 조사의 주관식 문항을 통해 접속부사 활용 읽기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조사한 것과, 학습자 2명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설문 조사에서 ‘접속부사 활용 읽기 전략의 효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물어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6-3>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방법의 효과

문항 내용	답	인원	비율
1.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4	28%
	그렇다	7	46%
	매우 그렇다	4	26%
	그렇지 않다	0	0%
2.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때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3	20%
	그렇다	11	73%
	매우 그렇다	1	7%
	그렇지 않다	0	0%
3.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중심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3	20%
	그렇다	8	53%
	매우 그렇다	4	27%
	그렇지 않다	0	0%
4.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글의 순서나 앞뒤 내용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7	46%
	그렇다	3	20%
	매우 그렇다	5	34%
	그렇지 않다	0	0%
5.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추측하면서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보통이다	4	27%
	그렇다	6	40%
	매우 그렇다	5	33%
	그렇지 않다	0	0%

<표6-3>을 통해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접속부사 활용 전략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문항(1)은 ‘그렇다’가 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가 26%, ‘보통이다’가 28%로 나타났으며,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때 도움이 되었다’ 문항(2)는 ‘그렇다’가 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가 7%, ‘보통이다’가 25.0%로 나타났다.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중심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문항(3)은 ‘그렇다’가 53%, ‘보통이다’가 20%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가 53%로 나타났으며,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글의 순서나 앞뒤 내용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문항(4)는 ‘보통이다’가 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가 34%, ‘그렇다’가 20%로 나타났다.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추측하면서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문항(5)는 ‘보통이다’가 27%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가 33%, ‘그렇다’가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부사 활용 읽기 방법에 대한 주관식 응답 결과

문항	응답
이 수업의 좋았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 속도가 빨라졌다. -읽기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험 볼 때 항상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 읽기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졌다. -글의 중심 생각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읽기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게 되었다. -글을 빨리 읽어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해서 빠르게 훑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 밑줄 긋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읽기를 할 때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글을 정확하게 읽게 되었다. -어휘 실력이 늘었다. -수업에서 배운 읽기 방법은 앞으로 학문적 공부에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수업의 안 좋았던 점	-수업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수업이 좀 빨리 진행된 것 같다. 수업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배운 접속부사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접속부사의 기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 수업의 어려웠던 점	-수업 때 읽었던 글이 평소에 읽던 것보다 길고 새로운 단어들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접속부사의 기능이 많아서 다 외우기가 좀 부담스러웠다.
제안	-이런 읽기 수업은 평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수업 때 중국어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읽기 수업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별 수업이 따로 생겼으면 좋겠다. -수업 때 읽기 시간을 좀 더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다. -수업 때 배운 읽기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다양한 내용의 글로 연습했으면 좋겠다.

지면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적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실험집단에서 사전-사후 간에 점수 향상 폭이 컸던 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들은 학습자의 의견은 다음 표와 같다.

접속부사 활용 읽기 수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문항	응답
이 수업의 좋았던 점	-배운 읽기 방법이 도움이 많이 되고 실용적이다. -접속부사를 사용하며 읽으니까 읽기 속도가 빨라졌다. -글의 중심 생각 찾기, 모르는 단어 추측하기 등에 도움이 되었다. -읽기 시험 보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다. -글을 수동적으로 읽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많이 사용하는 접속부사를 표로 정리해 제시해줘서 머리에 잘 들어왔다.
이 수업의 안	-수업 시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좋았던 점	-수업 때 필요하면 중국어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수업의 어려웠던 점	-접속부사를 이해하는 것은 쉬우나, 사용하는 것은 아직 어렵게 느껴진다.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제안	-더 재미있는 내용의 텍스트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최근의 신문 텍스트, 소설 등) -접속부사가 알맞게 사용된 더 다양한 글을 읽고 싶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깐 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과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깐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추측하면서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된다는 문항도 긍정적인 응답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느끼는 효과와 독해 검사에서 드러나는 실제 읽기 이해력에는 동일하다. 학습자들이 느끼는 접속부사 활용 전략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후 설문 조사의 주관식 문항과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수업의 좋았던 점에 대해서는 읽기 속도가 빨라진 것, 중심 생각을 쉽게 찾게 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수업의 안 좋았던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또한 배운 접속부사를 연습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의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읽기 텍스트가 평소에 읽던 것보다 길고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접속부사가 다양하게 사용되면서도 완결성을 가진 텍스트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텍스트가 다소 길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텍스트의 길이와 난이도에 대해서는 더욱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특정 접속구조의 표지어를 학습할 때, 여러 읽기 텍스트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각 접속부사 기능별로 수업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제시되는 텍스트는 보다 쉽고 간단하면서도 접속부사가 전형적으로 사용된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의 텍스트에서는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더 좋은 수업을 위한 학습자들의 제안을 살펴보면,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방법과 내용은 도움이 되었으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국에서 한국어교육기관의 정규 학기 과정 중에 이 수업을 다루다보니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나, 더욱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더 다양한 내용의 글로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내용의 다양한 읽기 텍스트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읽기능력 향상을 위한 상향식 읽기 전략으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을 제안하고 실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접속부사가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재 6권을 선정하여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접속부사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그다음에 접속부사와 읽기 이해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한 읽기 수업을 준비단계, 읽기 전 단계, 읽기 중 단계, 읽은 후 단계로 나눈 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수업의 한 실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수업이 효과가 있는지를 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1970년대 이후 언어교육에서 의사소통적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언어교육의 내용도 언어에 대한 지식 중심에서 언어의 직접적인 사용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도 1990년대부터 의사소통 접근법에 따른 통합식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교육적 흐름 속에 언어의 4가지 기능 중 듣기, 말하기가 중심이 되고 읽기, 쓰기는 비교적 수동적인 이해의 측면,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다른 언어기능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읽기 교육은 학습자의 한국어의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의 수동성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읽기 학습 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효율적인 읽기의 중요한 단서로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읽기는 단어와 문법 규칙만으로 문장과 글의 전체 내용이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할 때 효과적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읽기 지도를 할 때 글이 가지고 있는 구조 및 맥락 이해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접속부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전략을 통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세웠다.

- (1)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이 글의 주제 및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는가?
- (2)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이 글의 맥락 및 흐름(순서)을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는가?
- (3)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접속부사가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가?
- (4)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 교육용 접속부사의 목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5)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수업은 읽기 학습에 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고자 먼저 학습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접속부사에 관한 활용도 및 읽기 수업 실태와 문제점, 효용성에 관해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분석 자료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접속부사의 활용한 읽기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 교사와 학생 양쪽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둘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학습의 적절한 교육적 시기로 중급 단계로 교사 의견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셋째, 현행 읽기 수업의 문제점으로 교사들의 응답에서 읽기 전략에 관한 교수 부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의 교육적 효용성으로 ‘글의 맥락 및 흐름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로 교사와 학생 응답 내용이 일치했다. 위의 네 가지를 근거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이 읽기능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과제를 검증하고자 실험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연구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어 읽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사후 테스트를 통해 집단 간 읽기 정확

률의 향상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사후 평가에서 큰 폭의 향상을 보여 교육의 효과를 분명히 하였다.

둘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이 글의 주제 및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사전·사후 테스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셋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어 읽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이 맥락과 흐름(순서)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한국어 읽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접속부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효과성 부분에는 글의 내용, 글의 맥락 및 흐름(순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실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 학습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전략의 단계적 지침이나 범주에 대한 교수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읽기 기능뿐만 아니라 쓰기 기능과 연계한 접속부사를 활용한 교수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습자’라는 양 측면에서 접속부사에 관한 인식 및 읽기 수업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것과 효율적 읽기의 중요성에 입각한 학습자의 능동성을 고려한 연구이다. 또한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지도 전략 방법론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어 읽기 교수·학습의 교육적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한국어 교재 및 사전

- 북경대학교 외(2001), 『표준한국어2, 3』, 北京大學出版社.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2A, 2B, 3A, 3B』, 문진 미디어.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12), 『서강한국어2, 3』, 국제문화교육원.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민현식 · 윤여탁 · 구본관 · 민병곤 · 최은규 ·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2014), 『한국어교육학 사전』, 하우.
- 한국어대사전편찬회(1976), 『한국어대사전』, 현문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6), 『연세한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 국내 논저

- 강운옥(2004), 『실용중국어문법』, 신아사.
- 고영근 · 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구정영(2006), 인과관계 의미 표현에 대한 한·중 대조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지민(2005), 학문 목적인 국어를 위한 강의 담화표지 학습 연구,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43쪽.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2』,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연구원(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 세계재단(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 프라임.
- 권미정(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교육 독해 전략을 통한 효율적인 읽기 방안, 한국어 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8쪽.

- 기문연(2013), 한국어 인과관계 연결어미와 접속부사 습득 양상에 대한 연구 중급 단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해 외(1999), 『국어지식탐구』, 박이정.
- 김나라(2010),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의 접속부사 오류 연구-일본인 고급 학습자의 중간 언어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7), 텍스트 구조 학습이 한국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어 교육 18-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51쪽.
- 김미선(2001),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순(1996), 텍스트 의미 구조의 표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2), 『국어교육과 텍스트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상수(2011),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평가 담화에 나타난 결속 장치 사용 연구,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3-53쪽.
- 김선영(2003), 현대 국어의 접속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 · 김예지(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 연구: 언어적 · 비언어적 접근,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55-79쪽.
- 김성은(2005), 담화 구조 학습이 읽기에 미치는 영향: 설명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30-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45-76쪽.
- 김윤전(2006), 중국어 복문의 관련 어구 교수 학습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2012), 텍스트 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텍스트언역학 33-0, 한국 텍스트언어학회, 181-212쪽.
- 김정애(1988), 지시어 · 접속어를 통한 독해력 신장 방안 연구, 단국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박이정.

김중섭(2015), 한국어 기능 교육: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어 교육26-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9-388쪽.

김재욱(2010), 한국어 읽기에서의 문법 교육, 문법교육16-1, 한국문법교육학회, 117-138쪽.

김치리(2012), 담화 표지어 활용 전략이 한국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봉자(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박영순(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_____(2007), 『한국어 화용론』, 박이정.

이경화(1998), 설명적인 담화의 구조와 독해, 국어교육 96-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1-142쪽.

이가원(2014),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5-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379-414쪽.

이운자(2017),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육의 전략 기반 지도 방안 연구-전략 기반 지도의 교수-학습 절차와 수업 설계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9-2, 한국문화융합학회, 31-62쪽.

송현주 & 비신연(2014),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접속부사 목록 연구-어문학, 역사, 철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언어학회 73, 75-98쪽.

윤희숙(2007), 접속관계 중심의 읽기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효진(2002), 한국어 학습자 작문의 텍스트의미 구조 표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혜진(2004), 유의관계 접속어군의 의미 변별연구: 나열, 대응, 인과관계 접속어군 중심으로, 경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희현(2005), 『현대 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이경화(1998), 설명적인 담화의 구조와 독해, 국어교육 96, 국어교육연구학회, 111-142쪽.

- 이기학(1994), 텍스트의 계층 구조 분석을 통한 읽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 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석규 외(2001), 『텍스트언어학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 이연정(2009), 한국어 교사의 읽기 교육시 담화표지어 교수 현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1993), 접속부사와 연결어미 교육 방안-접속 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2000),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재승(2003), 읽기와 쓰기 행위에서 결속구조의 의미와 지도, 국어교육 110, 국어교육연구학회 91-111쪽.
- 이향화(2005), 중국인 한국어 학습상 오류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효인(2005), 텍스트구조 표지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정(2003), 한국어의 [-그러] 형 담화표지 기능 연구-일상 대화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진(2005), 국어 교과서의 나타난 접속 표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정줄(1984), 국어의 접속사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훈(1996), 텍스트 이론을 통한 독해력 신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수정(2004), 학문 목적 읽기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교환(1998), 국어 문장부사의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오(1991), 지시어, 접속어 지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
- 정희진(1999), 관형어의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란(2009), 한국어 교육에서의 접속어 교수 방안 연구-초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희(1989), 국어 접속문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진경(2004), 접속관계의 언어적 특성과 국어교육에의 적용 방안 모색- '그' 계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송화(2013), 한국어 접속부사의 사용 양상, 언어 사실과 관점 311, 한글학회 257-303쪽.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3. 외국 논저

- 康寔鎭(1998), 『進明韓中辭典』, 進明出版社.
- 呂叔湘(2008),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 房玉清(2001), 『實用漢語語法』, 北京大學出版社.
- 賀志杰(2014), 韓國語接續副詞和漢語連詞對比研究, 合肥學院學報13-2 119-123쪽.
- 黃伯榮·廖序東(2007), 『現代漢語(增訂三版)下冊』, 高等教育出版社.
- _____ (2007), 『現代漢語教學與自學參考』, 高等教育出版社.
- 李曉琪(1991), 現代漢語複句中關聯詞的位置, 語言教學與研究174쪽.
- _____ (2003), 『現代漢語虛詞手冊』, 北京大學出版社.
- 劉小瑜(2011), 韓國語接續副詞和漢語連詞對比研究, 科教文匯, 162-171쪽.
- 劉月華 외(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 Anderson. N. J.(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tegy use in second language reading and testing,

-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5.
- Bernhardt, E. (1991), Reading Development in a second language:
Theoretical, empirical, and classroom
perspectives, Norwood, N.J: Ablex.
- Block, E. L. (1986),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readers, TESOL Quarterly, 20,
463-94.
- Carrell, P. L. (1984), the effect of rhetorical organization on ESL
reader, TESOL Quarterly 19-4, 723-754.
- Carrell, P. L. (1991), Second language reading: reading ability or
language proficiency?, Applied Linguistics
12-2.
- Coady, J. (1979), A Psycholinguistic model of the ESL reader. In R,
Mackay, B. Barkman, & R. R. Jordan(Eds), Reading
in a second language: Hypotheses, organization,
and practice, Rowley. MA: Newbury House.5-12.
- Cohen A. D.(1990), Language learning: Insights for learner,
teachers and researchers, New York: Newbury
house.
- Dörnyei, Z.(2003), Questionnaire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oodman. K. S. (1967), A psychological guessing game. Journal of
Reading Specialist, 7, 126-135.
- Goodman. K. S. (1967), A psychological guessing game. Journal of
Reading Specialist, 7, 126-135.
- Goodman. K. S. (1973), Psycholinguistics and read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Halliday, M. A. 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부록1. 교사·학습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한국어교육의 접속부사 실태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접속부사가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계하는 문제지입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은 읽기 학습 과정에서 접속부사에 대한 이해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무기명으로 작성이 되며, 여러분께서 주신 응답 내용은 학문적 연구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읽기와 접속부사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요구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 응답에 필요한 응답 소요 시간은 약20분 정도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연구자 린미 드림

(1) 학습자 설문지

I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

1. 소속 기관명: ()
2. 성별: (남/여)
3. 연령대: ()

II 읽기 학습과 접속부사 교수에 관한 설문

4. 현재 귀하가 맡은 읽기 수업 단계는 무엇입니까?

① 초급단계 ② 중급단계 ③ 고급단계

5. 한국어 읽기 수업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어휘와 문법 설명 위주의 수업
- ② 전체적 맥락과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 수업
- ③ 읽기 전략에 관한 수업 지도
- ④ 주로 내용과 관련한 배경 지식을 활용한 읽기 수업
- ⑤ 기타 ()

6. 읽기 학습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어휘력 및 문법 지식
- ②전체적 맥락 및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
- ③글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
- ④읽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⑤기타()

7. 읽기 수업 시 가장 학습 지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 ①어휘 및 문법 설명
- ②전체적 맥락 및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
- ③글의 내용에 대한 의미 전달
- ④읽기 전략 지도
- ⑤기타()

8. 현행 읽기 수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읽기 교안의 부재
- ②적합한 읽기 텍스트의 부족
- ③전통식 상향식 교수법에 머물러 있는 수업 방식
- ④읽기 전략에 관한 교수 부재
- ⑤기타()

9. 접속부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이다
-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0. 읽기 수업 시 접속부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이다
-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1. 접속부사를 읽기 수업 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 ①출현할 때마다 설명하고 가르친다.
- ②글의 구조 유형과 관련한 접속부사를 설명하고 가르친다.
- ③전체적 맥락과 흐름을 연계해서 설명하고 가르친다.
- ④문법 항목이나 어휘 항목처럼 설명하고 가르친다.
- ⑤기타()

12.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 접속부사 관련한 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이다
-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3. 접속부사의 교수가 읽기 학습 단계 중 적합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초급 단계 ②중급 단계 ③고급 단계

- ④모든 단계 ⑤필요없다.

14. 접속부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 읽기 학습에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어휘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②문법 지식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③글의 구조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속독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④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⑤기타()

(2) 교사 설문지

I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

* 소속기관명: () * 성별: (남/여) * 연령대:()

II 읽기 학습과 접속부사 교수에 관한 설문

* 한국어강의경력: ()	년	() 개월
----------------	---	--------

1. 현재 귀하가 맡은 읽기 수업 단계는 무엇입니까?
 ①초급단계 ② 중급단계 ③ 고급단계
2. 한국어 읽기 수업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어휘와 문법 설명 위주의 수업
 ②전체적 맥락과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 수업
 ③읽기 전략에 관한 수업 지도
 ④주로 내용과 관련한 배경 지식을 활용한 읽기 수업
 ⑤ 기타()
3. 읽기 학습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어휘력 및 문법지식
 ②전체적 맥락 및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
 ③글의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
 ④읽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⑤기타()
4. 읽기 수업시 가장 학습 지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①어휘 및 문법 설명

②전체적 맥락 및 글의 구조에 대한 지도

③글의 내용에 대한 의미 전달

④읽기 전략 지도

⑤ 기타()

5. 현행 읽기 수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읽기 교안의 부재

②적합한 읽기 텍스트의 부족

③전통식 상향식 교수법에 머물러 있는 수업 방식

④읽기 전략에 관한 교수 부재

⑤기타()

6. 접속부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7. 읽기 수업시 접속부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8. 접속부사를 읽기 수업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①출현할 때마다 설명하고 가르친다.

②글의 구조 유형과 관련한 접속부사를 설명하고 가르친다.

③전체적 맥락과 흐름을 연계해서 설명하고 가르친다.

④문법 항목이나 어휘 항목처럼 설명하고 가르친다.

⑤기타()

9. 효과적인 읽기를 위해 접속부사 관련한 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0. 접속부사의 교수가 읽기 학습 단계 중 적합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초급 단계 ② 중급 단계 ③ 고급단계

④모든 단계 ⑤ 필요없다.

11. 접속부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 읽기 학습에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어휘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②문법 지식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③글의 구조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속독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④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록2. 접속부사에 관한 테스트 질문지

다음 글을 읽고, 내용과 맞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1)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 중 하나가 휴대 전화를 열어 보지 않는 것이다. 공연 중에 휴대 전화를 확인하면 어두운 공연장에서 휴대 전화의 불빛이 또 하나의 조명이 된다.

() 관객들

은 배우가 아닌 그 불빛을 쳐다보게 되어 공연에 집중할 수 없다. (한국어능력시험 34회 중급 읽기 부분)

①그러나

②그리고

③따라서

④그러면

(2)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없다.

() 인간은 정보가 많을 때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집중하게 된다. 주차된 많은 차들 중에서 내 차만 눈에 보이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나와 관련된 이야기만 잘 들리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 34회 중급 읽기 부분)

①또한

②그래야

③그러니까

④그래서

(3)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감정이 메말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이 왜 우는지, 왜 기뻐하는지 모른다. () 한 권 두 권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 속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주인공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 (한국어능력시험 34회 중급 읽기 부분)

①그래도

②즉

③그래서

④하지만

(4) 종이 쓰레기로 버려진 책을 보면 안타깝다. 책은 그냥 종이가 아니며 지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미 나에게는 필요 없는 책도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지식이고 좋은 정보일 수 있다. () 다 읽은 책은 버리지 말고 새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 좋다. (한국어능력시험 36회 중급 읽기 부분)

①그렇지만

②그러면

③또한

④그러므로

(5) 밀가루는 음식 재료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는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 딸기를 씻을 때 밀가루로 씻으면 좋습니다. () 냄새가 나는 그릇에 밀가루를 넣고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면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36회 중급 읽기 부분)

①그래서

②그러면

③그리고

④그러나

(6) 인기가 많았던 영화나 소설, 만화 등을 드라마로 만들면 새로운 이야기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보다 실패할 위험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드라마라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작품을 이미 재미있게 본 사람들을 다시 만족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①인과(因果: 前后文使用原因和结果, 或结果和原因这样的方式连接)

②첨가(补充: 补充前文内容, 提出新的内容)

③역접(转折: 连接与前文内容相反的内容)

④전환(转换: 后文内容与前文内容不同, 连接新的想法或主题, 转移话题)

(7) 요즘 공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항 안에 여행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잘 수 있는 방과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이 고장 났을 때 가방을 고쳐주거나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 겨울옷을 맡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여권을 안 가져온 사람들에게 여권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①대조(对比: 前后文出现相反的意义内容)

②첨가(补充: 补充前文内容, 提出新的内容)

③인과(因果: 前后文使用原因和结果, 或结果和原因这样的方式连接)

④전환(转换: 后文内容与前文内容不同, 连接新的想法或主题, 转移话题)

(8) 인주시장은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오래된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찾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시장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가게 주인들은 시장에 재미있는 그림을 전시하고 가게의 이름도 예쁘게 써서 걸었습니다.

①대조(对比: 前后文出现相反的意义内容)

②첨가(补充: 补充前文内容, 提出新的内容)

③역접(转折：连接与前文内容相反的内容)

④전환(转换：后文内容与前文内容不同，连接新的想法或主题，转移话题)

(9) 요즘 옛날 영화를 다시 보여주는 극장이 많습니다. 10년 전 영화인 ‘첫사랑’도 다음 주부터 여러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랑’은 내용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온 음악은 요즘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크고 좋은 화면으로 이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①순접(顺接：连接前文内容，起到承上启下的作用。)

②인과(因果：前后文使用原因和结果，或结果和原因这样的方式连接)

③역접(转折：连接与前文内容相反的内容)

④전환(转换：后文内容与前文内容不同，连接新的想法或主题，转移话题)

(10)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색깔과 디자인을 바꾼 수표가 곧 발행된다. 이 수표는 각도에 따라 문자의 색상이 뚜렷하게 바뀌며 발행 번호의 색상도 기존 수표보다 더 선명하게 인쇄된다. 또한 고액권 수표는 이미지를 전산에 미리 등록하여 돈을 인출할 때 같은 수표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수표의 발행으로 더욱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순접(顺接：连接前文内容，起到承上启下的作用。)

②첨가(补充：补充前文内容，提出新的内容)

③인과(因果：前后文使用原因和结果，或结果和原因这样的方式连接)

④전환(转换：后文内容与前文内容不同，连接新的想法或主题，转移话题)

부록3. 접속부사 기능 검증 테스트 질문지

★접속부사가 있는 읽기 테스트와 접속부사가 없는 테스트로 나누어진다.

1. 지금까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를 버리려면 돈을 주고 스티커를 사서 물건에 붙여야 했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버릴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집으로 방문해서 버릴 물건을 무료로 가져가 준다.

- ①신청을 하면 직원이 집으로 온다.
- ②이 서비스는 지금 시행되고 있다.
- ③환경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④5월부터 가전제품을 버릴 때 스티커를 사야 한다.

2.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 중 하나가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다. 공연 중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어두운 공연장에서 휴대전화의 불빛이 또 하나의 조명이 된다. 그러면 관객들은 배우가 아닌 그 불빛을 쳐다보게 되어 공연에 집중할 수 없다.

- ①공연장의 조명은 어두워야 한다.
- ②관객이 참여하는 공연이 많아져야 한다.
- ③공연을 관람할 때는 배우에게 집중해야 한다.
- ④휴대전화 불빛은 공연을 볼 때 문제가 된다.

3.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 사람을 보면서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거기 흰모자 쓰신 분에 전화해주세요” 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사고가 나면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한다.
- ②사고가 났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야 한다.
- ③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④도움을 청할 때에는 도와줄 사람을 정확히 가리켜야 한다.

4.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감정이 메말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이 왜 우는지 왜 기뻐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한 권 두 권 소설을 읽다보면 소설 속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주인

서 먹을 것을 놓고 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가보면 우리가 놓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끼나 산새들이 다 먹은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년 기분 좋게 이 일을 합니다.

- ①우리 동네 산에는 토끼가 살지 않습니다.
- ②동물들은 우리가 산에 놓고 온 것을 먹습니다.
- ③저는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 ④동물들은 먹을 것을 찾으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9)저는 안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안경을 씁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부드러운 느낌의 안경을 씁니다. 운동을 할 때는 가벼운 안경을 씁니다. 그리고 멋있게 보이고 싶을 때는 유행하는 안경을 씁니다. 이렇게 안경을 바꿔서 쓰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 ①저는 안경이 한개 있습니다.
- ②저는 유행하는 안경이 있습니다.
- ③저는 운동을 할 때 안경을 안 씁니다.
- ④저는 사람을 만날 때 안경을 벗습니다.

(10)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공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 할머니께서 노래를 좋아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할머니께서 공연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 공연에서 할머니가 노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공연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할머니의 노래를 처음 듣게 될 것입니다.

- ①할머니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십니다.
- ②우리 가족은 함께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 ③할머니는 가끔 우리를 공연에 초대하십니다.
- ④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공연을 보러갔습니다.

부록4. 사전·사후 테스트 질문지

1. 지금까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를 버리려면 돈을 주고 스티커를 사서 물건에 붙여야 했다. 오는 5월부터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버릴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버릴 물건을 무료로 가져가 준다.

- ①신청을 하면 직원이 집으로 온다.
- ②이 서비스는 지금 시행되고 있다.
- ③환경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④5월부터 가전제품을 버릴 때 스티커를 사야 한다.

2.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의 중 하나가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다. 공연 중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어두운 공연장에서 휴대전화의 불빛이 또 하나의 조명이 된다. 관객들은 배우가 아닌 그 불빛을 쳐다보게 되어 공연에 집중할 수 없다.

- ①공연장의 조명은 어두워야 한다.
- ②관객이 참여하는 공연이 많아져야 한다.
- ③공연을 관람할 때는 배우에게 집중해야 한다.
- ④휴대전화 불빛은 공연을 볼 때 문제가 된다.

3.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 사람을 보면서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 다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거기 흰 모자 쓰신 분에 전화해 주세요” 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사고가 나면 먼저 119에 신고해야 한다.
- ②사고가 났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야 한다.
- ③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 ④도움을 청할 때에는 도와줄 사람을 정확히 가리켜야 한다.

4.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감정이 메달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이 왜 우는지 왜 기뻐하는지 모른다. 한 권 두 권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 속 주인공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주인공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

- ①주人公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것이 좀 힘듭니다. 우리는 매년 기분 좋게 이 일을 합니다.

- ①우리 동네 산에는 토끼가 살지 않습니다.
- ②동물들은 우리가 산에 놓고 온 것을 먹습니다.
- ③저는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 ④동물들은 먹을 것을 찾으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9)저는 안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안경을 씁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부드러운 느낌의 안경을 씁니다. 운동을 할 때는 가벼운 안경을 씁니다. 멋있게 보이고 싶을 때는 유행하는 안경을 씁니다. 이렇게 안경을 바꿔서 쓰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 ①저는 안경이 한개 있습니다.
- ②저는 유행하는 안경이 있습니다.
- ③저는 운동을 할 때 안경을 안 씁니다.
- ④저는 사람을 만날 때 안경을 벗습니다.

(10)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공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동안 할머니께서 노래를 좋아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할머니께서 공연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그 공연에서 할머니가 노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공연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할머니의 노래를 처음 듣게 될 것입니다.

- ①할머니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십니다.
- ②우리 가족은 함께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 ③할머니는 가끔 우리를 공연에 초대하십니다.
- ④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공연을 보러갔습니다.

(11)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신의 적성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생애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불만을 갖게 되기 쉽고, 직업 활동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장래성이다. 물론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그 직업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갖게 될 경우 적절한 보수가 보장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크게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①어려운 선택 ②직업 선택의 기준 ③성공과 실패 ④좋은 직업의 종류

2.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 ①소중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
- ②그 직업의 전망을 보고 직업을 고르는 것이 좋다.
- ③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 ④성격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직업 활동에서 실패하기 쉽다.

(12)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월요일에 유난히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이를 월요일병이라 하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평일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다. 평일에 업무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말에 갑자기 수면 시간을 늘리면 월요일에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식사량이 늘어난다. 가족과의 식사나 친구와의 약속 등으로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약속이 없어도 평소 부족했던 영양을 보충하려는 생각에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을 하게 되면 월요일에 피곤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이처럼 과식도 월요일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1.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 ①주말에는 외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 ②식사량이 일정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
- ③불규칙한 수면과 과식은 월요일병의 원인이 된다.
- ④영양가가 높은 음식은 주말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 ①평일보다 주말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②주말의 과식과 과음으로 인해 월요일병이 발생한다.
- ③영양이 풍부한 음식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좋지 않다.
- ④평일과 주말의 수면 시간에 차이가 크면 월요일에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13)한국은 전통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범죄율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날이 갈수록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특히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범죄가 세배이상 늘었는데, 이 가운데 반이상이 10대에 의해 저질러졌다. ㉢ 또한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전통적인 예절이나 도덕이 무너지게 된 것도 청소년 범죄를 야기하였다. ㉣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액션 영화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폭력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범죄 문제의 심각성
- ②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
- ③선진국과 한국의 범죄율의 차이
- ④산업화와 청소년 범죄의 상관관계

2. 다음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고르십시오.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 첫 번째 원인은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한 데에 있다.

- ① ㉠ ② ㉡ ③ ㉢ ④ ㉣

(14)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컴퓨터가 다운될 수 있으며, 저장되어 있던 자료가 모두 지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다른 사람의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가져올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 그 파일들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따라서 파일을 옮길 때는 이동식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메일을 통해 파일을 옮기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에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 접속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1.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 ①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는 자주 지워야 한다.
- ②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 ③평소에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 ④다른 사람의 파일을 가져올 때는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다.

2. 다음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고르십시오.

이러한 습관을 기르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15)여성의 언어와 남성의 언어는 차이가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소리로 말한다. ㉠ 또한 여성은 말할 때 남성보다 높낮이의 변화가 심하며 상승 어조를 많

이 사용한다. ㉠ 그리고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더 정확하고 좋은 발음을 많이 사용한다. ㉡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표준 발음에 가까운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다른 것’ 보다는 ‘따른 것’, ‘조금’ 보다는 ‘쪼금’ 과 같은 발음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데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귀엽고 어리게 보이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1. 이 글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여성의 언어는 남성의 언어와 다른 특징이 있다.
- ② 여성의 언어는 어린 아이들의 언어와 비슷한 면이 있다.
- ③ 여성들은 귀엽고 어리게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여성들은 남성보다 정확하고 좋은 발음을 많이 사용한다.

2. 다음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고르십시오.

이러한 어조는 친밀감, 부드러움, 공손함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성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어조이다.

① ㉠

② ㉡

③ ㉢

④ ㉣

부록5. 사후 설문지

여러분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속부사 활용 읽기 방법을 배운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읽기 습관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에 더 좋은 읽기 수업을 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니 잘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을 잘 읽고 답하십시오.

읽기 습관

문 항	읽기 습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 령 지 않다	전 형 그 령 지 않다
1	글을 읽기 전에 먼저 빠르게 훑어본다.					
2	글의 종류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다.					
3	글을 읽으면서 접속부사(예: -그리고, 또한, 따라서 등)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읽는다.					
4	접속부사(예: -그런데, 그러나, 그러면 등)을 통해 글의 앞뒤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5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면서 읽는다.					
6	글을 읽을 때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는다.					
7	글을 읽고 나서 글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에 대한 평가

문 항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 에 대한 평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 령 지 않다	전 형 그 령 지 않다
1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나의 읽 기 실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졌다.					
2	이 수업을 들은 후에 글을 더 적극적으로 읽게 되었다.					
3	이 수업을 들은 후에 다른 사 람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서 글을 잘 읽게 되었다.					
4	이 수업을 들은 후에 읽기가 더 재미있어졌다.					
5	이 수업을 들은 후에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6	이 수업을 들은 후에 나의 읽 기 방법(습관)이 달라졌다.					
7	이 수업에서 배운 ‘접속부사를 사용한 읽기 방법’을 나는 현 재 사용하고 있다.					
8	이 수업에서 배운 ‘접속부사를 사용한 읽기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방법(읽기 전략)에 대한 평가

문 항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 에 대한 평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 령 지 않다	전 형 그 령 지 않다
1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2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때 도움이 되었다.					
3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중심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글의 순서나 앞뒤 내용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	5. 읽기를 할 때 접속부사를 활용하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추측하면서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 린미 선생님의 ‘접속부사를 활용한 읽기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십시오.

1. 이 수업의 좋았던 점	
2. 이 수업의 안 좋았던 점	
3. 이 수업의 어려웠던 점	

4. 제안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Reading Using Connected Adverbs

LIN WEI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reading ability of Chinese learners by using the connected adverbs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text.

There are two major discussions on the process of Korean reading. One is the process of grasping the meaning of the text by activating the background knowledge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text and the other is the process of composing the meaning of the text based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language elements composing the text. The former is called the top-down comprehension process and the latter is the bottom-up comprehension process. The upward approach is an essential process to faithfully construct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writing and is an essential process that must be in any reading comprehension. It is the most basic reading method to successfully read the text even when there is no proper prior knowledge. It is also the most practical way to teach students together. In this study, we propose to use this bottom - up reading instruction method to find the linguistic element which is a clue of understanding in the language data of text, Korean connection department generally connects words, phrases or sentences, and it can be seen as a language element because it has the function of decorating it by connecting the meaning of the previous sentence to the following sentence. Since the learner helps the learner to guess the text meaning and grasp the structure,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text faster and more accurately by explicitly emphasizing the role of the adverbial adverb when reading the lecture.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s the use of connection adverbs as an element of the upward reading method and defines the concept. We also demonstrate through experiments that connection adverbs have a positive function in the understanding of rea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usefulness of using adverbs in reading comprehension.

In chapter I, we clarify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and focus on the research category by studying the previous research and set the research direction.

In chapter II, we examine the concept and semantic aspects of reading and reading models and connected adverbs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is study.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the Chinese expressions of connected adverbs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examine how adverbs are treated in curr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apter III, based on the contents of chapter II, we

quantitatively confirm the understanding of connection adverbs of Chinese learners and analyzed the recognition errors of connected adverbs. Also, teachers on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n reading education and connection adverb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learners. Nex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unction of the adverbial adverbs and the reading comprehension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chapter IV, we show the teaching-learning model for reading instruction and the actual way of applying it to student's reading correctly. In accordance with the proposed plan, we will give concrete examples of the learning method for Chinese learner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t has value because it is a basic data for the design of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and teaching and learning plan for Korean reading education by qualitativel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connection adverbs and reading comprehension.

Secon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applies not only the reading lesson to train the adverbial adverbs utilization strategy but also the application in the actual Korean language education field.

keywords : connective adverbs, reading strategy, bottom-up
proach, text, language elements

Student Number : 2015-22393